이투데이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한국투자증권 온라인 투자 BanKIS®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 ISSN 2383-6652

2015년 7월 31일 금요일 제1205호

"중국 불안하다" 위안화 예금 '썰물'

3%대 금리 매력있지만 환변동 따라 마이너스 우려
1분기 2조 달러 넘어섰다 넉달만에 5350만 달러 이탈

올 초 3%대 금리로 큰 인기를 모았던 위안화 예금에서 자금이 대거 이탈하고 있다.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감에 위안화 약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고객들이 서둘러 돈을 빼내고 있는 것이다. 위안화 예금은 환율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우리, 하나, 외환, 기업 등 5개 시중은행의 위안화 예금 잔액(29일 기준)은 1조513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말 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이 본격화한 이후 1분기 2조480억 달러까지 몸집을 불렸지만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감이 급속히 퍼지면서 넉 달 만에 5350만 달러(27%)나 급감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총 잔액 대비 기업은행의 자금 이탈 규모가 가장 컸다. 6월 말 1800만 달러까지 규모를 늘려 가던 기업은행 위안화 예금에서 한 달 만에 990만 달러가 빠져나갔다. 감소폭이 55%에 달한다.

운용규모가 가장 큰 외환은행도 이달 들어 1340만 달러가 빠져나갔다. 정점을 찍었던 2분기(9820만 달러)와 비교하면 넉 달 새 43%나 급감했다.

이 밖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역시 월초 후 각각 350만 달러, 20만 달러가 빠져나갔다.

KB국민은행의 경우 기업들의 무역결제 계좌가 몰리면서 총 잔액이 6월 말 1520만 달러에서 이달 29일 기준 1980만 달러로 460만 달러가 늘었다. 그러나 개인 고객들만 따로 보면 같은 기간 82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감소했다.

위안화 예금은 올 초 3%대 고금리에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매력에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다. 정부의 위안화 역외 금융 허브 방안 마련에 개인들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면서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자본항목이 빠른 속도로 개방되고 대외 직접투자가 날로 늘면서 위안화가 강세를 보인 것이 고객들의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중국 경기둔화가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상이 임박하면서 위안화가 약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중국이 위안화의 달러 환율 변동폭을 현행 2%에서 3%로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약세 압력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개인 고객들이다. 위안화 예금은 환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3%대 금리를 받더라도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6월 말 위안화 매매기준율이 179.84원에서 24일 기준 188.13원으로 한 달 새 10원가량 올랐다"며 "환차익을 거둔 고객들이 하반기 위안화 약세에 대비하기 위해 서둘러 돈을 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한자리 모이는 롯데家 계열분리 중재 가능성

오늘 신격호 총괄회장 부친 기일 가족회의로 이어질 듯
韓·日 경영권 분리 대타협 관심

롯데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형제간 분쟁이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친모인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88)씨가 30일 방한한 데 이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31일 오후 귀국이 예정돼 있어 롯데가(家) 가족회의가 진행될 경우 경영권 분쟁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2면

31일 재계에 따르면 이날 신격호 총괄회장의 부친인 고 신진수씨의 기일을 맞아 가족회의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제사 참석을 이유로 가족들이 모일 경우 롯데그룹의 후계와 한·일 경영권을 놓고 총수 일가가 서로의 입장과 향후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먼저 가족회의에서는 그동안 롯데그룹의 승계구도였던 '장남-일본, 차남-한국'이라는 대원칙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재계는 내다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계열사들을 적절하게 분리, 일본은 장남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운영하고, 한국은 차남인 신 회장이 담당하는 '황금분리' 경영안으로 가족간 합의가 이뤄질 것이란 예측이다.

현재까지의 정황을 살펴보면 그룹 경영권을 놓고 신 총괄회장을 비롯해 신 전 부회장·신영자 이사장, 롯데가 일부 친인척 대(對) 신 회장의 구도로 짜여 있어 힘 대결에서 신 회장이 밀리는 양상이다. 특히 경영권 장악을 위해 아버지까지 해임시킨 상황에서 표 대결로 가는 시나리오가 매우 부담스럽다는 분석이다.

시게미쓰씨의 등장이 주목받는 건 이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시게미쓰씨가 차남과 소원해진 남편을 설득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시게미쓰씨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의 지분을 15~20% 가진 주요 주주로 알려지면서 향후 표 대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이 예상된다. 형제가 표 대결까지 갈 경우의 후폭풍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중재 역할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자리하고 있는 광윤사의 지분 구조는 애초 알려진 내용과 달리 신 전 부회장이 30%, 신 회장 25%, 시게미쓰가 15~20%를 보유하고 있고, 신 총괄회장은 10% 이하, 신 이사장이 1% 미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신 총괄회장을 비롯해 롯데 일가가 모두 신 전 부회장의 손을 들어준다고 해도 모친의 결정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형제간 경영권 다툼에 대해 정·재계는 물론 국민들까지 비난을 퍼붓는 상황에 롯데그룹이 표 대결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는 의문"이라며 "이번 가족회의를 통해 한·일 경영권과 지배구조, 계열분리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철규 기자 yoonck@

'어닝쇼크' 덮친 증시 8월엔 "팔자" 멈출까

"악재 다 나와… 반등할 듯"
전문가들 조심스러운 낙관

미국 금리인상 우려에서 촉발된 외국인의 '팔자'에 기업 실적 악화라는 직격탄까지 맞으며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증시 전문가들은 향후 발표될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나쁘지 않아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관련기사 3면

31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전일 하락세를 딛고 소폭 오름세로 출발했다. 코스닥은 이내 하락 반전하며 710선마저 내주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지만 오전 9시 30분 현재 전날 충격에서 벗어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시간 코스피도 2020선을 중심으로 혼조세를 보이다 상승세로 방향을 잡아 가는 중이다.

최근 증시 하락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전망치를 하회하면서 촉발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일 4% 가까이 빠졌던 삼성전자는 이날도 0.5% 하락한 121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실적쇼크를 연출한 LG전자는 4만원대를 지지하며 다소 반등한 4만1000원대에서 거래 중이다.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일 14% 가까이 급락했던 네이버는 보합을 기록 중이다.

2분기 실적 우려를 촉발시켰던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3사도 다소 반등하며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코스닥의 급락을 이끌었던 한미약품, 종근당홀딩스 등 제약주와 바이오주도 충격에서 벗어나 반등에 성공했다.

한편 증시 전문가들은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을 중심으로 압축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배당 모멘텀이 있고 저평가된 종목군, 하반기 실적 모멘텀을 보유한 업종을 중심으로 급락하는 장세에 대응하라는 조언이다.

또 가격메리트 보유 종목군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도 수익률 확보차원에서는 하락장에서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되는 업종 중에서도 관심 대상에 오른 업종은 유통과 에너지, 건설 등이 꼽혔다.

대신증권 조윤남 센터장은 "그 동안 증시에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다 나온 상태인 만큼 더 나빠지기보단 악재 해소 뒤의 랠리에 초점을 맞춰 반등할 것으로 본다"며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의 발표는 다 된 것으로 보며 앞으로 발표될 화학·증권 업종 등의 2분기 실적은 전망이 밝기에 실적 우려감은 덜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미국 금리인상 시점 때문에 글로벌 자금의 유동성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단번에 바닥 추세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며 "8월 초중반 유럽에서 유동성 효과를 증명할 것이며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 쪽에 자산을 늘리는 낙관적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유현 기자 yhssoo@

찜통더위엔 물놀이가 최고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상청은 당분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폭염이 이어지겠고 밤에는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광장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중동건설 54억 달러 '잭팟'

대우·현대 등 5개사, 쿠웨이트 정유공장 수주

국내 건설사들이 올해 발주되는 해외공사 가운데 최대어로 꼽히는 총 140억 달러 규모의 쿠웨이트 신규 정유공장 프로젝트(NRP) 5개 패키지 중 4개 패키지를 수주했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현대건설·현대중공업·SK건설·한화건설 등 5개사가 쿠웨이트 국영 석유회사(KNPC)가 발주한 쿠웨이트 알 주르 신규 정유공장(New Refinery Project·NRP)의 낙찰통지서(LOA)를 접수했다.

쿠웨이트 정부는 이 사업을 공종별로 5개의 패키지로 나누어 올해 1월에 5번 패키지를, 3월에 1~3번 패키지를 각각 발주했다.

우선 공사 규모가 가장 큰 2번과 3번 패키지는 대우건설·현대중공업·미국 플루어가 참여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각각 최저가로 입찰했다. 전체 공사금액은 59억 달러로, 이 가운데 대우건설과 현대중공업이 39억2000만 달러를 확보했다.

또한 증유와 잔사유 탈황·수첨처리시설 공사로 메인 공정인 1번 패키지는 한화건설 컨소시엄(스페인 테크니카스 리유니다스, 중국 시노펙)이 차지했다. 한화건설 지분은 4억2400만 달러다.

5번 패키지는 현대건설·SK건설·이탈리아 사이펨 컨소시엄이 수주했다. 이 공사는 알 주르 정유공장의 석유화학제품 수출용 해상 출하 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총 공사금액이 15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현대건설은 계약금액의 40%인 6억 달러, SK건설은 30%인 4억5000만 달러를 각각 수주했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저유가 여파로 중동 산유국들이 신규 공사 발주를 연기하거나 축소하면서 수주 물량이 급감했다"며 "이번 쿠웨이트 NRP 수주로 상반기에 부진했던 중동 수주 물량을 일정 부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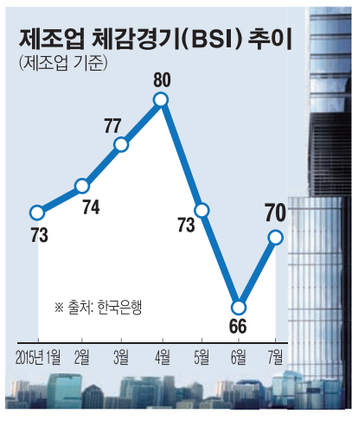
구성헌 기자 carlo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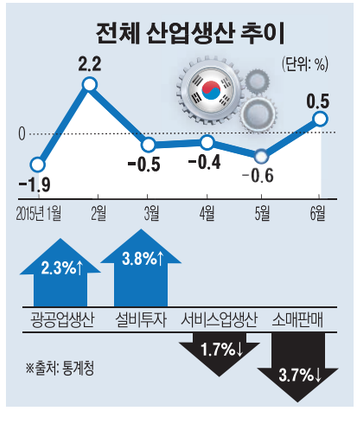
데이터 뉴스 Data News

7월 제조업 체감경기 반등 성공

7월 제조업 체감경기가 반등했다.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0으로, 전월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 업황 BSI는 지난 2월(74)부터 석 달째 오름세를 띠다가 5월(7포인트↓), 6월(7포인트↓)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두 달 연속 큰 폭으로 미끄러졌다. 하지만 7월에는 메르스 사태의 진정과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 기대감으로 석 달 만에 오름세로 전환됐다.

이진영 기자 mint@





전체 산업생산 4개월 만에 증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우려를 딛고 6월 전(全)산업생산이 생산과 투자 부문에서 선전하며 넉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 부진에도 광공업 등에서 늘며 전월 대비 0.5%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 2월(2.2%) 이후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다 6월 증가세로 반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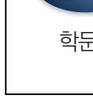
광공업생산의 경우 전월보다 2.3% 증가했다.

김희준 기자 h9913@

하루 한 생각 切磋琢磨 (절차탁마)
학문과 덕행을 힘써 닦는다
▶ 12면


권선주 행장 ▶6


서용식 대표 ▶13


Star 스페셜 ▶15~17
유럽축구 킥오프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etoday.co.kr 온라인뉴스는 계속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형제의 난' 롯데시네마의 엔딩…결국 아버지의 初心대로?

〈장남 일본, 차남은 한국〉

롯데 '경영권 분쟁' 새 국면

서로 "우리가 우세하다" 주장
새로운 계열분리설 수면 위로

日홀딩스·L 전략적 투자사들
한국 지주사격 롯데호텔 지배

결국 두 곳 연결고리 끊어내면
손쉽게 계열분리 완성하게 돼

신동빈 전략 투자사 장악하고
신동주 홀딩스 지배구도 유력

롯데그룹의 형제간 경영권 쟁탈전이 막장으로 치달으면서 결국 새로운 계열분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31일 밤 신격호 총괄회장의 아버지 기일로 가족 전체가 모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분쟁 종식을 위한 '황금분할'을 찾는 데 머리를 맞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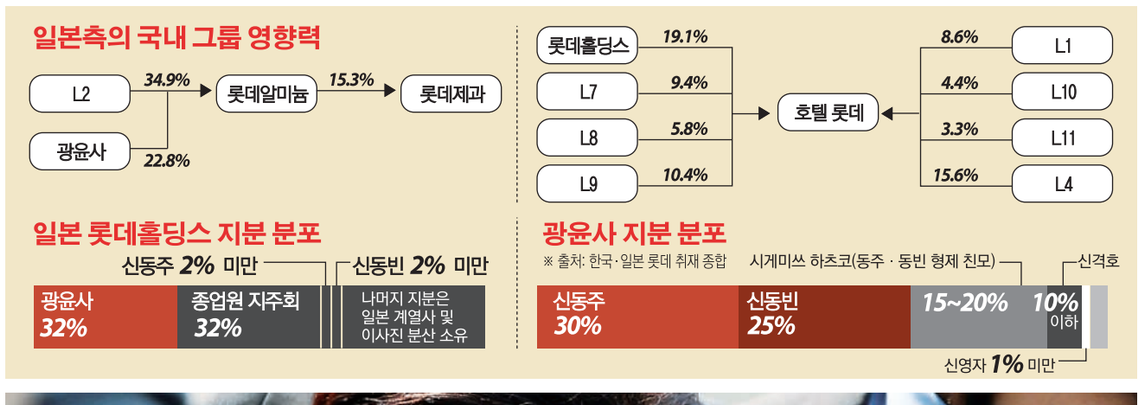
롯데그룹의 형제간 다툼의 시작은 거미줄처럼 얽힌 복잡한 지배구조 때문이란 게 재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현재까지의 정황을 따져보면 일본 롯데홀딩스와 정체불명의 전략적 투자회사(L1~L12)가 한국 롯데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를 지배하면서 한국 롯데를 맡았던 차남이 이를 지키기 위해 일본까지 넘봤을 가능성이 높다. L투자회사들의 호텔롯데 지분은 최근(2015년 3월) 46%에 이른다.

형제간 경영권 분쟁을 막기 위해 신격호 총괄회장은 2007년 일본 롯데의 대대적인 지배구조 개편에 들어간다. 일본 롯데그룹이 2007년 3월 말에 공개한 사업구조 재구축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롯데홀딩스가 일본 주력 계열사를 지배하고, 롯데전략적투자라는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비주력 계열사를 완전히 지배하는 식으로 일본 롯데의 지배구조를 탈바꿈시켰다.

그러면서 일본 롯데를 지배하는 롯데홀딩스와 롯데전략적투자 두 곳은 각각 광윤사와 롯데직원회가, 롯데전략적투자 회사는 롯데국제 장학재단이 지배하는 구조까지 만들었다. 결국 롯데홀딩스와 롯데전략투자 간 연결고리만 끊어내면 롯데그룹의 계열분리는 쉽게 완성되는 구조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하게 논의될 수 있는 구도는 한국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전략적투자는 차남이 차지하고, 일본 계열사를 지배하는 롯데홀딩스를 장남에게 넘기는 구도가 유력하다. 가족간 논의 과정에서 그동안 한국 롯데의 경영에서 소외돼 있던 맏딸인 신영자 이사장의 경우 지분가치 재산정을 통해 계열사 일부 등을 넘겨받을 수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일본 롯데의 경우 대부분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주식 스와프 등을 통해 분리와 통합 과정이 순조로울 수 있다"며 "형제간 분쟁 종식을 위해선 신 총괄회장이 염두에 뒀던 한일 경영 분리 원칙에서 한 발짝 더 나간 새로운 계열분리가 최선책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두 번째 부인이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형제의 모친인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88)씨가 30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 승용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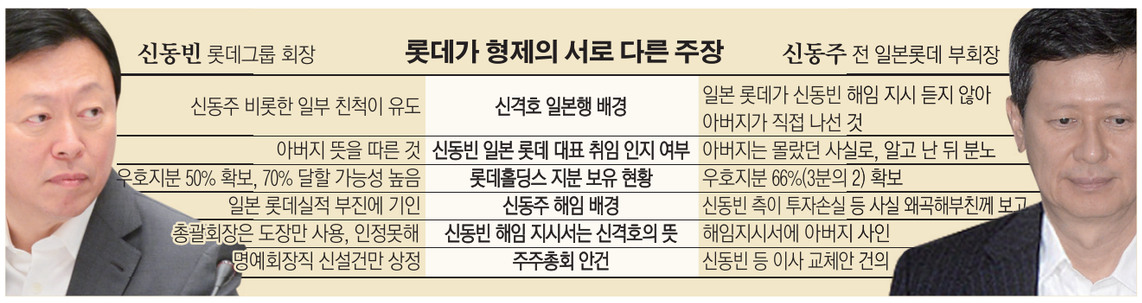
하지만 이들이 계열분리 제안을 거부할 경우 향후 열릴 주주총회에서의 표 대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 전 부회장의 주장처럼 표면적으로 장남의 편에 서 있는 신 총괄회장이 신 회장을 해임하는 수순까지 이어지면 롯데 경영권 분쟁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다. 형제는 서로 우호지분을 포함해 자신이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롯데그룹은 "이사 해임 무효결정은 신 회장 지분 우세 없인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고, 신 전 부회장 역시 "우호지분을 포함해 3분의 2를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표 대결까지 가기에는 여론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 재계와 정계 등에서는 "표 대결로 치달을 경우 자칫 롯데그룹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가족간 타협과 양보가 필요한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윤철규 기자 yoonck@

엇갈리는 주장… 누가 맞나

신동주 신격호 서명 '신동빈 해임서' 공개
신동빈 아버지는 도장만 사용, 효력 없다



롯데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간의 다툼이 진실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이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를 한데 이어,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서명이 담긴 신 회장 등 일본 롯데홀딩스 임원들에 대한 해임지시서를 공개해 진실게임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결국 주주총회서 표 대결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 전 부회장은 30일 부친의 사인이 담긴 신 회장의 해임지시서와 본인을 다시 롯데홀딩스 사장으로 임명하는 지시서를 공개했다. 신 회장 측(롯데그룹)은 "신 총괄회장은 도장만 사용하기 때문에 서명에 대해 의문이 든다"면서 "지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일본 롯데홀딩스는 비상장법인으로, 정확한 지분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동안 신 총괄회장이 28%, 일본 롯데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소규모 포장재 회사 광윤사(光潤社)가 27.65%, 신동주·동빈 형제가 각 20% 안팎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 측은 "신 회장이 이미 롯데홀딩스 지분의 과반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지분율이 최대 70%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의 의결권은 아버지가 대표인 자산관리 회사가 33%를 지닌다"며 "나는 2% 미만이지만 32%를 넘는 종업원 지주회를 합하면 3분의 2"라고 반박했다. 이는 신 총괄회장의 의중에 따라 판세가 뒤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두 형제는 이와함께 아버지가 서로 자기 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아버지가 신동빈의 한일경영 통합체제에 대해 알지 못했고, 소식을 접한 이후에 분노하며 일본에 간 것"이라며 "신 회장의 해임 역시 아버지의 뜻이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해임은 경영성과에 의한 것이며,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총괄회장을 억지로 모시고 가 구두로 해임발표를 유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말 신 전 부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에서 해임당한 것과 관련해서도 신 전 부회장은 "동생(신 회장)이 잘못된 정보로 자신의 해임을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신 회장 측은 "부실 경영에 따라 아버지가 결정 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선애 기자 lsa@

'롯데 사태'에 재계 당혹감

경기활성화 퇴색
'사면' 찬물 우려도

드라마서 보던 오너가 분쟁
'反 기업정서'로 번질까 우려

이른바 '형제의 난'인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면서 재계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번 롯데 사태로 반(反)기업 정서가 불거지며 재계 행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각 기업과 경제단체는 롯데의 경영권 분쟁에 주목하면서도 국내 반응에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내수 활성화를 위해 투자와 고용 확대에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반기업 정서가 불며 이 같은 노력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 싸움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이들 형제의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까지 경영권 분쟁 전면에 등장하는 모습이 마치 드라마 속 오너일가의 다툼처럼 그려져 기업인에 대한 반감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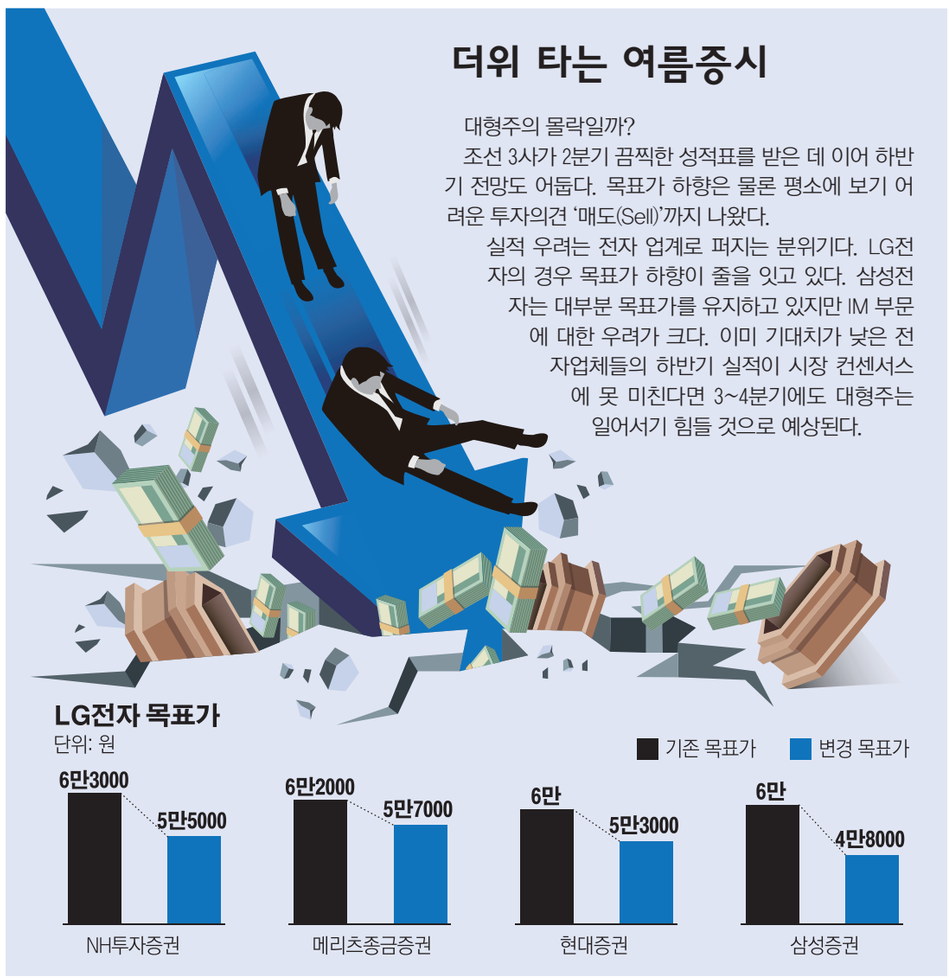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번 롯데 사태로 모든 경영인과 오너일가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생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걱정"이라며 "특히 가업 승계 때마다 국민들이 경영능력 등은 보지도 않고 색안경을 끼고 사안을 바라볼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광복절을 겨냥해 검토되고 있는 기업인 특별사면에도 악영향을 미칠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그동안 경제계가 경기활성화와 고용확대 등을 위해 기업인에 대한 사면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해 왔는데, 국민 정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면이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메르스 사태 이후 국내 휴가 권장,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이 같은 경기 부흥 노력이 자칫 희석되진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대형주의 몰락?… 조선 이어 전자업종까지 목표가 줄하향



"조선3사, 하반기 전망도 어둡다"
증권사 일제히 목표가 하향 조정
일부에선 '매도' 의견 내놓기도
'어닝쇼크' LG전자도 목표가 뚝

◇조선3사, 2Q 대규모 적자… 투자의견 '매도(Sell)' 등장 = 지난 29일 일제히 발표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2분기 영업손실은 4조7941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조선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반적으로 바뀌었다. 업황 개선이 미지수인데다 수주 전망도 불투명해 하반기에도 조선 3사의 실적이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강동진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전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향후 추가 손실과 실적 우려를 고려해 투자의견을 '매도'로 하향했다.

강 연구원은 "향후 회계법인 정밀심사로 추가적인 손실이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I/S(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 턴어라운드보다 영업활동 현금흐름 개선과 미청구공사, 순차입금 등 B/S(대차대조표) 항목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 역시 수주 부진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저유가 기조에 따른 해양플랜트 수요 감소와 일반 상선 수주경쟁 심화로 발주시장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유재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조선부문과 해양플랜트부문에서 실적 개선이 예상되지만 발전플랜트 부문에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의미있는 실적 개선은 2016년에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NH투자증권은 목표주가를 16만원에서 14만원 하향했고, 메리츠종금증권도 11만6300원으로 내렸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단기에 대규모 해양플랜트 관련 설비의 신규 발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키움증권은 이를 근거로 삼성중공업의 목표주가를 1만6500원으로 떨어뜨렸다.

◇LG전자, 증권사들 목표가 하향 줄이어… 대형주 전체로 이어지나 = 증권업계가 앞다퉈 하반기 목표주가를 조정한 대형주는 LG전자다. 전자 담당 연구원들은 대체적으로 업황 불황 속에 하반기 실적이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동원 현대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매출은 전년 대비 3% 감소한 29조2000억원, 44% 줄어든 4111억원으로 추정된다"며 "HE, MC 부문은 환율 안정, 패널가격 하락 및 제품믹스 개선 등으로 흑자전환이 예상되지만 경쟁사의 신제품 출시에 따른 점유율 경쟁 심화로 수익성 개선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NH투자증권은 이에 목표주가를 기존 6만3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하향했다. 메리츠종금증권도 6만20000원에서 5만70000원으로 목표가를 내렸고, 현대증권 역시 6만원에서 5만3000원으로 변경했다. 삼성증권의 경우 6만원에서 4만8000원으로 크게 조정했다.

증권사들은 연초 이후 글로벌 IT 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부진하다고 입을 모은다. 환율 등 매크로 사업환경은 최악을 지나고 있지만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하반기에 이런 상황이 의미있게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IM부문의 부진을 강조하며 목표주가를 하향하는 곳과 환율 상승 및 반도체 생산 증가로 소폭 개선될 것이라는 시각이 맞서고 있다.

IBK투자증권은 이날 삼성전자에 대해 IM부문의 2분기 실적이 2011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3분기에도 감익이 예상된다며 목표주가를 종전 대비 4.5% 내린 15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승우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IM은 경기둔화, 환율불안, 경쟁격화라는 불리한 변수가 계속 영향을 줄 것"이라며 "관건은 IM 사업부의 마진을 어느 정도에서 지켜내느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환율 상승 효과와 메모리 반도체 생산 증가가 IM 부문 이익 감소를 상쇄할 것이라며 일단 목표주가를 160만원을 유지했다.

황윤주 기자 hyj@

바이오·제약株 리스크에 코스닥 휘청

한미약품 실적 쇼크로 제약업종 무더기 급락… 코스닥 2.41% '뚝'
"가격 부담·실적 우려로 강한 조정 받아… 지수 700선 위협할 수도"

국내 바이오·제약주의 힘이 빠지자 코스닥이 휘청이고 있다. 한미약품은 하루 새 10% 넘는 폭락세로 코스닥 지수 전체에 영향을 주며 '코스닥 쇼크'를 반복하게 만들었다.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지자 그동안 고평가된 바이오·제약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증시에서는 한미약품이 11% 넘게 빠지면서 하락세를 주도했다. 실적악화가 악재로 작용했다. 바이오·제약주가 하락세를 보이자 코스닥 전체가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다.

31일 코스닥시장은 전일 하락세를 딛고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힘은 강하지 못하다. 전일 5~7%대의 하락세를 연출했던 삼성제약, 종근당홀딩스, 부광약품, 한독 등은 일제히 상승하고 있지만 강한 반등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 코스닥 시장의 하락세와 미미한 반등은 그동안 상승세를 이끌었던 바이오·제약주에 대한 가격 부담이 대두되며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2분기 실적 발표를 목전에 두고 메르스로 인한 실적 우려에 강한 조정을 받으며 시장 전반의 투자심리가 냉각된 것으로 해석된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폭락은 미국 금리인상과 관련해서 금리나 환율이 불안하다 보니 밸류에이션 관련 고평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빠지는 과정이다"라고 진단했다.

바이오·제약주의 회복은 신약개발 여부와 기술 수출, 양호한 실적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천정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시장 주도주였던 바이오·제약주가 조정을 받으며 코스닥 급락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한미약품의 어닝쇼크는 그간 상승세였던 바이오·제약주에 대한 차익실현 욕구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오·제약주는 밸류에이션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종목들"이라며 "전반적인 바이오·제약주의 약세는 코스닥지수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실질적인 어닝과 기술개발, 계약 등 나와야 반등에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배당·저평가·실적개선주 주목하라"

통신·은행 등 내수주 위주 접근 필요
유통·에너지·건설 업종도 관심 대상
하반기 실적 모멘텀 있는 업종 공략

국내 주요 기업들의 부진한 실적 발표로 투자심리가 악화되며 증시가 고꾸라졌다. 추세 회복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개별 모멘텀 있는 종목군을 중심으로 압축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배당 모멘텀이 있고 저평가된 종목군, 하반기 실적 모멘텀을 보유한 업종을 중심으로 급락하는 장세에 대응하라는 조언이다.

일단 배당성향이 높은 종목들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최근과 같이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배당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인 안정성이 더욱 부각된다는 것.

김진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책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배당확대의 전제조건이 안정적인 이익성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속적인 배당성향의 유지와 더불어 추가적인 배당확대 여력의 보유 여부가 업종 선별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통신, 은행, 보험 등 내수주 위주의 접근이 유효해 보인다"고 밝혔다.

가격 메리트 보유 종목군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도 수익률 확보 차원에서는 하락장에서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되는 업종 중에서도 관심 대상에 오른 업종은 유통과 에너지, 건설이다.

유통업종은 메르스 여파에 따른 소비부진 양상이 완화되면서 하반기 실적개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한 에너지 업종은 2분기 어닝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둔화 우려가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약세를 지속, 저평가 영역에 진입한 상황이다.

건설업종의 경우에는 해외부문의 부진을 국내 주택시장의 호조로 만회해 가고 있어 주택 비중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하는 선별적 접근이 유효해 보인다

2분기 어닝 쇼크에 증시가 흔들리는 지금 하반기 실적 모멘텀이 있는 업종을 공략하라는 조언도 나왔다.

이준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전체적으로 신흥국 증시의 전반적인 약세와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세 등 지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보수적인 시장 대응이 바람직해 보인다"면서 "다만 다음주를 기점으로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면 투자자들의 관심은 3분기와 하반기 실적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FTA 11년…관세혜택 늘었지만 기계·자동차·석유제품 등 실적 저조

수출 효자품목은 "울고 싶어라"

관세청 'FTA 무역리포트'

우리나라가 수출 증진을 위해 전 세계 주요 교역국과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고 있지만 관세 철폐나 인하로 인한 FTA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특혜 관세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유리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지만, 기계·자동차·석유제품 등 수출 비중이 높은 효자품목들의 수출 실적은 신통치 않았다. 특히 FTA 관세 적용으로 육류나 축산가공품의 수입이 많이 늘어나 국내 축산업에 적잖은 타격이 우려된다.

31일 관세청이 발간한 '2015년 2분기 FTA 무역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 중 발효 2년차 이상인 유럽연합(EU), 유럽자유무역협회(EFTA), 미국, 터키, 페루, 칠레 등에 대한 특혜 관세 적용 품목의 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대부분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FTA 특혜는 협정에서 정하는 특정한 품목에 한해 적용되며, 해당 품목도 협정별, 국가별, 연도별로 세율이 다르다.

수출 상위품목 중에서는 화학공업 제품이 2013년에 비해 지난해 36.7%나 올라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농림수산물(23.2%), 철강금속제품(19.5%), 전기전자제품(14.9%), 섬유류(10.2%) 등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호조세였다.

상품분류별 FTA 특혜 수출입 실적 증감률 단위: %

구분	기계류	화학공업제품	전기전자제품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광산물	섬유류	철강금속제품	농림수산물
수출	4.4	36.7	14.9	9.2	-8.9	10.2	19.5	23.2
수입	13.0	4.6	1.7	0.9	-10.7	1.5	9.5	22.5

세부품목별 FTA 특혜 수출입 실적 증감률 단위: %

구분	자동차	자동차부품	섬유및 화학기계	무선통신기기	플라스틱제품	고무제품	석유제품	축산가공품
수출	-4.7	5.1	-12.9	16.3	16.7	5.2	-9.1	-3.9
수입	47.1	6.5	2.2	42.4	-3.3	1.4	-2.5	22.2

FTA 체결 국가별 FTA 특혜 수출입 실적 증감률 단위: %

구분	기계류	화학공업제품	전기전자제품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광산물	섬유류	철강금속제품	농림수산물
미국	0.3	22.8	14.5	3.6	-5.5	4.7	18.1	6.2
EU	5.9	28.5	13.8	12.4	0.5	5.0	11.8	71.5
칠레	-10.4	-4.4	32.0	-5.1	-77.4	-25.7	-1.2	75.9
EFTA	15.1	17.3	-12.2	42.5	-99.7	20.4	24.5	11.7
페루	-2.1	70.6	-66.2	-29.2	14.9	24.2	29.0	196.3
터키	60.7	104.5	74.2	61.7	232	76.9	93.9	-0.2

가격경쟁력 우위…전체적으로 수출 7% 증가
육류·축산가공품 수입 늘어 축산업 큰 타격

면 지난해 FTA 발효국과의 수출은 전체적으로 7.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세부 수출 품목별 실적을 살펴보면 희비는 엇갈린다. 수출 5대 품목(비중)에 속해 있는 석유제품(9.9%), 자동차(8.5%), 기계류(8.5%)는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고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우선 지난해 반도체에 이어 두 번째로 수출 비중이 높았던 석유제품의 특혜 수출은 2013년에 비해 9.1%나 급감했다. 자동차도 같은 기간 특혜 수출 실적이 4.7% 줄었다. 반면 특혜 수입은 47.1%나 늘어 대조를 이뤘다. 기계류는 2013년에 비해 지난해 특혜 수출 실적이 4.4% 늘긴 했지만 주요 수출 상위품목 중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특혜 수출 수입 실적은 13%나 늘었다.

농축산 선진국과의 FTA 체결로 인한 시장 확대로 국내 축산업계의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축산가공품 특혜 수출은 전년도보다 3.9% 줄었으며 수입은 35.8%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육류 수입도 22.2% 증가해 축산업의 타격이 컸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EU FTA 수입 특혜 관세 활용률은 82.9%로 나타나 관세 인하 효과가 상당하다. 한·EU FTA 이행연도가 늘어날수록 그만큼 관세 혜택을 보는 EU산 농축산물이 많아져 수입 확대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현재 아세안, EU, 미국 및 호주, 캐나다 등 총 11개 협정, 49개국과 FTA가 발효 중이며, 올해 안에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과도 FTA가 발효될 전망이다.

전민정 기자 puri21@

급성장하는 인도시장…동북아 3국 10년간 점유율 보니

韓 '정체' 中 '2배↑' 日 '축소'

급성장하는 인도시장에서 한국, 중국, 일본이 치열한 '수출 삼국지 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지난 10년간 인도시장 수입 점유율을 2배 가까이 확대한 반면 한국은 정체되고, 일본은 축소돼 대비를 이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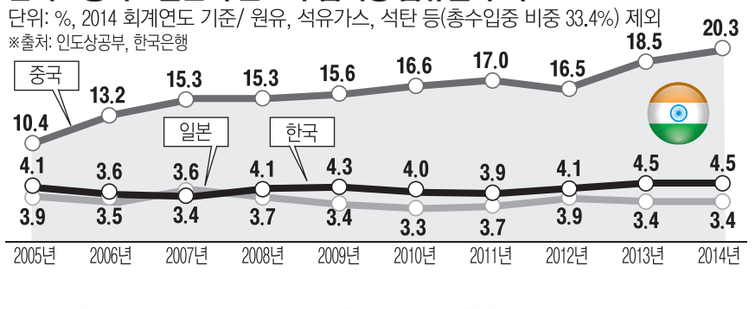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인도경제의 성장 전망 및 한·중·일 수출 경합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수입액은 2014년 기준 4605억 달러로 2005~2014년 중 연평균 14.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인도는 또 지난해 기준 세계 11위 수입국(세계 수입의 2.4% 차지)이며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다. 유엔에 따르면 인도는 높은 출산율로 2024년부터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가운데 한·중·일 동북아 3국은 모두 2005~2014년 중 대(對)인도 수출이 크게 늘었다. 10년간 한국은 2.8배(2014년 기준, 128억 달러), 중국은 6.1배(542억4000만 달러), 일본은 2.2배(80억9000만 달러) 각각 늘었다. 인도 수입시장 점유율 순위를 국가별로 보면 작년 기준 중국이 1위, 한국 4위, 일본은 8위를 차지했다.

한국 · 중국 · 일본의 인도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2014 회계연도 기준/ 원유, 석유가스, 석탄 등(총수입중 비중 33.4%) 제외

※출처: 인도상공부, 한국은행



눈여겨볼 점은 인도의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2005년 10.4%에서 2014년 20.3%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한국은 4.5% 내외에 머물렀고, 일본은 3.9%에서 3.4%로 하락해 대조됐다.

더군다나 한국의 대인도 주요 수출품목은 전자기기, 철강, 기계류 등으로 중국 및 일본과 상위 10대 품목이 상당 부분 겹친다. 고양중 한은 신흥경제팀 조사역은 "수출에서 한·일 경합도가 한·중 경합도보다 높은 수준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중 간 경합이 높아졌지만 한·일 간 경합은 약화되면서 격차가 축소되고 있다"며 "중국과의 수출경합도가 더욱 높아진 데 따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진영 기자 mint@

'공장입지 확보' 명분…국유림·산지 허물기 나서나

정부, 산단 규제완화 계획

산단 조성시 보전산지 비율 폐지
계획관리지역 업종제한도 완화
'제2의 그린벨트' 논란 또 부추겨



황교안 국무총리가 30일 경기도 안산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규제에 대한 현장의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즉석에서 개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장입지 확보를 위해 또다시 환경규제 허물기에 나서면서 '제2의 그린벨트'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30일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재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부처 공동으로 공장 신증설 및 산단 활성화를 위한 산지 규제 완화, 산업단지 입지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보전산지의 경우 산업단지 조성 시 보전산지 편입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고,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공장 입지 규제와 업종제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또 특별시·광역시에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때 요존국유림 편입 면적을 기존 4ha 미만으로 제한한 것을 8ha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관리되던 보전산지는 택지개발과 산업용지 공급을 허용했던 준보전산지와의 보전 차별성을 상실해 사실상 산림 난개발의 수순을 밟게 됐다. 또 관련 규제가 흔들리면서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금지 법안을 통과시킨 요존국유림 보호는 불과 2년 만에 후퇴하게 됐다.

산업단지 입지 규제완화 지역의 지역별 면적 현황 (단위: ha)

	전체 면적	서울시 면적	특광역시 면적	경기도 면적
계획관리지역	11,197	0	25,219	141,204
보전산지 면적	4,940,320	11,542	190,878	386,258
요존국유림 면적	1,353,985	3,932	13,669	57,917
합계	6,305,502	15,474	229,766	585,3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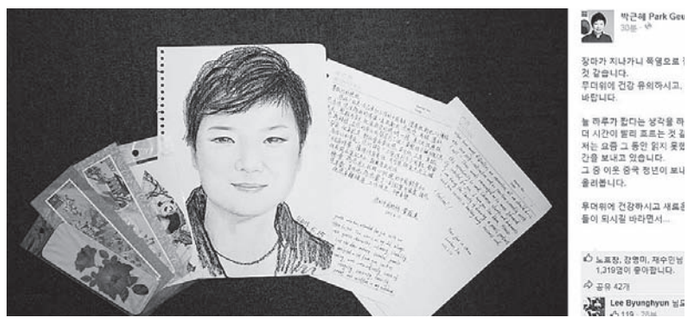
※참고자료: 산림청(2014) 임업통계연보, 국토교통부(2013) 도시계획현황

전 국토의 11%에 달하는 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또한 규제 완화 논리 속에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지난 9일 발표한 관광활성화 대책에 따라 요존국유림에 대한 호텔, 리조트와 같은 관광단지 개발도 가능해지는 상황에서 산업단지까지 더해지면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일대의 난개발이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밖에 연초 지자체 그린벨트 허용 논란을 불러왔던 국토부는 또다시 산단지역의 녹지축소책을 들고 나왔다.

완충녹지 10m 설치로 녹지율 상한을 초과하면 완충녹지 폭을 녹지율 상한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국토부는 앞서 그린벨트 해제 시 지자체의 권한 부여로 논란이 됐음에도 지자체장의 요청권한을 부여, 난개발 오남용 여지를 남겼다.

김희준 기자 h9913@

朴대통령, 페이스북에 휴가근황…中 청년 초상화 인증샷도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휴가 근황을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장마가 지나가니 폭염으로 잠을 못 이루는 분이 많은 것 같다"며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여름휴가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그중 이웃 중국 청년이 보내온 따뜻한 글이 마음에 남아 올려본다"며 그 청년이 자신에게 보낸 편지와 초상화 등을 찍은 사진도 함께 올렸다.

사진제공 박근혜 대통령 페이스북

한은 "공공요금 억제 부작용 우려"

원가보상률 2008년 이후 100% 밑돌아…인상 필요성 시사

정부가 최근 공공요금 인상을 지나치게 억제함에 따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한국은행이 지적했다. 공공요금 결정 시에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공익성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현재는 정부가 저물가 장기화에도 인위적으로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누름으로써 경제성을 과도하게 훼손했다는 것.

한국은행은 31일 발간한 '인플레이션 보고서'를 통해 '공공요금의 현황 및 평가'라는 이슈를 이같이 분석해 발표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한 2013년 이후 공공요금 인상률도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은은 물가 오름세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도 공공요금 인상이 제약되는 것은 정부가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 측면에서 물가안정을 강조해 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러한 정책 기조로 인해 공공요금의 인상 압력이 누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기, 수도, 가스, 철도 등 주요 공공서비스의 원가보상률은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2008년 이후 지속해서 100%를 밑돌고 있다. 2013년 기준 주요 공공서비스의 원가보상률은 △전기 95.1% △가스 87.2% △철도 88.7% △상수도 87.4%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한은은 "공공요금 인하는 실질 가계소득 증대 등을 통해 내수를 진작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공공요금 결정 시 원가 등 경제적 원리보다 정치사회적 고려가 지나치게 우선시될 경우 자원배분의 비효율적 배분, 공기업 재무건전성 악화, 투자부진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실상 공공요금 인상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진영 기자 mint@

새천년민주당→열우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네이밍 정치' 9번째 당명개정 논의

"당내 패배주의 탓" 지적도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당명 개정 논의가 시작됐다.

이번에 또 당명을 바꾸면 지난 2000년 1월 새천년민주당 이후 아홉 번째다. 2년에 한 번꼴로 간판을 바꿔 단 새정치연합의 과거사는 열린우리당, 민주통합당, 통합민주당 등 그 이름을 외우기도 힘들 정도다.

한 중진 의원은 31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선거가 다가오면 선거에 이기기 위해 바꾸고, 선거에서 지면 졌다고 바꾸고, 이런 병적인 당명 개정은 야당인 우리가 스스로 패배주의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당명 개정에 불을 붙인 건 손혜원 홍보위원장이다. 그는 한 라디오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브랜드 가치 면에서 부정적"이라며 "사람들이 읽기 불편하다는 건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당내에서는 현 당명이 길고 어려운 데다 여전히 '민주당'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특히 새정치연합의 사실상 '저작권자'인 안철수·김한길 전 공동대표가 당명 개정 가능성을 열어놓은 데 이어 문재인 대표까지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논의가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안 전 대표는 30일 "당 혁신이 성공해서 당이 바뀌었다고 국민이 느낀다면 그런 경우에는 당명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올 초 당명 개정 논란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당명 때문에 집권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것에 비춰보면 긍정적으로 바뀐 셈이다.

역시 당명 개정에 부정적이던 김 전 대표도 이날 "혁신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진정한 혁신과 통합의 결과물이어야 국민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지금 당명이 좀 불편한 것은 사실이고, 당원들도 여러 차례 당명 변경을 거치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의중 기자 zerg@

선거구 개편 앞둔 의원들 "지역구 지켜라"

농촌예외 법안 등 발의 잇따라

작년 10월 인구편차 2대 1을 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재획정 결정이 나자 국회의원들은 선거구를 잃을 수 있다는 압박 속에 각종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선거구 획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한 경우도 있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지난 5월 헌재 결정에 따른 선거구 통폐합 지역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촌 예외' 조항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어촌 지역으로만 구성된 선거구는 기준 하한 인구수에 미달할지라도 선거구로 획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한 불평등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은 지난 4월 선거구 획정에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적 개입의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하고 있다.

황영철 의원은 지나치게 추상적인 선거구 획정 기준을 바꿔 선거구를 평균 인구수의 상하 100분의 33(3분의 1)의 편차 이내에서 획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3월 발의했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

정규직은 50만원, 비정규직은 20만원 감정원, 근무복도 '차별 감정' 하시나

공기업에서 비정규직 직원들이 근무복에서부터 차별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감정원(감정원)이 지난 2013년 11월 총 4억3930만원 어치의 직원용 겨울철 근무복 구매계약을 하면서 근무복 단가를 정규직은 1인당 50만원, 계약직은 1인당 20만원으로 책정했으며, 이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31일 밝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인 계약직 직원의 근무복 단가 차이가 1인당 무려 30만원이나 차이가 난 것이다.

급여 수준을 비롯해 각종 후생복리에서도 차별받는 계약직원들은 추위가 심해 근무 여건이 열악한 겨울철에 정규직보다 무려 30만원이나 싼 옷을 입고 근무했던 것이다.

감정원의 경영공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소속 외 인력을 모두 포함하면 감정원의 전체 직원 숫자는 1000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정규직 직원 수는 정원 743명에 현원 701명이고, 비정규 직원인 기간제 직원이 54명이다. 여기에 파견근로자 등 소속 외 인력이 248명에 달한다.

또한 감정원은 직원들 근무복을 구매계약하면서 이른 시일 내 납품공급이 가능하다는 사유로 A업체와 B업체 등 2개 업체에만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가운데 직원들의 인터넷 투표를 통해 A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희준 기자 h9913@

찜통더위보다 더 뜨거운 창업열기



제40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가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국내 대표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예비창업자들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이번 박람회는 달콤커피, 김밥킹, 올리브 도시락 등 150여개 업체들이 참여해 다양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및 업종들을 비교해 보고, 무료창업 설명회를 통해 개별 업체의 가맹사업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들어볼 수 있다. 30일 오후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창업 상담을 받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공정위, 리보금리 조작 글로벌銀 조사 국내기업 피해입증 땐 소송 번질 수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은행들의 리보금리(런던의 은행 간 거래 금리) 조작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이번 조사가 실제 제재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가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한다면 국내 투자자들의 대규모 소송으로도 확산할 수 있다.

31일 공정위와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유럽과 미국에서 이뤄진 제재 내용을 토대로, 리보금리 담합이 국내 기업에 미친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리보금리는 개인과 기업의 대출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매일 수조달러에 달하는 계약의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참고금리를 말한다.

앞서 2012년 6월 바클레이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UBS 등의 은행이 수년간 담합해 리보를 낮춘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됐다. 리보금리는 매일 아침 16개 대형 글로벌 은행이 각자 개략적인 자금 차입 비용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산출된다.

당시 조사를 담당한 영국 금융감독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클레이스 은행은 파생상품 트레이더 14명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257차례에 걸쳐 금리를 실제보다 낮춰 보고했다.

해당 은행들은 이 같은 금리조작으로 인해 미국 법무부와 영국 금융감독청,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등에 25억달러(약 2조9000억원)가 넘는 벌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도 리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달러표시 채권을 발행한 국내 기업들이 입은 금전적인 손실 여부다. 만약 조사를 통해 피해가 입증된다면 대형투자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투자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다.

공정위는 만약 국내 기업이 입은 피해 규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조사를 통해 글로벌 은행들을 제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영 기자 sypark@

간판·명함에 '부동산' 단어 사용 '공인중개사' 자격 없으면 위법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데도 간판과 명함에 '부동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투자 자문업자 이모(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이라는 표현은 사전적 의미 외에 일상생활에서 '부동산 중개' 또는 '부동산 중개 사무소'의 줄임말로 흔히 사용되고 있고, 특히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면서 'OO부동산' 등의 형식으로 상호의 주된 부분을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발품부동산', '부동산 Cafe'라고 표시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 '발품부동산 대표'라는 명칭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이씨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를 하거나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좌영길 기자 jyg97@

취업 돋보기 기업 10곳 중 3곳 "채용 때 성별 할당 있다"

기업 10곳 중 3곳은 신입 채용시 특정 성별을 할당해 선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은 기업 48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2.9%가 이같이 답했다고 30일 밝혔다.

남성 채용 비율 기준이 있는 기업은 48.4%였고, 여성은 30.8%였으며, 이들 중 26.2%는 평가 결과가 부족해도 특정 성별이기 때문에 합격시킨 경우가 있었다.

해당 성별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는 이유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그 성별에 더 적합한 직무를 채용해서'(71.4%, 75.5%,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남성을 선호하는 직무로는 '제조/생산'(33.1%, 복수응답)을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영업/영업관리'(32.9%), '구매/자재'(12.8%), '기획/전략'(10.1%)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모든 직무'에서 선호한다는 응답은 12.6%였다. 유혜은 기자 euna@

농협 리솜리조트 특혜대출 수사…H건축사무소 압수수색

최원병 회장 겨냥 'MB정권 사정설'

농협중앙회 유통시설 건축·감리 등 진행…검찰, 비자금 조성 의심

농협중앙회 1000억원대 특혜 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연이은 압수수색에 나서며 최원병(69) 농협중앙회 회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당초 대출을 받은 업체인 리솜리조트 신상수(58) 회장의 개인비리 수사로 보였던 이번 사건은 최 회장이 주요 인물로 떠오르면서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사정의 연장선상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에 있는 H 건축사무소 등 3곳에 각각 수사관 30명을 보내 재무·회계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H건축사무소 등은 하나로마트 등 농협중앙회가 관할하는 유통시설의 건축이나 리모델링, 감리 등의 사업을 진행한 업체다. 검찰은 이들 업체들이 대금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H건축사무소가 농협이 발주하는 용역을 수주하게 된 경위와 대금 부풀리기가 연관성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

검찰은 전날에도 서울 논현동 리솜리조트 그룹 본사와 계열사 4곳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 리솜리조트 그룹은 10년 전부터 경영 상황이 악화해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최근까지 1000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최 회장이 실무진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출을 강행했다는 제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리솜리조트 소유 부동산이 있어 대출이 이뤄졌고 이자도 정상적으로 상환되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H건축사무소가 일감을 맡게 된 경위도 내부적으로 확인 중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농협중앙회 최 회장이 수사 타깃으로 급부상한 것을 두고 이번 수사가 최 회장을 연결고리로 이명박 정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최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고등학교(포항 동지상고) 출신으로, 전 정권 주요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2007년 농협중앙회 회장에 선출됐고, 2011년 연임에 성공했다.

검찰은 지난 3월 포스코 수사를 시작한 이후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민영진(57) KT&G 사장 등 전 정권 관련 인사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왔다.

좌영길 기자 jyg97@

우체국 주소이전 서비스 일부 유료화 추진

이사할 때마다 요긴하게 사용하는 우체국의 주소이전 서비스가 일부 유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우정사업본부와 충청지방우정청에 따르면 주소이전서비스의 일부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주소이전 서비스는 우편물을 받는 주소를 변경하면 기존 주소로 보낸 우편물도 새로 변경된 주소로 자동 배달되는 서비스다. 이사를 자주 하거나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아주 유용한 제도다.

기존에는 이사한 지역에 상관없이 3개월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다. 기간을 연장하고 싶어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우편법, 7월 초에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서비스를 연장, 유료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유료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기존 3개월을 무료로 사용하고 나서 비용을 일부 지급하면 추가로 더 활용할 수 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보험사 '채권 재분류'… 엇갈린 행보

한화생명·손보, 3조대 매도 전환…1조이상 장부이익
"RBC비율 확대 효과…금리인상 땐 회계상 손실 커"
반면 미래에셋·흥국생명은 반등 추세에 만기로 바꿔

보험사들이 보유중인 채권의 분류 기준을 전환하고 나섰다. 특히 일부 보험사의 경우 수조원 가량의 보유채권을 전환해 평가이익을 늘려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을 손쉽게 끌어 올리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3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지난해 11월 1조6300억원의 만기보유증권을 모두 매도가능증권으로 전환했다. 보유채권을 전환하면서 한화생명은 1조원이 넘는 장부이익을 얻게 됐다.

또한 한화손보는 올해 1분기 1조7700억원의 만기보유증권을 전량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했다. 이에 매도가능증권은 지난해 말 2조7700억원에서 4조9300억 원으로 2조원 이상 늘었다.

만기보유증권은 장부가액 기준이지만 매도가능증권은 시가 기준이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채권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매도가능증권이 많을수록 채권평가익은 늘어난다.

채권 재분류의 가장 큰 이유는 RBC비율 관리 때문이다. RBC비율은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을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수치로 이 비율이 높을 수록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여력이 높다는 뜻이다. 고객이 회사 사정으로 보험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RBC비율을 150% 이상 유지토록 권고하고 있다.

한화생명의 경우 채권을 재분류해 RBC비율이 272.0%에서 318.1%로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손보의 경우도 작년 12월 말 154.3%에서 올해 3월 192.6%로 높아졌다.

보험사 채권 재분류 현황

보험사명	채권 재분류 전환	금액
한화생명	만기 → 매도	1조6300억원
한화손보	만기 → 매도	1조7700억원
미래에셋생명	매도 → 만기	4조9816억원
흥국생명	매도 → 만기	2조4000억원
동양생명	매도 → 만기	2조38억원

업계에서는 한화생명과 한화손보가 채권 계정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이지만 하반기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회계상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래에셋생명 등은 채권 계정을 다시 만기보유증권으로 전환하고 나섰다. 미래에셋생명은 2012년 3분기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다시 분류한 뒤 올해 또 다시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전환했다. 그 금액은 4조9816억원에 달한다.

흥국생명은 지난 4월 2조4000억원 규모의 매도가능금융자산을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재분류했고 동양생명은 2조38억원 규모의 매도가능금융자산을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전환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시 향후 2회계연도까지 만기보유금융자산 인식이 제한된다. 이후부터 신규편입 자산을 만기보유금융자산을 인식할 수 있고, 1회에 한해 매도가능금융자산을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3사의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 인식 제한이 풀리자 단 한차례 주어진 계정 재분류 기회를 이용한 것이다. 금리가 저점에 접어들었다는 판단과 함께 매 결산일마다 금리로 인해 요동치는 지급여력비율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1.50%까지 떨어졌지만 시장금리는 반등하고 있는 추세"라며"앞으로 금리 반등의 의지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 채권 계정을 재분류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채권 계정은 향후 2년(회계연도 기준)간 재분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오를 경우 RBC 리스크에 취약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재현 기자 nfs0118@



기업은행 상반기 실적 (단위: 억원, %)

구분		규모
순이익		673
NIM		1.91
수신		170조2540
여신	대기업 · 공공기타	7조6650
	가계	28조3620
	중소기업	122조1580
건전성	고정이하여신비율	1.35%
	NPL커버리지 비율	171.90%

권선주 행장 '마더 리더십' '모뉴엘 쇼크'도 이겨냈다

기업은행 상반기 순익 6769억
작년보다 9.3%↑ '깜짝실적'
소송 추가 충당금 379억 불구
고정이하여신·연체율 안정적
"2016년 글로벌 100대은행 목표"

IBK기업은행이 상반기 모뉴엘 쇼크에도 불구하고 어닝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을 거뒀다. 대출성장 노력과 자산건전성을 강조한 권선주 행장의 '마더 리더십'이 성과로 나타났다는 평가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상반기 6769억원 순이익을 거뒀다. 전년동기 대비 9.3%(574억원) 늘어난 규모다. 2분기 기준으로는 5.1% 증가한 3061억원 기록했다. 시장 예상치를 20% 가까이 뛰어넘는 어닝서프라이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순이자마진(NIM) 방어 능력이다.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업은행의 상반기 NIM은 지난해 하반기와 같은 1.91%를 유지했다.

중소기업 대출 위주의 포트폴리오도 호실적에 큰 도움이 됐다.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122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6조1000억원(5.3%) 늘어났다. 은행권 점유율(22.5%) 1위다.

대출이 늘었다고 해서 자산건전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 가장 우려를 모았던 모뉴엘 쇼크를 무난히 넘겼다. 모뉴엘 쇼송 관련 추가 충당금은 379억원으로 인식됐다. 전체 익스포져 중 50% 적립률이다. 이 속에서 고정이하여신비율 및 연체율이 각각 9bp와 15bp 하락한 1.35%와 0.46%를 기록했다. 이에 대손비용율(Credit Cost)은 안정적 수준을 보였다.

기업은행의 이같은 실적개선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최근 건설·조선·해운사들의 신용 리스크 속에서 비켜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호재다. 기업은행 여신 중 해당 업종 비중은 7.8%에 불과하다. 게다가 대부분 정상으로 분류돼 있어 자산건전성도 양호하다. 특히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계좌이동제 역시 개인고객 비중이 낮아 오히려 기회요인이 되고 있다.

권 행장은"내실있는 영업을 기반으로 인프라 금융과 해외진출, 신채널 전략 등 금융 혁신을 지속해 갈 것"이라며 "2016년 글로벌 100대 은행을 향해 속도를 내자"고 당부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주거래고객 잡기' 카드사도 나섰다

계좌이동제 앞두고 신상품 출시
KB국민 가맹점 최대 2%P 적립
신한·하나도 '업계 최고혜택' 준비

오는 10월 계좌이동제 시행을 앞두고 은행들이 고객잡기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은행계열 카드사들이 신상품 출시 등을 통해 지원 사격에 나섰다.

3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계좌이동제 시행을 앞두고 KB국민카드 및 KB국민은행 주거래 고객에게 다양한 특화 혜택을 제공하는 'KB국민 ONE카드'를 출시했다.

이 카드는 KB 주거래 고객에게 △포인트 우대 적립 △포인트 자동 환급 △대출금리 인하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카드의 가장 큰 장점은 KB국민카드 및 KB국민은행 주거래 고객에게 국내 가맹점 최대 2.0% 포인트 적립을 해준다는 점이다. KB국민카드는 주거래 고객들에게 가장 높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상품을 출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특정 가맹점에서 높은 적립을 해주는 상품을 제외하고 전 가맹점에서 2%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상품은 업계에서도 드물다"고 말했다.

KB국민카드가 은행 주거래고객을 잡기위해 상품을 출시하면서 신한카드와 하나카드 역시 신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신한카드의 경우 현재 업계 최고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신한은행측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8월말에서 9월초에는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이처럼 카드사들이 신상품 출시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200조원 이상의 결제성예금 '통장 전쟁'이라고 불리는 계좌이동제가 10월에 시행되기 때문이다.

계좌이동제가 시행되면 은행 고객이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경우 기존 계좌에 연결된 카드 대금이나 각종 공과금 자동 이체 등이 별도 신청 없이도 새 계좌로 일괄 이전된다. 즉 은행 고객을 잡지 못한다면 카드사들의 고객도 경쟁사에 뺏길 수 밖에 없다.

이재현 기자 nfs0118@

"류현진 선수, 어깨부상 힘내세요"



NH농협은행 류현진 원정 응원단이 지난 28일 LA다저스 구장을 방문해 '류현진 선수 쾌유 응원 이벤트'에 응모한 응원 댓글 5000건을 류현진 선수에게 직접 전달했다. 류현진(오른쪽) 선수와 농협은행 김선오 홍보부장이 '류현진 선수 응원메시지 5000건' 전달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NH농협은행

은퇴자금 관리 한번에…농협은행 'All100플랜'

농협은행이 은퇴고객을 위한 전용상품으로'NH All100플랜'패키지 상품 5종을 출시했다. 통장과 예금, 적금, 연금대출 및 중장년 고객을 위한 신용카드 등이다.

NH All100플랜 패키지는 종합적인 은퇴솔루션 제공을 위한 맞춤 상품으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급여통장에서 연금통장까지 연결해 평생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NH All100플랜 통장은 다양한 경로로 입금되는 생활비를 모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은퇴자금 관리 통장이다. NH All100플랜 연금예금 연금지급기간은 1년 ~ 30년 이내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NH All100플랜 적금은 기간은 1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연단위로 초입금 10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매월 5백만원 이내 10억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다.

김우람 기자 hura@

"삼성페이 베타테스트 내달 5일까지 신청하세요"

삼성카드, 회원 추가모집

삼성카드는 삼성페이에 대한 고객들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삼성페이 베타테스트에 참여할 회원을 추가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2차 베타테스터들은 오는 8월 7일부터 20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8월 1일부터 5일까지 모바일 삼성카드 앱 내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삼성카드는 지난 7월 15일부터 국내 카드사 중 가장 먼저 자사 회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삼성페이 서비스를 미리 이용해 볼 수 있는 삼성페이 베타테스트를 운영해 오고 있다.

삼성카드측은 이번 베타테스트 추가 모집은 1차 베타테스트 참여회원 모집 이후 베타테스트에 추가 참여를 희망하는 고객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모집된 베타테스터들은 기존 체험단과 함께 전국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삼성카드로 삼성페이 서비스를 먼저 이용해보고 보다 나은 결제 서비스를 위한 제안사항을 발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재현 기자 nfs0118@

제2인생의 동반자〈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COVER STORY
자본론에 대하여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라는 유명한 희곡을 쓴 테네시 윌리엄스는 "돈 없이 젊은 시절을 보낼 수는 있지만 돈 없이 노후를 보낼 수는 없다"고 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을 때 가져가지는 못한다. 어떻게든 써야 한다. 어떻게 해야 돈을 잘 쓰는 것일까? 지금까지 사람들은 열심히 번 돈을 고스란히 자식에게 물려주곤 했다. 하지만 그것만이 '돈 잘 쓰는 방법'의 전부는 아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머리가 필요하고 돈을 잘 쓰기 위해서는 가슴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이가 든 뒤에야말로 바로 그 가슴이 필요하다.

- 돈을 남길 것인가, 쓸 것인가
-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 줄 것인가?'
- 우리도 老老상속시대에 대비해야
- '돈을 다 쓰고 죽는다?'
- 돈을 남기거나 다 쓰는 11가지 방법
- 돈을 남기지 않은 사람들
- 돈을 남기지 않는 남자, 상훈유통 이현옥 회장

Special Report
임진모 음악평론가
트로트, 스탠더드 팝에서 포크와 록으로…
광복 70년의 역사에서 대중음악은 어떤 분야보다도 일반 대중의 정서와 우리 사회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포착하고 반영하면서 문화의 선두에 서왔다. 한국 사회의 발전상을 축약하면서 우리의 여러 세대와 계층이 알고 기억하는 가장 많은 스타들을 내놓은 곳이 대중가요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브만사
열정과 사랑

- 핑크벤츠를 모는 여자 메리케이코리아 최정숙
- 할 말 다 할 수 있는 이유 노환규 전 의협회장

보람과 여유

- 부부는 이심전심 아닌 동상이몽 현명한 부부 되는 법 MC 이수경
- '두 역할' 여자의 특별한 이야기 배우 이용녀

나의 어머니
"내 어머니는 인자하고 평범했던 한국 어머니"
인터뷰를 하게 되면 온화함 속에 담긴 묵직한 에너지를 발견하게 만드는 인물이 있다. 영화계의 큰 어른이며 지금은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동호 위원장이 바로 그런 인물이다. 김 위원장은 정정한 현역으로 지금도 한국 문화계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 시대의 멘토로 불리는 그의 내밀한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자.

여름의 맛
냉면, 어찌 네 가지 맛만 나랴
맥주나 커피처럼 쓴 물이 향기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맵만 하던 양파 같은 채소가 달콤해지기도 한다. 혀로만 맛을 느끼다가 머리와 가슴으로 즐기게 되는 것이다. 그처럼 너그러워지고서야 비로소 맛있는 음식으로, 냉면을 꼽는다

웰에이징
당신에게 맞는 건강한 다이어트 원칙
무조건 굶고 땀 흘리는 다이어트가 아닌, 거르지 않는 식사와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중년의 건강관리 원칙을 알아보자.

착한 환자 좋은 의사되기
아내의 헌신과 의료진의 노력이 빚어낸 라뽀 이야기
의사와 환자, 생명을 걸고 맡기는 관계, 둘 사이에 맺어지는 깊은 신뢰감을 라뽀(rapport)라고 말한다. 당신의 의사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 아내 신정아 씨의 간을 이식받아 새 삶을 얻은 이경훈씨와 그를 살린 분당서울대병원 한호성, 최영록교수가 그들만의 따뜻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1년 정기구독 신청 특전
Dream 하나 5개월 구독권 추가 증정.
Dream 둘 놓치고 싶지 않은 콘텐츠, 과월호(창간호~7월호) 무료 증정 (과월호 소진시까지).
Dream 셋 우리 서로 축하해요 문자 이벤트 자동 응모.

우리 서로 축하해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 대한 축하 메시지와 여러분이 축하받고 싶은 자신만의 소소한 자랑거리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축하 답신과 함께 추첨을 통해 경품을 드립니다.
응모번호 1666-2641 추첨일 9월 10일, 당첨자 개별 통보


한국의료재단 VIP건강검진권 2명



기능성 컴포트 멀티샵 브랜드 릴라릴라슈즈 20명


브라보 마이 라이프 5개월 구독권 200명


스타벅스 카페아메리카노 기프트콘 50명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KB금융그룹

저위험
저수익

고위험
고수익

중위험
중수익

요즘 같은 초저금리 시대
투자의 중심은 바로 여기!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는
KB Middle® 펀드 컬렉션

KB Middle® 펀드 컬렉션
초저금리시대를 맞이하여 [정기예금+α]의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고객을 위해 KB국민은행에서 엄선한 **중위험·중수익 펀드***컬렉션 입니다

* **중위험·중수익 펀드 :** 채권, 주식 등에 분산 투자하여 채권과 주식 중간 수준의 위험으로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추구하는 유형의 상품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펀드 가입을 결정하기 전에 투자대상, 투자위험,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해외의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는 환율변동 및 투자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가까운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상담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448호(2015.07.02)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5-04586호 (2015.07.02~2016.07.01)

KB 국민은행

이통3사, 단통법·데이터요금제에 웃었다

2분기 실적 발표

KT 영업익 3688억… 흑자로

LGU⁺는 1924억, 96% '껑충'

SKT, 마케팅 비용 10% 줄어

이통3사 2분기 실적 ※ 출처: 금감원 전자공시

	SK telecom		olleh kt		LG U+	
	2014년 2분기 →	2015년 2분기	2014년 2분기 →	2015년 2분기	2014년 2분기 →	2015년 2분기
매출	4조3054억원	**4조2557억원**	5조6336억원	**5조4313억원**	2조7739억원	**2조6614억원**
영업이익	5461억원	**4129억원**	9565억원(손실)	**3688억원**	980억원	**1924억원**
ARPU	3만6013원	**3만6601원**	3만3619원	**3만4879원**	3만5636원	**3만6173원**
마케팅비	8250억원	**7400억원**	8233억원	**6742억원**	5497억원	**4757억원**

이동통신3사가 개선된 실적을 내놓았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데이터 중심 요금제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분석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일제히 개선된 실적을 내놓았다. 공시지원금 상한으로 번호이동 시장이 얼어붙으며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비가 급감했다.

해지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모두 단통법 효과다. 음성을 무제한 제공하는 대신 요금을 조금씩 올린 데이터 요금제 덕에 LTE 가입자 수와 데이터 사용량은 늘었다. 이는 통신사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을 끌어 올렸다.

지난 1분기 대규모 명예퇴직 파장으로 최악의 실적을 내놓던 KT는 2분기 들어 극적인 반전에 성공했다. 매출은 5조431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하락했다. 반면 같은기간 영업이익은 3688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마케팅비는 6742억원으로 전년 8233억원보다 18.1% 급감했다.

LG유플러스는 역대급 실적을 내놓았다. 가입비 폐지 등의 영향으로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1% 줄어든 2조6614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1924억원으로 무려 96.3%나 뛰었다. 물론 이 수치에는 LG유플러스가 지난해 4분기 회계부터 공시지원금을 단말기 매출할인으로 돌린 영향도 포함됐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20%는 족히 넘는 성장을 이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마케팅 비용은 4757억원으로 전년 동기 보다 13.5% 더 아꼈다.

SK텔레콤도 호실적에 웃었다.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4조2557억원과 41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보다 각각 1.2%, 24.4% 줄었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나쁘지 않은 실적이다. 상반기 특별퇴직자 300명에 대한 비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퇴직금을 빼면 영업이익은 약 5200억원까지 오른다. 마케팅비 하락도 한몫했는데, 지난해 보다 10.3% 줄어든 7400억원에 그쳤다.

데이터 요금제가 ARPU도 끌어올렸다. 통신요금이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통신사에게 ARPU는 성장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다. SK텔레콤의 ARPU는 3만6601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LG유플러스는 3만6173원으로 1.5% 늘었고, KT는 3만4879원으로 3.7%로 크게 올랐다.

단통법 이후 기기만 교체하는 사람이 늘면서 가입자 해지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SK텔레콤은 2003년 이래 가장 낮은 1.3%, LG유플러스는 집계를 시작한 2010년 2분기 이후 최저인 1.73%였다.

박성제 기자 psj@

자산 13조 'SK주식회사' 내달 출범

SK C&C, SK㈜ 흡수합병 탄생

그룹 새 지주사…'1사 2체제' 운영

SK그룹이 새로운 지주회사 체제로 8월 1일 새출발한다.

새 SK주식회사는 8월 3일 첫 이사회를 열어 합병완료 보고 등의 안건을 의결한 뒤 대외 공식행사 없이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SK주식회사는 SK C&C가 SK㈜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탄생했다. 자산규모만 13조2000억원에 달하는 대형 지주회사다. 지난 4월 첫 합병 발표후 3개월만에 마무리하게 됐다.

새 SK주식회사가 만들어지면서, SK그룹은 그동안 지적돼 온 '옥상옥'의 지배구조에서 벗어나 일원화된 사업형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게 됐다.

SK주식회사는 기존 SK㈜와 SK C&C의 사업 영역이 다른 점을 감안해 '1사 2체제'로 운영된다. 기존 회사의 대표였던 조대식 사장과 박정호 사장이 각자 대표를 맡고, 체제명은 'SK주식회사 홀딩스'와 'SK주식회사 C&C'로 정했다. SK주식회사 홀딩스는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을, SK주식회사 C&C는 경기도 분당 사옥을 쓰게 된다.

앞서 양사는 지난달 26일 각각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킨 바 있다. 합병은 SKC&C가 SK㈜를 1대 0.737 비율로 흡수하는 방식이지만, 사명은 SK의 상징성과 그룹 정체성 유지 차원에서 SK주식회사'를 쓰기로 했다.

SK그룹 관계자는 "새 SK주식회사는 기업가치와 신성장 동력 부분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사업형 지주회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지만 기자 redpill@

디스플레이·건설 일자리 늘고

철강·금융보험은 감소할 듯

올 하반기 디스플레이·건설 업종은 일자리가 증가하는 반면, 철강·금융보험 업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기계·조선·전자·섬유·반도체·자동차 등 6개 업종은 지난해 하반기 수준의 일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점쳐졌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한국고용정보원은 국내 8개 수출 주력 제조업종과 건설·금융보험업에 대한 '2015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을 30일 발표했다.

우선 올 하반기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 업종은 디스플레이와 건설 분야다. 디스플레이 업종은 올 하반기 LCD 대기업 중심의 OLED 라인 대규모 설비투자에 힘입어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5.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 업종 역시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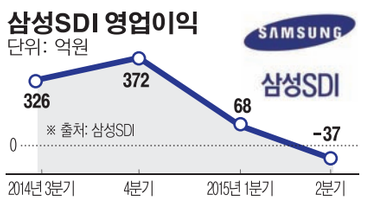
반면,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업종은 철강과 금융보험 분야가 꼽힌다. 철강 업종은 글로벌 공급과잉의 지속, 중국의 급격한 수요 감소, 엔저에 따른 일본과의 경쟁심화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보험업도 구조조정, 비용절감 노력으로 일자리가 3.6% 줄어들 것으로 집계됐다.

김정유 기자 thec98@

기내서 엽서 쓰세요



진에어는 내달 1일부터 기내에서 탑승객이 작성한 엽서를 100일 후 받아 볼 수 있는 '100일 후 愛(애)' 기내 엽서 발송 서비스를 운영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괌·방콕·오키나와·삿포로·홍콩·비엔티안·세부 등 국제선 노선의 출발편과 귀국편 탑승 고객이면 이용 가능하다. 진에어 승무원이 승객에게 관련 서비스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진에어



삼성SDI, 2분기 영업익 적자

소형전지 사업 부진 여파

삼성SDI가 소형전지 사업의 부진과 소송 여파로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삼성SDI는 올 2분기 매출 1조8439억원, 영업적자 37억원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매출액은 전분기 1조8659억원 대비 1.18% 감소했고, 영업이익 전분기 68억원 대비 적자전환 했다.

이날 열린 컨퍼런스콜에서 삼성SDI는 "2분기 확정된 민사소송 금액이 예상보다 높아 다른 소송들에 대한 금액도 보수적으로 산정해 충당금을 재설정했다"면서 "브라운관 담합관련 비용은 충당금 포함해 5000억원 중반대"라고 밝혔다.

사업부문별로 보면 소형전지 부문의 부진이 컸다. 회사 전체 매출의 42%에 달하는 전지사업은 올 2분기 매출 78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9% 감소한 실적을 거뒀다. 소형전지는 비IT 판매 확대가 지속됐지만, 주요 고객 스마트폰의 판매 부진과 경쟁 심화에 따른 판가 하락 등으로 전분기 대비 수익성이 악화됐다.

권태성 기자 tskwon@

현대중공업 임원인사… 40대 대거 발탁

신규 상무보 37명 중 17명… "젊은 피로 위기극복"

현대중공업그룹이 젊고 역동적인 조직으로의 변화를 위해 상반기 임원 인사를 30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조선 3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5명이 퇴임하고 37명이 새롭게 상무보로 선임됐다. 상무보 신규선임자 중 40대가 46%인 17명으로 전체적으로 임원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위기극복을 위한 조선 3사의 변화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전 임직원이 더욱 노력하여 하반기에는 반드시 흑자를 실현하자는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의 핵심 주력사업인 조선사업의 재도약을 위해 조선사업본부의 승진 및 신규선임을 강화했다. 또 자신감을 갖고 우리나라의 조선업 정상 지위를 지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이번 인사에 적극 반영했다. 더불어 조선, 해양플랜트, 엔진기계, 전기전자, 건설장비, 그린에너지 등 사업분야별로 사업대표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조직 정비 작업에도 착수했다.

이번 조직 정비는 각 사업대표가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사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인사, 구매 등 기존 경영지원 기능을 각 사업부로 대폭 이양해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현대중공업은 이와함께 전 임원이 솔선수범해 주식 갖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사업본부 대표회의에서 위기극복과 책임경영의 의지를 대내외에 적극 표명하기 위해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다"며 "회사를 반드시 재도약시켜 주주가치를 높이고, 책임경영을 실천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지난해 11월에 이어 최길선 회장과 권오갑 사장은 각각 2억원씩 현대중공업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했다.

김범근 기자 nova@

팬오션, 26개월 만에 법정관리 졸업

하림서 인수… 재무구조 탄탄

팬오션이 30일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의 결정에 따라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법정관리 신청 이후 2년2개월 만이다.

국내 해운 빅3의 대형 해운업체인 팬오션은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경제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로 해운업계 물동량이 감소하며 어려움을 겪은 끝에 2013년 6월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2013년 11월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를 결정했고, 팬오션은 이후 출자전환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매각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 2월 하림그룹-JKL 컨소시엄과 1조79억5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 약 9248억원 규모의 변제 재원을 마련했다.

이에 팬오션은 지난 6월 관계인집회에서 변경회생계획안을 가결해 인가받았고, 이후 대부분의 회생채권을 변제하고 회생절차 종결 신청을 했다.

팬오션은 그동안 고원가 용선계약 해지, 무수익 자산 매각, 구조조정 등을 통해 회생절차 돌입 당시 연결기준 1900%가 넘었던 부채비율을 2014년말 연결기준 200%대로 낮췄으며 하림그룹의 인수를 통해 회생채무를 조기 변제함으로써 재무구조가 더욱 탄탄해진 셈이다.

법정관리를 조기 졸업한 팬오션의 상반기 실적도 맑았다. 팬오션은 30일 올해 상반기 개별 기준 매출 7921억원, 영업이익 1116억원을 잠정 기록했다고 밝혔다. 2분기 잠정 실적은 매출 4044억원, 영업이익 527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이후 꾸준히 호실적을 이어오고 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NHN엔터, 간편결제 시장 가세

내일 '페이코' 출시…온·오프 이용

삼성페이·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페이나우 등 간편결제 시장에서 수십개 업체가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NHN엔터테인먼트도 이 시장에 진출했다.

NHN엔터는 8월1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페이코'를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회사 측은 온오프라인 사용처를 확대해 연내 500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페이코는 아이디와 6자리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온라인 쇼핑몰·대형마트·카페·빵집·편의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휴대폰 결제, 바로이체, 무통장 입금, 쿠폰, 포인트 결제 등 다양한 간편결제 수단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티머니를 선물하고, 카드와 모바일 사이 잔액을 이동하는 등의 실용적인 기능을 담았다.

김동욱 NHN엔터 페이코 사업본부장은 "기술을 통해 지갑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당분간 1등 서비스는 지갑"이라며 "후발주자로 시장에 뛰어드는 페이코는 선행 사업자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다"며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온라인 사용처 확대를 위해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을 10만개 규모로 늘렸다. 오프라인에서는 티머니를 발행하는 '한국스마트카드'와 제휴를 맺고 오프라인 가맹점을 10개를 확보해 온·오프라인 총 20만 곳에서 페이코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오프라인에서는 오는 9월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페이코의 오프라인 결제는 NFC 터치 방식으로 이뤄진다. 스마트폰에 페이코 앱을 설치한 뒤 주로 사용할 결제 수단을 사전에 등록하면 된다. 사용할 때는 단말기에 스마트폰을 대기만 하면 결제가 완료되는 방식이다.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방전돼도 약 3~4시간 가량은 터치로 결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NHN엔터는 페이코를 통해 올해 말 500만 회원과 동글 보급대수 1만대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성준 기자 tiatio@



제2롯데월드가 최근 진행한 '1600 판다+'전시회 모습. 이를 통해 300만명의 방문객을 끌어모으면서 화제를 낳았다. 사진제공 롯데물산

제2롯데, 방송 촬영·데이트 코스로 떴다

'시네파크' 드라마 촬영 잇따라

무한도전 방송 이후 방문객 ↑

제2롯데월드가 최근 방송국의 촬영지로 자주 소개되면서 2030세대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각광받고 있다.

31일 롯데물산에 따르면 제2롯데월드몰은 지난 25일 무한도전 가요제 긴급총회 편에 방송되면서 방문객이 10% 정도 늘었다.

대표적으로 제2롯데월드몰 내 시네파크는 무한도전 가요제에서 긴급총회의 배경이 된 장소이다. 고급스러우면서도 깔끔한 인테리어와 천장에 감각적인 조명을 설치, 환한 공간을 연출하기 때문에 제2롯데월드몰 내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명이 좋아 시네파크를 찾은 방문객들이 셀카 등을 찍기에도 더 없이 좋은 장소로 추천받고 있다. 실제 드라마 '가면'·'상류사회'와 예능프로그램 '우리결혼했어요'가 촬영된 바 있다.

특히 '프로듀사'에선 김수현과 공효진이 데이트를 하는 장면에 등장하고, 우결에서 출연자들이 데이트와 게임을 즐기는 모습이 방송돼 커플들의 발길이 부쩍 늘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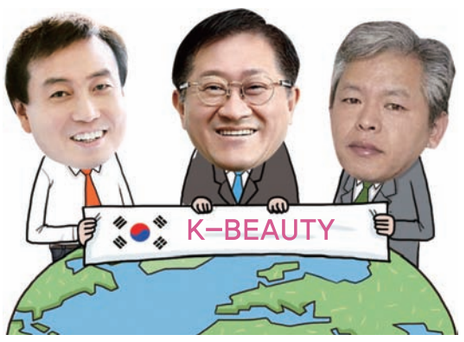
국내 최고 높이의 건물임을 자랑하는 제2롯데월드는 아쿠아리움, 에비뉴엘과 쇼핑몰, 식당가 등이 자리한 복합쇼핑단지로 주 고객층인 2030 세대 젊은 커플들의 데이트코스로 더할 나위 없다.

한편, 지난 3일부터 열린 '1600 판다+'의 세계여행 프로젝트는 전 세계를 돌며 야생동물 보호 메시지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로 메인 전시에는 300만명이 넘는 방문객을 끌어 모은 바 있다. 해녀 판다, 태권도 판다 등 다양한 모습의 리미티드 에디션 판다를 만나볼 수 있으며 오는 8월 2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K뷰티시대' 글로벌 브랜드에 밀리는 색조화장품

色 고민하는 화장품 CEO



LG생활건강, 색조전문업체 제니스 인수
아모레, 색조 브랜드 분리 독립법인 출범
에이블씨엔씨도 신제품 출시경쟁 열올려
프리미엄 제품 개발…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내 화장품기업 CEO(최고경영자)들이 '색(色)' 고민에 빠졌다.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기초화장품과 달리 색조화장품은 글로벌 브랜드에 아직 밀리는 상황이다. 그러나 성장률이 높고, 분야가 다양해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특히 한국 쿠션이 세계 시장에서 혁신적인 제품으로 평가받으면서 '한국식 화장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K뷰티(화장품 한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화장품 CEO들이 색조화장품 사업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최근 국내 색조화장품 전문 OEM·ODM 업체인 제니스의 지분 70%를 1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차 부회장의 목표는 색조화장품 사업의 매출 비중을 35%대로 끌어올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쌓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제니스 인수는 빠르게 성장하는 색조화장품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제품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색조화장품의 처방 내재화 및 자체생산, 기술연구원 및 생산 부문과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한국 및 중국 색조 시장에서의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경쟁 우위를 선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 부회장은 자체 색조화장품 브랜드인 'VDL'을 키우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지난 5월 VDL 모델로 배우 신민아를 기용해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롯데백화점 본점과 제주시에 매장을 여는 등 매장 확대에도 집중하고 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도 올 1월 1일자로 메이크업 전문 색조브랜드인 에스쁘아를 자회사 에뛰드에서 분리해 독립법인으로 출범시키는 사업 재편을 통해 본격적으로 색조 경쟁력 쌓기에 나섰다. 회사 관계자는 "에스쁘아의 책임경영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메이크업 시장의 소비자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1위 브랜드 도약이 목표다"고 말했다.

브랜드숍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도 색조에 집중하고 있다. 서영필 회장은 항상 색조화장품 신제품에 대해 고민한다. 이 같은 고민이 묻어난 신제품이 올 하반기에도 출시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기초와 달리 색조는 매년, 매 계절 유행하는 색상과 제품의 스펙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품을 계속 새롭게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표 화장품 CEO들이 색조에 매진하는 이유는 성장성에 기인한다. 국내 화장품 시장은 지난해 소매가격 기준 약 7조원 규모다. 생활용품을 포함하면 시장규모가 12조원에 달한다. 이 시장에서 전년과 비교해 색조화장품의 성장률(9.9%)이 기초화장품(5.5%)을 웃돈다. 업계 관계자는 "화장품 업체들이 색조화장품이나 부가가치가 높은 프리미엄 제품 개발에 몰두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쌓으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lsa@

가보니 롯데백화점 '해외명품대전'

"명품 가방 100만원 정도라며…이번 기회에" 알뜰쇼핑에 신난 중국인 관광객 북적북적



롯데백화점이 지난 29일부터 소공동 본점을 시작으로 진행한 역대 최대규모의 해외명품대전은 지난해보다 50여개 늘어난 250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전년의 1.5배에 달하는 1500억원의 물량을 30~80% 할인 판매하고 있다. 29일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해외명품대전 행사장을 찾은 고객들이 상품을 고르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1500억 사상 최대 명품 땡처리
30만~50만원대 중저가도 판매
화장품 등 다양한 상품 내놔

"어머, 어머. G 가방이네, 진짜 저 가방 갖고 싶었는데. 100만원 정도면 괜찮은 가격인데 사?"

지난 29일부터 명동 롯데백화점 본점 9층에서 열리고 있는 '해외명품대전' 행사장을 찾은 30대 고객의 말이다. 개장 첫날이 주중이었는데도 메르스 파동이 무색할 만큼 손님들의 발길로 북새통을 이뤘다. 올해 롯데백화점 해외명품대전은 총 1500억원 물량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행사장 입구는 명품 브랜드 가방·구두 등이 비치돼 여성 고객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멀버리·지미추·돌체&가바나·지방시·끌로에·비비안웨스트우드·막스마라 등 할인 매대 곳곳에 적은 수량이지만 알만한 해외 고가 브랜드 제품이 진열됐다. G브랜드 판매직원은 손님이 다가서자 흰색 장갑을 끼고 가방을 들어보이며 "고객님, 이태리 장인이 한땀 한땀 손수 바느질한 제품"이라며 "여기 적힌 가격이 할인가예요"라고 소개했다. 가격표를 보니 30% 할인된 가격이 130만원이었다.

다른 코너에서는 명품전이지만 30만~50만원대의 중저가 제품도 판매했다. 화장품, 향수, 가방류, 여름 의류 등 다양한 상품이 마련됐으며, 역시 고객들이 더 몰리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역시즌 할인상품 매대에서는 고가의 모피 상품을 선보였다. 모피 베스트의 가격표에는 명품전의 위용을 자랑하듯 할인가격이 360만원을 나타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은 롯데백화점 본점 10층 면세매장이 아닌 9층 행사장에서의 알뜰 쇼핑 기회에 신이난 모습을 보였다. 유커들은 수백만원대의 고가 브랜드가 적힌 쇼핑백을 2~3개가량 들고 행사장을 빠져 나가기 일쑤였다.

반면 일부 고객들은 할인전에 준비된 제품 구성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불평했다. 30대 여성고객 김모씨는 "할인가가 하나 같이 150만원을 족히 넘는다"며 "저 같은 직장인은 해외직구를 하는 게 낫겠다"고 불만족스러움을 나타냈다.

행사장에서 만난 주부 박모씨(45)는 "절반은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브랜드거나 잘 모르겠다"며 "내가 명품 브랜드를 잘 모르는 건지…"라며 실망스러워했다.

행사장은 첫날부터 구석구석에서 사람들이 북적이며 메르스 종식을 실감케 했다. 사람들은 할인가가 수백만원대에 이르러 선뜻 지갑을 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소비심리를 불러일으키는 데는 성공적이었다. 롯데백화점의 해외명품대전은 본점(7월 29일~8월 2일), 부산본점(8월6~9일), 잠실·에비뉴엘월드타워점(8월13~16일), 대구점(8월12~16일)에서 차례로 진행된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볼거리·먹을거리 풍성…일산 이마트타운 인기몰이

개장 40일…67만 고객·380억 매출

'이마트타운'이 국내 소비자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달 18일 일산에 대형마트와 창고형마트를 동시에 입점시킨 이마트마트를 오픈해 역량을 집중시키는 모습이다.

이마트타운은 연면적 3만평, 매장면적 9000평이라는 거대한 규모에 전문매장 더라이프, 일렉트로마트, 피코크키친, 몰리스, 벤자민무어니키즈 올림픽 같은 다양한 서비스 매장과 F&B까지 더해 일산을 대표하는 쇼핑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다. 이마트에 따르면 이마트타운은 오픈 후부터 이달 26일까지 누적 매출 380억원을 달성했고, 총 67만명의 고객이 다녀간 것으로 전해졌다.

일산은 주로 30~40대의 고학력 중산층이 많이 거주한 지역이어서 대형마트나 쇼핑몰, 외식시설이 많은 편이다. 이마트타운도 반경 10km 이내 대형마트가 13개나 되는 곳에 위치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오픈 이후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 김포, 부천 등 타 지역에서 이마트타운을 방문하는 고객이 증가하면서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마트에 따르면 주말엔 10km 이상 거리에서 방문하는 고객이 52%이었고, 특히 서울에서 방문하는 고객은 29%나 됐다.



이 같은 이마트타운의 인기는 다양한 서비스가 고객의 발길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마트타운엔 소비자들의 입맛을 채워줄 스타벅스, 한식뷔페 올반, 홍대맛집 초마 등이 입점돼 있고,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는 아이스크림 전문점 오슬로를 운영 중이다.

같은 층에 자리한 키즈 올림픽 존도 눈에 띈다. 키즈 올림픽존은 385평의 대형 규모로 자리잡았는데, 다목적 경기장부터 암벽등반, 복싱, 카트레이싱까지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더불어 친환경 페인트샵 벤자민무어도 입소문을 타고 있는 상황이다. 벤자민무어페인트는 1883년 뉴욕에서 시작된 전통의 페인트 브랜드로 냄새와 독성이 없어 벽, 가구 등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김정유 기자 thec98@

식이섬유 높이고 열량 낮추고… 삼양사 '큐원 올리고당' 출시



삼양사는 '큐원 올리고당'을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삼양사가 이번에 출시한 제품은 '큐원 식이섬유 풍부 올리고당〈사진〉'과 '큐원 식이섬유 풍부 요리올리고당' 두 종류다. 타사 곡물로 만든 올리고당 대비 식이섬유는 약 5배 이상 높이고, 열량은 약 75% 수준으로 낮췄다.

프락토올리고당 100%인 큐원 식이섬유 풍부 올리고당은 각종 차에 넣어 요리의 풍미를 높일 수 있다. 열량은 100g당 235kcal로 설탕 대비 40% 낮고, 식이섬유는 가정용 올리고당 중 최고 수준인 35%를 함유했다. 또한 큐원 식이섬유 풍부 요리올리고당은 프락토올리고당 75%와 요리당 25%로 볶음, 조리 요리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식품안전 품질관리를 증명하는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를 획득해 신뢰도도 높였다.

삼양사 관계자는 "최근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올리고당 제품 내 식이섬유 함량이 고객들의 주요 구매 포인트가 됐다"며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큐원 올리고당'의 판매량이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제품 모두 1.2kg으로 소비자가격은 4000원이다.

김정유 기자 thec98@



'리딩건설사' 삼성물산 재확인

2015 시공능력평가 순위

해외수주 실적견인 16.7조 2년연속 톱
현대건설 2위 유지…대우건설 3위에
현대산업개발 10위권 진입, 한화 밀려
주택시장 회복 부영 등 중견사 약진
"평가액 단순합산, 왜곡 우려" 지적도

건설사들의 한 해 성적표라 할 수 있는 시공능력평가순위가 발표되며 건설사들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30일 국토교통부가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한 '2015 시공능력평가'를 발표한 결과 토목건축공사업에서 삼성물산이 16조7267억원으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삼성물산이 올해 1위를 차지한 주요 요인은 지난해 해외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올해 토목분야 실적이 4조8486억원으로 전년대비 81.7% 늘어 대폭 증가했고 매출 및 수익성 개선으로 재무상태가 호전돼 경영평가액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위는 1위 탈환을 노렸던 업계 맏형 현대건설(12조7722억원)이 지난해와 같은 자리를 지켰고 3위는 대우건설(9조6706억원)로 지난해에 비해 두 계단 상승했다.

최근 그룹이 비리수사를 받으며 혼란을 겪고 있는 포스코건설(9조426억원)이 지난해 3위에서 한 계단 밀려나며 4위를, 5위는 지에스건설(7조9022억원)이 차지했다.

또한 6위는 지난해 4위였던 대림산업이 2계단 하락했고 7위와 8위는 지난해와 같이 롯데건설과 에스케이건설이 자리했다. 9위는 지난해 현대엠코와 합병하며 상승가도를 달리고 있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차지했으며 10위는 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13위에서 2년 만에 다시 10위권에 진입했다. 반면 9위로 2년째 10위권에 머물던 한화건설은 다시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며 체면을 구겼다.

올해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 총액은 225조2000억원으로 전년(212조7000억원)보다 소폭 증가했는데 지난해에 주택시장이 일부 회복 조짐을 보이며 공사실적 증가 및 재무구조 개선효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주택시장의 회복으로 중견 주택건설업체의 순위 상승이 지난해보다 두드러졌다. 지난해 16위에 자리했던 부영주택이 올해 12위까지 올라오며 강세를 보였고 중흥건설이 지난해 52위에서 올해 39위로 순위가 급등했고 한림건설도 지난해 58위에서 46위로 뛰어올랐다.

그밖에 서한이 74위에서 60위로, 서령개발과 우남건설은 각각 109위에서 80위, 157위에서 82위로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이며 100위권에 진입했다.

한편 건설업계는 시공능력평가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를 꾸준히 하고 있다.

경영·재무상태, 기술자 수 등 본질적으로 의미가 다른 평가요소를 금액화한 뒤 단순 합산함으로써 시공능력을 왜곡할 우려가 큰 데다 평가액 자체도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내년부터 새롭게 개선되는 시공능력평가제도에서는 경영평가액 가중치 비율이 종전 75%에서 80%로 높아진다. 신인도 역시 25%였지만 30%로 늘어난다. 반면 시공실적은 현재 75% 비중이지만 70%로 낮아진다.

한편 이번 시공능력평가 업체는 총 5만4413개사로 전체 건설업체 6만1061개사의 89%다.

구성헌 기자 carlove@

2014·2015 시공능력평가 결과
(토목건축공사업)
단위: 백만원

순위	2015년 회사명	2015년 금액	2014년 회사명	2014년 금액
1	삼성물산(주)	16,726,717	삼성물산(주)	13,120,838
2	현대건설(주)	12,772,222	현대건설(주)	12,566,600
3	(주)대우건설	9,670,601	(주)포스코건설	9,002,243
4	(주)포스코건설	9,042,646	대림산업(주)	8,331,586
5	지에스건설(주)	7,902,206	(주)대우건설	7,490,077
6	대림산업(주)	6,945,590	지에스건설(주)	6,443,170
7	롯데건설(주)	5,799,786	롯데건설(주)	4,940,288
8	에스케이건설(주)	5,612,177	에스케이건설(주)	4,615,010
9	현대엔지니어링(주)	4,831,048	(주)한화건설	3,966,928
10	현대산업개발(주)	3,920,363	현대엔지니어링(주)	3,213,851



공공토지 위에 민간투자 임대주택

'서울리츠' 2018년까지 2만가구 푼다

서울시, 주거비 부담 큰 2030세대 대상
주변 임대료 80% 수준으로 7년간 거주
1호 사업지로 은평뉴타운 기자촌 부지



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2030세대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리츠를 설립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서울시

서울시가 공공토지와 시유지 등에 리츠 방식을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민관협력 임대주택 사업모델인 '서울리츠'를 개발했다.

주요 대상자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들이며 주변 임대료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하로 정해 평균 7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2018년까지 2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1호 시범사업지로는 은평뉴타운 기자촌 부지가 선정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2030세대의 주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리츠 4대 기본방향은 △시민·공공 함께 참여 △기존 공공정책 병행 △건설관행 혁신 △저렴하고 안정적 주택 공급이다.

서울리츠는 또 토지유형과 공공-민간의 결합방식에 따라 △공공토지형(공공토지 활용) △역세권형(역세권 지역 규제완화 지원 활용) △정비사업형(정비사업 정체된 지역 정상화에 리츠 활용) △소규모 민간토지형(공동체·사회주택) 등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그중 공공토지형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리츠(REITs)는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관련 대출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 보통 자산은행회사 등이 설립과 운영 주체가 되는 것과 달리 서울리츠는 공공(SH공사)이 맡는다. SH공사가 자본금을 출자해 일종의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를 설립하고 민간자금의 투자를 받아 임대주택을 건설, 주변 임대료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하로 평균 7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방식이다.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수익성 확보를 위해 저리의 차입금과 임차보증금을 활용해 출자금을 최소화하고 시·구유지, SH공사 토지 등 저렴한 공공토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시와 적극적인 도시계획적 지원을 통해 사업비 부담을 줄여 공공재원의 한계를 극복할 예정이다. 공공토지형이 주력 모델이 될 것이며 추후 다양한 모델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오는 2018년까지 2만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한다. 우선 은평뉴타운 기자촌 부지를 서울리츠 1호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1호 사업은 은평뉴타운 내 위치한 SH공사 소유 부지를 장기임차해 토지비 부담을 낮춰 임대료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토지형'이다.

1호 사업에 이어 △영등포구 시유지(4684㎡부지, 약 450가구 규모) △양천구 SH공사 장기 미매각 부지(1만233㎡, 약 392가구) △강남구 민간기업 부지(4972㎡, 374가구)에 2~4호 사업을 동시에 준비 중이다.

박 시장은 "1000만 시민 중 50%에 육박하는 2030세대들이 주거 문제로 서울을 떠나면서 성장동력을 잃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온다"며 "이는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소통해 나가면서 청년층 주거 안정에 힘써 2018년에는 서울리츠가 안정화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진 기자 tjpippo@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내달말 첫선

중소형 2653가구…임대료 상승률 연 3%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1호가 모습을 드러낸다.

대림산업은 도화도시개발지구에 'e편한세상 도화' 2653가구를 오는 8월 말에 분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2105가구는 기업형 임대주택(5블록, 6-1블록)이며 548가구(6-2블록)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60-1 일대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도화'는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기획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의 첫 사업지다. 총 2653가구의 대단지로 지하 2층~지상 29층 25개동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59㎡ 1097가구 △72㎡ 608가구 △84㎡ 948가구다.

e편한세상 도화에 들어서는 기업형 임대주택은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고품질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취지에 맞게 8년간 임대 기간이 보장된다. 임대료 상승률도 연 3%로 대폭 낮춰 임차인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정부가 뉴스테이 사업지에 지정한 5%보다 낮춘 수치다.

신청 자격 제한도 없다. 분양 주택이 아닌 만큼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여건이나 주택 소유 유무 등에 관계 없이 입주를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료는 정부가 정한 임대료 산정 기준을 토대로 반경 5㎞ 이내, 준공 10년 이내 아파트 임대료의 평균을 적용했다고 대림산업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용 59㎡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 임대료 43만원, 72㎡는 보증금 6000만원에 월 임대료 48만원, 84㎡는 보증금 6500만원에 월 임대료 55만원으로 책정했다.

분양 홍보관은 인천광역시 도화동 36-1 일대 청운대학교 캠퍼스 내에 위치해 운영 중이다. 모델하우스는 8월 말에 남구 도화동 73-3 도화오거리 인근에 개관할 예정이다. 입주는 2018년 1월로 예정돼 있다.

박태진 기자 tjpippo@

10대 건설사 지방분양 '빅매치'

현대건설 '당진'·GS '충주'·한화 '동래'
내달 전국 7곳서 7399가구 일반분양

휴가철이 이어지는 8월은 통상 분양시장에서 비수기로 꼽히지만 올해는 다르다. 본격적인 가을 분양대전을 앞두고 지방을 중심으로 한 10대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2014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의 대형건설사가 8월에만 분양하는 아파트는 전체 7곳, 일반분양을 기준으로 총 7399가구에 달한다.

우선 현대건설은 충남 당진시 송악읍 일대 '힐스테이트 당진 2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어 현대건설은 대구시 수성구에 우방타운1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힐스테이트 황금동'을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36층 8개동, 59~111㎡ 총 782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59~84㎡, 281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이어 현대건설은 현대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세종시 2-1생활권 P4구역에서도 전용면적 59~123㎡, 총 1631가구에 달하는 '힐스테이트 세종 2차'도 분양할 예정이다.

또한 GS건설은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에서 '충주기업도시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1596가구 규모의 대단지며 전용면적 59~84㎡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GS건설은 경남 거제 옥산리 일대 '거제오션파크자이'를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최고 20층 11개동, 전용 84~115㎡ 총 783가구 규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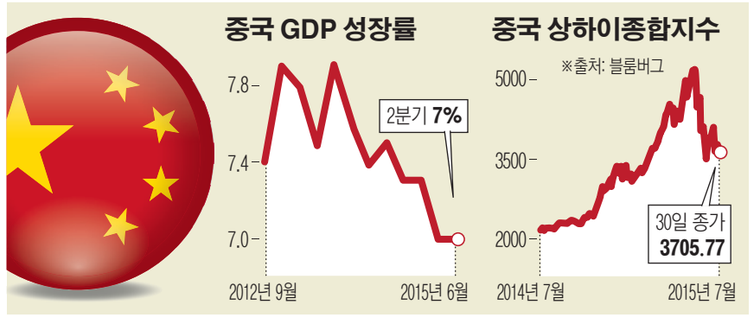
아울러 한화건설은 부산 동래구 낙민동에서 '동래 꿈에그린'을 공급한다. 지하 2층, 지상 46~49층, 4개동 총 732가구 규모로 전 가구가 전용면적 84㎡의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또한 제주 아라동 일대에 들어서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꿈에그린'도 분양할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84~220㎡ 총 759가구다.

구성헌 기자 carlove@

G2, 엇갈린 경제 명암

中경기 '먹구름'… 글로벌 기업들 '울상'

경기둔화·증시폭락 충격
車·산업재기업에 직격탄
7월 PMI 15개월만에 최악
"기업환경 갈수록 악화돼"



중국 경기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하면서 글로벌 기업의 실적에도 비상이 걸렸다.

푸조시트로엥과 아우디 르노 포드 등 글로벌 자동차업계는 물론 캐터필러와 지멘스 등 산업재 기업들이 중국발 쇼크에 실적 전망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고 3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와 증시 혼란이 글로벌 기업에 새로운 고민거리를 안긴 셈이다. 이들 기업 대부분은 중국에 성장을 의존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르노와 아우디 모두 이날 중국의 성장 둔화를 판매 전망 하향 조정 이유로 들었다. 푸조는 올해 중국시장 판매 증가율 전망을 종전의 7%에서 3%로 대폭 낮췄다. 포드도 올해 중국 내 자동차 판매가 199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엔지니어링 대기업인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는 지난주 실적 발표에서 "아시아에서 특히 중국시장이 확실하게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며 "중국의 부동산투자와 신규 건축착공, 분양 모두 압박을 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 최대 건설장비업체 캐터필러는 지난 2분기 순이익이 전년보다 29%, 매출은 13% 각각 감소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중국 건설활동의 위축을 들었다.

세계 주요 전기장비업체 중 하나인 슈나이더일렉트릭은 지난 상반기 순이익이 12% 감소했다. 회사는 중국 산업재 시장의 부진을 이유로 올해 실적 전망을 낮췄다. 장-파스칼 트리쿠아 슈나이더일렉트릭 최고경영자(CEO)는 "중국의 경기둔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더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멘스는 이날 지난 분기 중국 매출이 전년보다 8% 줄었으며 신규 주문액도 2% 감소했다고 밝혔다.

소비재 기업들도 압박을 느끼고 있다. 양조업체 안호이저-부시인베브는 "지난 분기 중국 판매가 6.5% 감소했다"며 "안 좋은 날씨와 더불어 경제둔화 역풍을 맞은 탓"이라고 설명했다.

루도비치 수브란 율러에르메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그동안 기업들은 중국이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했으나 이제는 아니다"라며 "중국의 기업환경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중국의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7%를 유지했으나 시장은 이에 의구심을 느끼고 있다. 차이신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7월 예비치는 48.2로 15개월래 최저치를 찍었다.

불안에 불을 더욱 지피는 것은 중국증시의 혼란이다. 중국증시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 27일 8.5% 급락해 8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으며 이번 주 내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도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이날 시 주석 주재로 정치국 회의를 열어 올해 경제정책 운영에 대해 "시스템적인 위험을 방지하고 제거하는 것을 고도로 중시한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이는 금융시장의 혼란이 실물경제로 퍼지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시사한 것이다. 재정과 금융정책을 통해 경기를 뒷받침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다는 방침도 거듭 강조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라가르드 IMF 총재

"그리스 추가개혁·채권단 채무경감
합의 안되면 구제금융 거부하겠다"

IMF의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그리스의 3차 구제금융 지원을 놓고 그리스와 채권단 양쪽에 엄포를 놨다.

IMF 관계자는 "그리스의 추가 개혁과 국제채권단의 채무경감이 합의되지 않으면 IMF는 3차 구제금융 프로그램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29일 두 시간에 걸쳐 진행된 IMF 이사회 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IMF의 이 같은 자세는 그리스 3차 구제금융 시행의 최대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독일을 비롯해 채권단에 속한 국가 중에 그리스의 부채 경감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곳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IMF의 그리스 대출 프로그램은 내년 3월까지 약 170억 유로를 사용할 수 있다. 최근엔 그리스의 IMF에 대한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만약 IMF가 빠지면 국제채권단은 그리스의 3차 구제금융프로그램 시행에 차질을 겪을 수 있다. 주요 채권단인 독일은 860억 유로(약 110조4500억원)를 지원하는 그리스 구제금융 계획에 IMF가 참여하지 않으면 연방하원의 승인을 얻기 어렵다고 공공연하게 언급하곤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IMF가 그리스 구제금융 재원 조성을 돕지 않는다면, 추가 구제금융이 집행되기까지 몇 달은 더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우에 따라서 구제금융 협상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리스는 다음 달 20일까지 유럽중앙은행(ECB)에 32억 유로를 갚아야 한다.

국제채권단간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그리스 내부에서는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자신이 이끄는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의 반발 세력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동안 위기 때마다 '쇼맨십'을 보여줬던 치프라스 총리가 이번엔 어떤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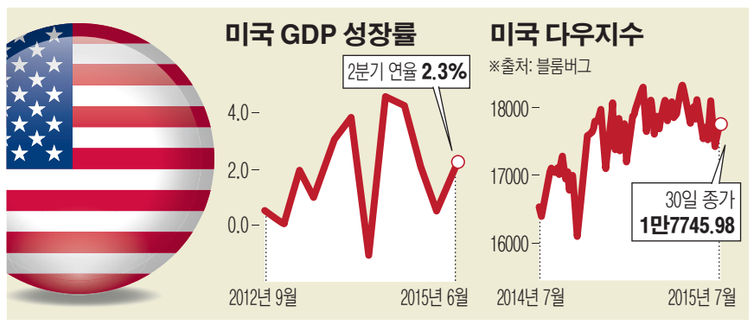
치프라스 총리는 30일 아테네에서 열린 여당 간부회의에 참석, 구제금융 지원 경제개혁안에 대한 시비를 가리기 위해 9월 긴급 당 대회를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조기 총선 여부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시리자의 라디오 방송인 스토코키노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내) 강경파가 구제금융 협상에 계속 반대하면 조기 총선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과반의석을 보유하지 못하면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고, 정부 입장에 반대하면 물러나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구름 걷힌 美경제… 힘받는 금리인상

2분기 GDP 성장률 年 2.3%
소비·지출 호조 회복세 진입



미국의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을 밑돌았으나 미국 경제가 연초 부진에서 벗어나 회복세로 접어들었음을 확인시켰다. 이에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관측이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 상무부는 30일(현지시간) 지난 2분기 GDP 성장률 예비치가 연율 2.3%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2.5%를 밑도는 것이다.

소비지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전체 성장세를 이끌었다. 고용과 주택시장의 회복, 증시 상승, 유가하락 등이 수요를 회복시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분기 개인소비지출(PCE) 증가율은 연율 2.9%를 기록했다. 1분기의 1.8%에서 증가폭이 더 커진 것이다. 개인 가처분소득 증가율도 3.7%로 전분기보다 1.9%포인트 늘어났다.

수출은 5.3% 증가로 전분기의 6% 감소에서 호전됐지만 수입은 3.5% 증가로 전분기의 7.1%에서 성장이 둔화했다.

GDP 물가지수는 2.2% 상승해 3분기 만에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는 너무 낮은 인플레이션 수준에 대한 우려를 덜어 연내 금리인상 관측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다만 기업 투자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2분기 기업 설비투자는 0.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2년 3분기 이후 가장 저조한 수치다.

정부지출은 0.8% 증가해 1분기의 0.1% 감소에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방정부 지출이 2% 증가했으나 연방정부 지출은 1.1% 감소했다.

한편 이번부터 GDP 집계 방식이 바뀌면서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은 종전 마이너스(-)0.2%에서 0.6%로 수정됐다. 최근 3년여 동안의 분기별 GDP도 수정돼 지난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2.1%, 4.6%, 5.0%, 2.2%였던 성장률이 각각 -0.9%, 4.6%, 4.3%, 2.1%로 변경됐다. 종전 방식이 1분기는 너무 낮게, 3분기는 높게 집계된다는 지적에 따라 새 통계방법을 적용한 것이다.

전날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낸 성명에서 금리인상 시점에 대한 분명한 힌트를 주지는 않았지만 고용과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견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리만 베흐라베쉬 IHS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경제는 급격한 회복세는 아니지만 어쨌든 회복하고 있다. 이것은 좋은 현상"이라며 "올 하반기 더 좋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소비지출이 그 핵심에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권왕' 빌 그로스 야누스캐피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연준이 초저금리의 혜택뿐 아니라 폐해도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낮은 금리로 막대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지만 이들은 실물경제에 이런 돈을 투자하는 대신 자사주 매입에 투입해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구글, '구글글라스' 접는다더니…

차기 모델 시제품 개발
올가을 정식판매 전망

구글이 스마트 안경인 '구글글라스'의 새 모델을 개발했다. 구글이 최근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새 구글글라스의 시제품을 비밀리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새 구글글라스가 산업 헬스케어 에너지 부문 등에서 다양하게 응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하며 정식 발매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개발자들에게 시제품이 전해진 점으로 미루어 올가을쯤 정식 출시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문은 구글글라스 새 모델에 대해, 1세대와 비슷한 직사각형 커브 모양이나 와이어 프레임이 제거돼 사용자들의 안경이나 다른 눈과 관련된 제품에 끼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터리 수명이 크게 늘어난 구글글라스 새 모델은 오로지 기업용으로만 출시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는 지난 7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전파인증을 받은 'GG1' 기계가 구글글라스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현지 언론들은 'GG'가 구글글라스의 약자로 해석되고 등록기기의 특징이 와이파이, 블루투스, 교체 불가한 배터리 등으로 구글글라스와 유사한 점이 많다는 점을 근거로 내놓기도 했다.

당시 구글은 "팀을 현재 미래 제품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 인터뷰는 하지 않는다"고 이메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지난 2012년 6월 구글은 구글글라스를 최초로 공개했다. 그러나 익숙치 않은 디자인과 비싼 가격 등의 혹평으로 크게 환영을 받지 못하며 판매에 고전했다. 구글글라스 1세대가 실패로 돌아가자 구글은 지난 1월 판매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구글은 지난해 인수한 NEST의 최고경영자(CEO)인 토니 파델에게 차기 구글글라스 프로젝트를 맡겼다. 파델은 구글글라스 프로젝트를 본인이 자원해서 맡게 됐다고 말했다.

패트릭 피체트 전 최고재무 책임자(CFO)은 구글글라스의 올해 출시 여부에 대해 "팀이 고비를 넘지 못하면 우리는 여러 방안을 생각하게 된다"며 "일시중지시킬 수도 있고 지금까지의 전략을 다시 처음으로 되돌릴 수도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엉뚱한 데서 발견된 '말레이 실종 여객기' 추정 잔해

유니클로·세븐일레븐 맞손

올해 새 의류 브랜드 론칭
생산·판매·물류 등 제휴

일본 캐주얼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와 대형 편의점 체인 세븐일레븐이 손을 잡았다. 일본 종합유통업체이자 세븐일레븐을 소유하고 있는 세븐앤아이홀딩스와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의류전문업체 패스트리테일링이 연내에 새로운 의류 브랜드 론칭은 물론, 생산, 판매, 물류 등 다각적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우선 두 업체는 연내에 자체 브랜드(PB) 제품 기획에 돌입할 계획이다. 기획에서 판매까지 브랜드의 업무를 자체적으로 일괄 소화하는 유니클로의 노하우를 활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세븐앤아이는 세븐일레븐 매장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유통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양사는 또한 해외에서도 협력 관계를 넓힐 방침이다. 현재 세븐일레븐은 해외에 약 3만8000개의 매장을 갖고 있다. 이는 해외 개척에 주력하고 있는 유니클로의 취약한 판매망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서지희 기자 jhsseo@



아프리카 동부 인도양 세이셸 인근의 프랑스령 레위니옹 섬 생앙들로 해안에서 29일(현지시간) 현지 경찰이 항공기 날개 일부로 보이는 흰색 물체를 옮기고 있다. 해당 항공기 잔해물은 보잉777기종의 날개 뒤편 부품 '플래퍼론'과 유사해, 지난해 3월 8일 탑승자 239명과 함께 실종된 말레이시아항공 MH370편의 잔해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압둘 아지즈 카프라위 말레이시아 교통부 장관은 "수거한 잔해물이 보잉777의 플래퍼론인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프랑스 항공당국은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잔해물을 프랑스 본토에 있는 연구소로 옮겨 정밀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생아들로/AP연합뉴스

"金, 2년 안에 800달러대로 떨어진다"

올 8% 이상 뚝… 약세장 진입

"현재 금의 몰락은 시작에 불과하다."

강달러, 중국 경기둔화 여파로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금값이 향후 2년 안에 온스당 80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뉴욕상품거래소(NYMEX)에서 30일(현지시간) 8월 인도분 금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2.90달러(0.3%) 하락한 온스당 1089.70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금값은 최근 15거래일 중 13거래일 하락세를 나타냈고, 월 기준으로는 2년래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야마다테크니컬리서치의 루이스 야마다 분석가는 "금이 약세장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금값은 올 들어 8% 이상 하락했고 지금 추세가 지속된다면 연 기준으로 3년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S&P500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3년부터 금 가격은 하락 압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야마다 분석가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금값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바탕으로 "온스당 1200~1400달러대에서 최고수준을 보였던 금값은 1200달러선이 무너지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음 기준이 되는 수준은 온스당 1000달러대"라며 "1000달러대 붕괴는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2년간 금값이 온스당 1000달러 아래로 떨어져 800달러까지 주저앉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30일 종가에서 25%가량 추가 하락하는 것이다.

TCW그룹의 채권 및 원자재 펀드매니저인 클라우드 어브는 "금은 이제 주식과 다른 점이 없다"며 "현재 금은 과대평가되어 있고 리스크 헷지 수단으로서 금의 매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CNN머니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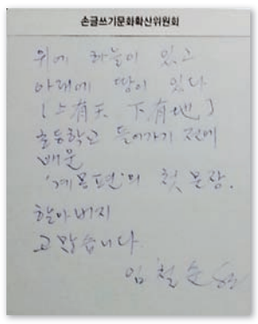


임철순의
즐거운 세상

육필의 시대는 이미 갔지만

편집국 책상에 널려 있는 기사 원고만 보고도 누구 글씨인지 다 알던 시대가 있었다. 왕방울처럼 큰 글씨는 '구마모토(熊本)'가 쓴 것, 미끈하고 부드러운 이 글씨는 '다리우스'의 기사, 이런 식으로 말이다. 기사는 주로 하루에 몇 번 배달돼 오던 통신지의 뒷면에 썼다. 분량이 정확해야 하는 경우 200자 원고지나 13배 원고지(한 줄에 13자가 들어가게 만든 것)를 썼지만, 보통은 통신지 뒷장을 이용했다.

기사를 빨리, 많이 써야 하는 기자들의 글씨는 거의 난필이었다. 원고지를 줘 봐야 아무 소용없는 사람도 있었다. 좁고 작은 울타리에 갇히기 싫어서 그런지 그는 아예 칸을 무시하고 기사를 썼다.



고 주효민 전 주필 같은 분의 글씨는 '백로난비형(白鷺亂飛形)'이라고 했다. 글씨마다 어지럽게 춤을 추어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었다. 활자를 뽑아 조판을 하던 시절에는 그분의 글만 전담하는 문선공(文選工)이 따로 있었다. "이 회사에서는 글씨를 못 써야 출세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간부진 중에 악필이 많았다.

소설가 최인호도 유명한 악필이었다. 신문 연재를 시작하면 교정부부터 찾아가 잘 부탁한다고 인사하곤 했다. 나에게 보낸 책의 친필서명은 아무리 봐도 '임철순 님'이 아니라 '임철순 놈'이었다. 그래서 뭐라고 했더니 다음에는 '임철순 놈이 아닌 님에게'라고 써준 기억이 난다.

1990년대 들어 컴퓨터를 이용해 신문을 제작하기 시작한 뒤부터는 육필이 사라지고, 누가 어떻게 글씨를 쓰는지도 알 수 없게 돼 버렸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니 30년 이상 어머니와 손편지를 주고받고 있는 배국남씨(이투데이 논설위원 겸 대중문화 전문기자)와 같은 사람이 놀라울 수밖에 없다. 그 긴 세월에 어머니는 이미 구순이 되고 아들도 초로의 나이에 접어들었지만, 손편지에 실려 오가는 모자의 정은 갈수록 더 도타워지고 있다.

나는 교보문고와 대산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한 '제1회 교보 손글쓰기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손글씨의 소중함을 다시 절감했다. 2275명이 응모한 이번 대회에서는 아동, 청소년, 일반 등 세 부문별로 7점씩 총 21점이 선정돼 28일부터 한 달간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전시되고 있다.

심사를 하면서 손글씨에 대한 응모자들의 낯섦과 두려움을 먼저 읽을 수 있었다. 자연스럽게 글씨를 쓰는 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됐다. 나는 자연스럽고 메시지가 좋은 글씨를 뽑았다. 심사위원들도 한 편씩 손글씨를 써 내게 한 덕분에 '언론인의 작품'〈사진〉이 전시되는 영광을 얻게 됐다.

그런데 요즘 블로그 이웃들을 중심으로 '왼손글씨 릴레이'가 벌어지고 있다. '행운의 편지'처럼 다른 사람에게 순서를 넘기는 식이다. 왜 이런 걸을 할까? 왼손잡이들의 고통을 알아보려고? 아니면 재미로? 오른손을 다쳐 못 쓰게 될 때를 대비해서?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손으로 그려낸 글씨는 삐뚤빼뚤 어지럽고 행간도 맞지 않는다. 왼손잡이라면 오른손글씨를 써야 하겠지만 대체로 왼손잡이들은 오른손잡이들보다 두 손을 다 쓰는 데 능숙하다. 나도 일상생활에서 왼손을 쓰는 경우가 딱 한 가지 있는데(공개 불가), 왼손으로 글씨를 써 보니 역시 어려웠다.

지금은 육필이라는 말이 생소하고 손글씨가 더 알기 쉬운 시대다. 손글씨든 왼손글씨든 직접 쓰는 글씨의 중요성을 잘 알면 좋겠다.

주필 겸 미래설계연구원장 fusedtree@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正論

경기부양과 빚



이 인 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국내 경기가 말이 아닌 것 같다. 지난해 새로 된 경제부총리는 자신의 이름을 딴 경기부양책까지 들고 나왔으나 획기적으로 경기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그런 와중에 국내 가계부채가 1100조원을 넘어섰다는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

경기는 어느 정도 순환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즉 호경기가 오면 어느새 불경기가 오고 또다시 호경기가 오곤 한다. 호경기란 경제 상황이 풍요로워 행복한 때이고, 불경기란 그렇지 않아 불행한 때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불경기 국면에서 경제정책당국은 빨리 호경기를 불러오려 경기부양책을 쓴다.

호경기가 되려면 결국 사람들이 돈을 잘 벌어 소비를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 전체는 돌고 도는 형태를 갖고 있어 호경기가 되려면 시장에서 수요가 많아 생산이 많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생산과정에 참여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므로 수요 또한 많아진다. 반대로 불경기는 수요가 없어 생산도 안 일어나고, 그래서 돈을 못 버니 수요도 없어진다. 따라서 경기부양책이란 불경기에 수요를 인위적으로 발생시켜 사람들이 돈을 벌고 이를 쓰도록 만들어 주는 정책이다.

경기부양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두 가지가 있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직접 투자 등을 통해 수요를 만들어 내고, 통화정책은 금리를 낮춰 사람들이 돈을 쓰기 쉽도록 만들어 준다. 그런데 재정정책을 쓰기 위해서는 정부가 돈이 필요하므로 정부의 부채가 늘어나고, 통화정책에서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 쓰게 되므로 민간의 부채가 늘어나게 된다. 물론 경기부양책이 잘 작동하면 정부의 부채는 호경기에 늘어나게 되는 세수로 갚으면 되고 민간의 부채는 호경기에 버는 돈으로 갚으면 되므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즉 경기부양책이란 수요가 있어야 생산이 일어나고 생산에서 돈을 벌어야 수요가 생기므로 이런 순환논법을 깨기 위한 방책인데,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국가와 개인의 빚은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줄어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최근 정부는 추경 편성과 저금리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 하고 있는데, 특히 경기부양이 생겨나는 통로로 부동산 시장을 겨냥하는 듯하다. 현재의 부총리가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LTV와 DTI 등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였던 것을 보면 이러한 의도는 자명해 보인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을 통한 경기부양은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그동안의 경험을 돌아보면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는 경기 부양 효과가 미약하고 더디다. 또한 부동산 시장은 쉽게 과열돼 사람들의 주택 마련을 어렵게 만들기 쉽다. 금리가 싸지고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쉽게 만들어 주면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기적 수요자들까지 뛰어들어 주택 가격을 올려놓게 되고 애써 정착되려던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만 힘들어 놓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 그 와중에 가계의 빚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위해 생겨난 빚은 호경기가 되어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 우리 경제의 위험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일단 늘어난 빚이 호경기가 되어도 줄어들지 않는다면 추후에 금리를 올리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정부가 경기변동을 순환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한하는 결과마저 생긴다.

정부가 좋은 경기부양책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부동산 시장을 띄우는 것은 경기부양 효과도 작고, 더욱이 중장기적으로 사람들의 주택 마련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수요를 진작하기 위한 저금리가 투기를 위한 대출을 부추기지 않도록 부동산 투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하루 한 생각 **7월 31일**

切磋琢磨(절차탁마) 학문과 덕행을 힘써 닦는다

옥돌을 자르고 닦고 쪼고 간다. 이른바 절차탁마(切磋琢磨), 열심히 학문과 도덕 기예를 닦는 모습이다. 시경 위풍(衛風) 기욱(淇奧)편에 나온다. 학문과 덕을 쌓은 군자를 찬양하는 노래다. 奧은 '벼랑 욱'으로 읽는다. "저 기수 벼랑을 보니/푸른 대나무 야들야들하네/문채 나는 군자여/잘라 놓은 듯 다듬어 놓은 듯/쪼아 놓은 듯 갈아 놓은 듯하시네./치밀하고 굳세며/빛나고 점잖으니/문채나는 군자여/끝내 잊을 수 없구나."[瞻彼淇奧 綠竹猗猗 有匪君子 如切如磋 瑟兮僴兮 赫兮喧兮 有匪君子 終不可諼]

온다.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가난해도 아첨하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옳은 일이나 가난해도 도를 즐기고 부해도 예를 좋아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자공이 다시 '시에 如切如磋 如琢如磨(여절여차 여탁여마)라고 한 것이 바로 이런 걸 말한 것이군요' 그러자 공자는 '너야말로 함께 시를 말할 수 있다. 이미 들은 것으로 장차 있을 것까지를 아니 말이다' 하고 칭찬했다."

'대학'에 "자르고 갊은 배움을 말하고, 갈고 쪼음은 스스로 수양함이다"[如切如磋者 道學也 如琢如磨者 自修也]라고 나온다. '절차'는 학문을 뜻하고 '탁마'는 수양을 말하는 것인 셈이다.

절차탁마는 모두 다듬다는 뜻을 갖고 있으나 그 대상이 다르다. 切(끊을 절)은 뼈를 잘라 다듬는 것, 磋(갈 차)는 상아를 깎아 다듬는 것, 琢(쫄 탁)은 옥을 쪼아 다듬는 것, 磨(갈 마)는 돌을 깎아 다듬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

예기 학기에는 "옥은 다듬지 않으면 그릇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를 알지 못한다"[玉不琢 不成器 人不學 不知道]는 말이 나온다. 그래서 옛날 왕자(王者)가 나라를 세우고 인민의 위에 군림할 때 교학(敎學)을 먼저 했다는 것이다.

임철순 주필 겸 미래설계연구원장 fusedtree@

온라인 와글와글

박근령 日 언론 인터뷰 물의 "대통령 동생이란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근령씨가 일본 언론과의 대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에 대해 계속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일본 정치인들의 신사참배에 대해서는 "내정간섭"이라며 "'나쁜 사람이니까 묘소에 안 찾아갈 거야' 그게 패륜"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온라인에는 "기가 차 할 말을 잃었다", "어찌 저런. 그것도 현직 대통령 동생이란 사람이", "일본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그 과정에서 손해 좀 봤다고 따져야겠느냐?라는 뉘앙스네", "그럴싸한 말로 국민을 우롱하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이건 그대가 할 말이 아닌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일왕이 아니라 천황?", "목숨 걸고 나라 지킨 분들 뒷목 잡는 소리. 입으로 하면 다 말이야?" 등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오늘의 BAE 배국남 .com
www.baekn.com

'어느 멋진 날' 걸스데이의 여행기



배국남닷컴은 30일 걸스데이를 만났다. 드라마 촬영으로 불참한 혜리를 제외한 걸스데이 멤버 소진, 유라, 민아가 8월 3일 첫 방송하는 MBC 뮤직 '걸스데이의 어느 멋진 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여행 리얼리티에 임한 유라는 "정말 솔직하게 매 순간 이미지를 내려놓았다. 멤버 모두 약간 남자처럼 놀았다. 저희들끼리 '재밌게 즐기자'는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유라는 이어 "처음으로 멤버들과 방송에서 맥주 한잔을 하며 음주 방송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진은 "현장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것은 유라와 혜리의 장난이다. 두 사람은 말릴 수가 없다"며 촬영 분위기를 전했다. 소진은 이어 "이번 리얼리티를 하면서 그 점이 우리 멤버들의 매력이라는 것을 느꼈다. (멤버들이) 귀여운 것 같다. 사랑스럽게 봐달라"고 강조했다.

'걸스데이의 어느 멋진 날'에서는 데뷔 후 5년 만에 첫 리얼리티에 도전하는 걸스데이의 4박 5일간의 일본 오키나와 여행기가 그려진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주)지앤에스지
골프용품 주문생산 전문업체



VIP GOLF GIFT SET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G&SG의 골프필드용품



기업홍보용품 / 선물용품 / 골프장개장기념품
골프필드용품 제조전문 ☎ 02-744-7444/765-7404 www.gnsg.co.kr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208 (주)지앤에스지
※광고에 게재된 로고나 상호는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입니다.
NAVER 지앤에스지

흔적을 만들어 가는 스토리텔러를 꿈꾸다

릴레이 기고

나는 왜 기업을 하는가 ⑬



서 용 식

수목건축 대표

내 얼굴에는 주근깨가 가득하다. 유독 햇볕에 많이 노출된 탓이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란 나는 동네 어르신들이 경작하는 논과 밭에 나가 물길을 대고, 그 대가로 용돈을 받고, 동네 친구들과 섬진강 변에서 미꾸라지를 잡아 시장에 팔았다. '나는 왜 기업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올랐다. 어릴 적부터 시골에서 자란 까닭에 예민한 감수성과 순수한 감성이 현재 나를 만들었다. 여전히 논과 밭을 뛰어다니고, 친구들과 미꾸라지를 잡던 소년의 마음으로 기업경영, 꿈에 도전해 가고 있다.

햇볕을 쫓던 소년이 꿈을 따라 나섰다.

시골에서 도시로 유학을 갔다. 서울의 명문고인 경동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집안의 기대에 따라 의대에 가기 위해 준비하다 건축과로 전향하여 대학 3년 동안 과대표를 맡아 리더십과 재기발랄함으로 대학생활을 마쳤다. 건축설계 실무현장에서 5년, 건축사 합격까지는 남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숙련시간을 가졌다.

1989년, 같이 일하던 선배 사무실의 옥탑방을 빌려 수목종합건축사무소로 개업했다. 그렇게 작은 설계사무소에서부터 시작해서 2년 뒤 법인화된 수목건축을 만들어 이끌어 온 지 20년이 훌쩍 넘었다.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 각종 주요 5개 일간신문을 분석하며, 사회적 현상에 대한 남다른 안목을 키워왔다.

수목건축이 기복이 많은 부동산 개발, 건축사업에서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시대적 변화의 중심에서 늘 새로운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았기 때문이다.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며 소형주택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원룸'이라는 개념을 대한민국 최초로 설정하고, 소형주택에 대한 특화된 상품개발을 진행해왔다. 서울의 수많은 주택을 디자인·시공해왔고, 이에 국한되어 있던 건축 사업을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시장 안에서 다시 읽기 시작했다.

원룸이라는 소형주택 상품 개발과 부동산 시장을 연계하여 임대주택 시장으로 시야를 넓혀갔다.

임대주택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하다. 누군가에게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누군가에게는 내가 사는 공간으로, 이 두 가지 이해의 간극에서 임대주택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상품'으로, '누구든 쉽게 살 수 있는 사용개념'으로 인식하고 임대주택의 대중화 확산에 주력했다.

여기에 더해 2000년, 리모델링 사업으로 당시 대한민국 최초로 IT 개념이 접목된 온라인 건설 네트워크 회사인 리노플러스닷컴(www.renoplus.com)을 만들어 새로운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당시에는 낯설었던 가격파괴 개념의 철골구조, 클러스터 개념의 도시개발, 한국의 장묘문화를 바꾸는 납골당 개발 사업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문화를 제시하고 새로운 상품들을 개발해 왔다.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이러한 건축개발은 당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창조는 실패와 좌절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수많은 작은 실패가 있었기에 새로운 시도와 창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에 일방적으로 공급되었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을 파괴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상품 개발과 현장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에 진출했다. 투기, 한방주의 등 한국에서의 부동산 개발사업이 부정적 상황으로 흘러 해외 부동산 개발로 시선을 돌렸다.

해외 부동산 개발로 큰 꿈을 실현하기 바로 전, 무모하리만큼 저돌적으로 진행했던 사업은 지역의 리스크를 철저히 분석하지 못한 결과, 성공에 닿지 못하고 좌절하고 말았다.

'누군가 할 일이면 내가 한다. 언젠가 할 일이면 지금 한다. 어차피 할 일이면 최고로 한다.'

원룸 개념 소형주택 첫 도입
부동산 개발·해외 건축까지 도전
리스크 분석 못해 실패 경험도

누군가 할 일이면, 내가
언젠가 할 일이면, 지금
어차피 할 일이면, 최고로

지금보다 더 나은 도시 디자인
좋은 변화, 가치 전파하고 싶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강조하는 말이다. 내일 죽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한다. 한 번 정한 일은 끝까지 밀고 나간다. 그렇게 만들어온 상품 개발과 부동산 개발사업의 기업경영 스토리는 '실패가 있기에 성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수목건축의 기업경영은 끊임없이 흔적을 그리고, 흔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것은 내가 추구하는 나의 인생철학과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수목건축은 일본의 '네오 팰리스' 기업 비즈니스를 모델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소형주택 분야의 최고 전문가 그룹으로 컨설팅, 디자인, 시공, 마케팅, 임대관리, 그리고 금융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개발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대한민국 소형주택 대표 브랜드로 성장하였다. 소형주택의 공급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가는 임차인들의 생활서비스를 지원하는 +M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여기에 더해 임대주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디자인 부문에 중점을 두고, 굿 디자인(Good Design)이 최고의 차별화 전략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업계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수목 마이바움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단순한 수익 창출뿐만 아니라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처음 건축기획가로 시작하여 지금은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한 임대주택의 공급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도 기본을 중시하고 정도를 지키며 회사의 기업가치와 고객의 자산 가치를 증대시켜 한국에서 소외된 주거인 중간건축에 연구개발과 굿 디자인을 입혀 새로운 건축시장으로 더 나은 주거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나는 끊임없이 흔적을 만들고 그 흔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기업경영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수목건축의 기업 슬로건은 'For better housing'이다.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닌 좋은 상품으로 사회·문화적 변화의 중심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그 흔적이 새로운 메시지를 만들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주거를 통해 사람들의 행복지수를 올리는 것이 수목건축의 비전이다.

나는 그동안의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을 책으로 기록했다. '신건축기행', '살고 싶은 집, 갖고 싶은 건축을 찾아서' 등 당시 건축에 대한 대중적인 소통이 부족할 때, 책을 통해 대중과 건축의 접점을 만들었다. 또한 지진에 대응하는 건축에 대한 연구물로 '중저층 철골조 건축설계 매뉴얼', 미래 주택시장의 방향을 확신한 '임대주택 수익 극대화의 기술', 더 나은 주거문화 만들기 아이디어 공모전을 기획한 결과물인 '그대 행복한가, 그대 꿈꾸는가', 디자인+예산 그리고 수익까지! 전문가와 함께 만드는 일대일 맞춤주택 개념을 정리한 '탱고하우스' 등 그동안 건축, 디자인, 시공, 임대관리 부동산 개발사업을 해오면서 목표하고 만들어냈던 결과물 중 일부다.

최근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단위주택에서 보다 확장된 블록개발 형태인 마을 만들기와 도시개발사업으로 확장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더 나은 도시 디자인 연구소와 더 나은 도시 디자인 학교를 통한 연구·교육으로 대한민국의 주거문화를 바꾸고, 도시환경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흔적과 활동들은 디자인계의 미래학자 존 타카라와 닮아 있다. 나도 전 세계를 다니며 세상의 좋은 변화를 가져오는 가치를 전파하고, 새로운 창조를 통해 세상을 바꿔가는 스토리텔러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이슈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싶다.

서용식 대표는

- 1982년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 1991년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최고경제과정 수료
- 1991~현재 수목건축사 사무소 대표이사
- 2012~현재 수목건축 대표이사
- 2013~현재 플러스엠파트너스 대표이사
- 2015~현재 더 나은 도시디자인 학교 교장

수목건축 연혁

- 1989 수목종합건축사무소로 개업
- 1991 수목종합건축사사무소 법인화
- 1995 (주)수목건축 (건축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 등록) 분사 및 법인설립
- 1998 '부동산 리노베이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더난출판사 출간
- 1999 '서용식의 내 손에 잡히는 부동산개발' 새로운 사람들 출간
- 2000 리모델링 부문 계열사 네트워크서비스업체 리노플러스닷컴 설립
- 2002 건축설계·감리부문 계열사 (주)수목A&C 설립
- 2004 롯데건설 방배동 고급빌라 현상설계 당선
- 2009 1·2인 가구를 위한 주거브랜드 '마이바움' 상품개발
- 2010 (주)수목부동산자산관리 설립
- (주)수목스퀘어 설립
- 2011 서울시&SH공사 미래주택 용역 수주
- 2012 수목건축 종합건설업 등록
- 마이바움 | 연구소 설립(with 숙명여대 경영학과)
- 2013 기업형 주택임대관리회사 플러스엠파트너스 설립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자본시장부 차장

매도 리포트가 어려운 현실



"매도 리포트는 과거에도 있었어요. 목표가 다운(하향 재조정)이나 투자의견 '중립'이면 그건 '매도'라고 봐도 됩니다. 표현만 달랐을 뿐이지요."

한 증권사 연구원이 푸념을 섞어 대답합니다. 이제껏 증권사들은 투자의견 '매도'를 중립 또는 이와 비슷한 다른 표현으로 썼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매도 의견을 내 (해당기업 또는 주주에게) 시달리기보다 차라리 리포트를 내지 않겠다"는 불만을 더 얹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분위기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올 들어 금융당국은 증권사에게 매도 리포트를 내라고 더욱 독려하고 있습니다. 꽤 구체적으로 "비율로 정해서 발표하라"는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정책의 출발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론은 없는 상황입니다.

증권사의 보고서는 주식시장에서 적잖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서 한방(?)이 주가를 폭락시킬 수 있습니다. 거꾸로 상한가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투자의견 '매도'가 서슬퍼런 칼날이나 다름없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이러한 칼날이 현실에서는 양날의 검이 됩니다. 해당 기업이 특정 금융업무에서 이 증권사를 배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투자자를 위한 냉철한 보고서가 자칫 해당 증권사는 물론 관련 연구원에게도 불이익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매도 보고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궁극점은 결국 '익명성 보장'에 모아집니다. 부정적 의견을 낸 연구원과 증권사가 노출되지 않는다면 보다 냉철하고 치밀한 분석을 담은 보고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컨대 '매도 의견'을 낸 증권사에 대해 해당 기업이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금융당국이 이를 대신하는 방식인데요. 증권사는 특정 기업에 대해 '매도' 의견이 발생하면 이를 금감원에 제출합니다. 당국은 해당 기업에 대한 매도 의견이 '복수'로 발생할 경우 이를 종합해 발표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적은 이야기입니다. 금융당국 스스로 증권사에 책임을 떠넘긴 마당에 굳이 다시 나서야 할 이유가 없고, 당국이 증권사를 대신해 쓴소리를 들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지요.

증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을 보고서를 위해 밤잠을 줄여가며 '리포트'를 작성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시장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특정 기업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접할 때마다 어느 증권사인지 먼저 따져봅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매도 보고서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권위를 지닐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러나 "오죽하면 이런 의견까지 나오겠느냐"라는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증권사들은 아직 상장기업의 보복(?)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매도 의견을 발표할 만큼 성숙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장의 상황도 증권사들의 의지보다 높은 장벽에 막혀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증권사들이 냉철한 분석을 거침없이 내놓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혜안이 필요합니다. 내츄럴엔도텍 사태와 조선 빅3의 눈덩이 영업적자 사태는 냉철한 '매도 보고서'의 부재가 불러온 자본시장의 '오점'이니까요. junior@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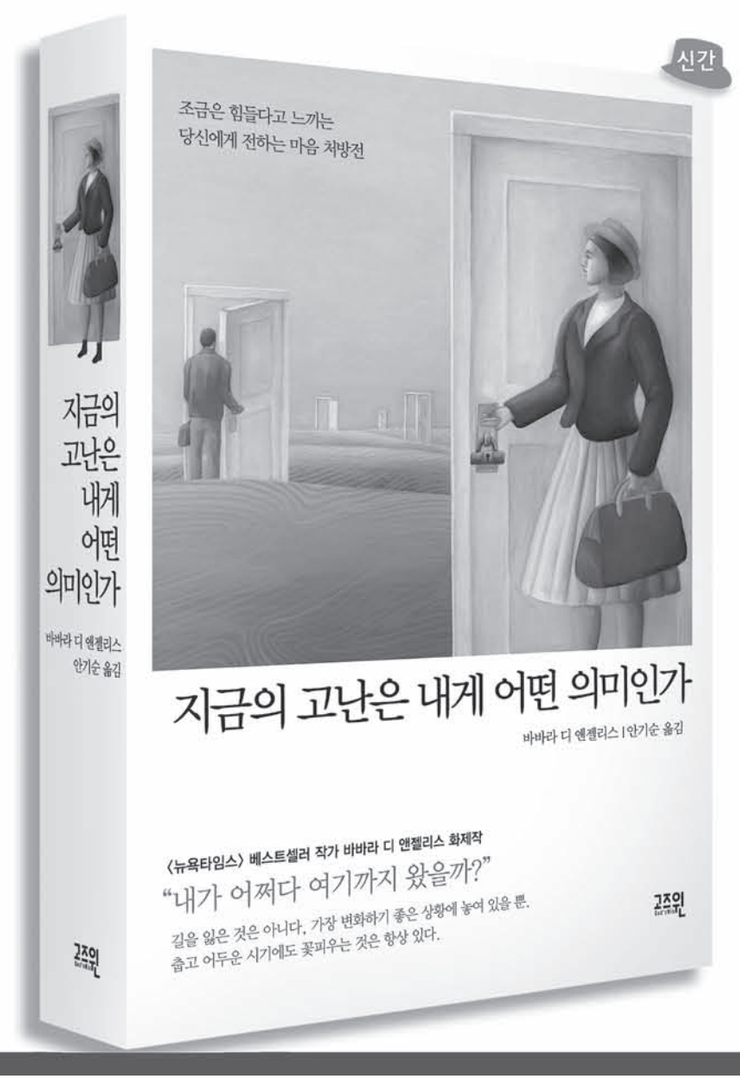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이종재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강 혁

논설실 (02)799-2657 온라인뉴스부 (02)799-2640 사진팀 (02)799-2634
정치경제부 (02)799-2650 자본시장부 (02)799-2658 금융시장부 (02)799-2665
산업부 (02)799-2664 미래산업부 (02)799-2663 부동산시장부 (02)799-2661
문화부 (02)799-2669 사회팀 (02)799-2656 국제팀 (02)799-2654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조금은 힘들다고 느끼는 당신에게 전하는 마음 처방전

지금의 고난은 내게 어떤 의미인가

바바라 디 앤젤리스 | 안기순 옮김 | 412쪽 | 14,500원

행복에 이르는 길을 잃은 이들을 위한 소중한 선물

삶은 너무 빠르게 흘러간다. 하지만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멈춰 서서 이렇게 묻는다.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베스트셀러 작가 바바라 디 앤젤리스는 이런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삶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정적이고 영적인 재탄생의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시간을 뛰어넘는 지혜와 획기적인 영감을 제공한다. – 반스앤노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바바라 디 앤젤리스 화제작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가장 변화하기 좋은 상황에 놓여 있을 뿐. 춥고 어두운 시기에도 꽃피우는 것은 항상 있다.

당신을 닮은 좋은책 고즈윈 TEL.02)325-5676

중국삼성, 中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 인정
올해까지 10회 이름 올려
장원기 중국삼성 사장
"도움주고 사랑받는 기업 될 것"


중국 쿤밍 윈난사범대에서 진행된 '삼성드림클래스'에서 중국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 중국삼성

중국삼성이 '2015년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중 한 곳으로 뽑혔다.

중국삼성은 중국 유력 경제지 경제관찰보가 선정하는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30대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중국삼성은 폴크스바겐, IBM, BMW 등 다른 외자기업 8곳과 바이두, 공상은행, 화웨이 등 중국기업 21곳 등과 함께 상을 받았다.

경제관찰보는 지난 2001년 창간 이후 14회째 존경받는 국내외 기업을 선정해 왔다.

이 상은 중국 내 사회공헌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상으로 꼽힌다.

경제관찰보는 1차로 80개 기업을 추린 뒤 40명의 전문평가단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30개 기업을 선정한다.

중국삼성은 올해를 포함해 총 10회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에서 이뤄낸 사업적 성과와 함께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교육 및 고용과 지역사회, 의료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참여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스마트스쿨 프로그램',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솔브 포 투모로우 프로그램',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스마트 헬스케어 프로그램' 등 현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장원기 중국삼성 사장은 "중국 인민에게 사랑받고 중국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을 목표로 교육, 사회복지, 농촌 지원, 환경보전 등에서 중국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중국에서 진정으로 존경받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gutjy@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앞장"

SK이노베이션, 신규 고용
'5개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난해 7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시청 인근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전주빵 카페' 개소식 모습. 사진제공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지속 가능성이 높고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한 5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사업은 SK이노베이션이 취약계층 고용 창출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2013년부터 3년째 하고 있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2013년과 지난해에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총 8개 사업을 발굴 및 지원했고, 올해부터는 노인 외에 장애인, 다문화여성,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이어진 올해 공모전에는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예비사회적기업 등 전국 118개 기관이 응모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이 중 전문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경북장애청소년자립지원센터(경북 안동)와 농촌공동체연구소(충북 제천), 도봉시니어클럽(서울), 태화해뜨는샘(서울), 피피엘(경기 고양) 등 5개 기관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경북장애청소년자립지원센터'와 '태화해뜨는샘'은 장애청소년의 고용 창출과 자립을 위한 카페 설립, 바리스타 교육 등을 사업 모델로 제시했다, '농촌공동체연구소'는 농촌지역 다문화 여성들을 고용해 제빵 작업장을 만들고 제빵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 모델을 제안했다.

'도봉시니어클럽'은 노인들을 고용해 요양원 등의 세탁물을 처리하는 세탁작업장 모델을, '피피엘'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해 폐자동차의 가죽시트를 패션상품으로 가공하는 사회적기업 모델을 각각 내놨다.

SK이노베이션은 이들 5개 기관이 제안한 사업에 1년 동안 총 5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 등 전문가 그룹과 협력해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유지만 기자 redpill@

KDB대우증권, 아프리카 어린이에게 '우물' 선물

'뽕빠지 학교' 우물 만들기
크라우드펀딩 목표액 달성



KDB대우증권은 에코준컴퍼니와 함께 '뽕빠지(Pompage) 학교 우물 만들기 프로젝트'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이 목표 금액을 달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크라우드 펀딩은 지난 7월 1일부터 한 달간 1500만원을 목표로 진행됐다.

달성된 금액은 콩고민주공화국 남쪽 끝자락 루붐바시(Lubumbashi)에 위치한 뽕빠지 학교에 우물을 설치하는 데 전액 사용된다.

펀딩은 일반 참여자가 홈페이지(http://www.wadiz.kr/Campaign/Details/1278)에서 퍼블릭캡슐(휴대용 물병), 오리지널그린컵, 유턴백(가방) 등을 구매하면 해당 금액만큼 크라우드 펀드에 적립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크라우드 펀딩이 완료되면 8월 중 콩고민주공화국 현지 파트너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우물 시추가 시작된다. 버려진 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에코준컴퍼니가 디자인한 식수대도 함께 제작될 예정이다.

친환경 디자인 분야 소셜 벤처 에코준컴퍼니는 퍼블릭캡슐, 오리지널그린컵 등을 일반 참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참여했다. KDB대우증권은 크라우드 펀드에 모집된 금액만큼 기부한다.

박동복〈사진〉 KDB대우증권 CSR 부서장은 "이번에 설치된 우물로 콩고민주공화국 뽕빠지 학교 아이들에게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KDB대우증권은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부산항만공사 사장에 우예종 전 해수부 기조실장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에 당선된 임기택 사장을 이을 차기 부산항만공사 사장에 우예종 전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고 31일 밝혔다.

해운항만 물류에 대한 전문가적 능력과 식견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우예종 신임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충남 천안 출신으로 천안고와 단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영국 카디프대학원에서 국제물류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우 사장은 행정고시 제28회로 해운항만청에서 공직을 시작해 해수부 동북아물류중심추진기획단 부단장, 해운정책관, 해양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을 거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항을 글로벌 허브항만으로 이끌 적임자라는 평이다.

실제 임원추진위원회에서는 다른 응모자에 비해 우 사장이 부산항의 현실과 과제에 대해 풍부한 전문가적 식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을 역임해 부산항의 현안에 대한 이해가 높아 부산신항 활성화, 북항재개발, 북항운영사 통합 등 부산항의 여러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상영 기자 sypark@

한화투자증권 '한여름 밤의 음악회'

직장인·시민 500여명 관람



한화투자증권이 지난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한화 물고기공원에서 특집공연 '한화 물고기공원 한여름 밤 음악회'를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음악회에는 9인조 브라스밴드 '무드 살롱'이 막을 열었다. 무드 살롱은 신나는 리듬의 음악을 연주하며 무대를 흥겨운 카니발의 분위기로 만들었다. 1부 공연이 30분 동안 펼쳐지는 동안 제공된 시원한 맥주는 관람석을 채운 직장인과 시민들의 흥을 돋웠다.

2부 공연은 상반기에 진행된 '한화 물고기공원 월요음악회'에 출연한 뒤 '다시 보고 싶은 뮤지션'으로 선정된 '하찌와 소울갈매기'의 무대였다. 한국을 사랑하는 일본인 기타리스트 하찌가 만든 그룹 '하찌와 소울갈매기'는 밝고 경쾌한 멜로디 속에 풍자를 녹여 넣은 9곡의 흥겨운 노래를 불러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한화 물고기공원에는 500여명의 인파가 몰려 한여름 밤의 음악회를 즐겼다. 사전에 관람을 신청한 인원보다 많은 수였다.

김유진 기자 eugene@

'미션 임파서블 5' 들고 일곱 번째 방한한 톰 크루즈
"한국에 올 때마다 기쁘다"

"관객에 더 좋은 것 보이려 고민"
비행기 매달리기·빌딩 벽 타기
인간 한계 넘는 극한 액션 연기


영화배우 톰 크루즈가 30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톰 크루즈가 '미션 임파서블' 다섯 번째 시리즈를 들고 내한했다. 톰 크루즈는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진행된 '미션 임파서블 : 로그네이션'(수입 배급 롯데엔터테인먼트)의 내한 기자회견에서 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과 함께 참석해 한국을 7번째 방문한 소감과 영화 촬영 에피소드, '미션 임파서블'에 대한 애착을 전했다.

톰 크루즈는 '친절한 톰 아저씨'라는 별명에 걸맞게 시종일관 미소를 보이며 친절한 모습이었다. 한국에 대한 남다른 애정도 숨기지 않았다. 톰 크루즈는 "한국에 올 때마다 기쁘다. 영화를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있고 항상 환대해줘서 정말 감사하다. 어렸을 때부터 오고 싶은 나라가 한국이었다"고 밝혔다.

'미션 임파서블'은 고난이도 액션이 트레이드마크. 톰 크루즈는 "시리즈가 진행될수록 난이도가 더 높아진다. 위험요소는 늘 있었지만 언제나 촬영장에 일찍 도착해 준비한 것을 충분히 반영하려 했다"며 "어떻게 하면 관객에게 더 좋은 것을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한다. 어떤 일이든지 열심과 헌신을 요구한다.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희생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30일 개봉한 '미션 임파서블 : 로그네이션'은 에단 헌트(톰 크루즈)와 IMF 팀원들이 그들을 파괴하려는 고도의 훈련을 받은 국제적인 테러조직 '신디케이트'에 맞서 역대 가장 불가능한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톰 크루즈는 이번 시리즈에서 비행기 매달리기, 암벽 타기, 56층 빌딩 잠입, 800m 빌딩 벽 타기 등 한계를 넘어서는 극한 액션을 선보인다.

최두선 기자 sun@

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보안정책단장 홍남식 △대전교도소장 김정선 △대구교도소장 김천수 △수원구치소장 오홍균 △성동구치소장 박병용 △인천구치소장 이경식 ◇고위공무원 전보 △교정정책단장 김학성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권기훈 △대구지방교정청장 유승만 △서울구치소장 최강주 △부산구치소장 신용해 △서울남부구치소장 유병철 △광주교도소장 장보익 ◇부이사관(3급) 승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윤재흥 △전주교도소장 권민석 △의정부교도소장 최제영 ◇부이사관(3급) 전보 △창원교도소장 정병헌 ◇서기관(4급) 전보 △교정기획과장 김종욱 △직업훈련과장 우희경 △복지과장 김진구 △보안과장 김동현 △의료과장 이언담 △서울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유태오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장 정영진 △서울지방교정청 직업훈련과장 박수연 △서울지방교정청 의료분류과장 이현철 △서울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임선하 △대구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정운선 △대구지방교정청 보안과장 노현태 △대구지방교정청 직업훈련과장 윤종주 △대구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조광근 △대전지방교정청 총무과장 박광래 △대전지방교정청 의료분류과장 김응분 △광주지방교정청 보안과장 박삼재 △광주지방교정청 직업훈련과장 최국진 △여주교도소장 구지서 △순천교도소장 김영준 △서울남부교도소장 김승만 △포항교도소장 문병일 △진주교도소장 강위복 △목포교도소장 강달성 △천안교도소장 정충훈 △춘천교도소장 박광식 △원주교도소장 박희수 △청주여자교도소장 이우용 △공주교도소장 하영훈 △경북북부제3교도소장 임형종 △홍성교도소장 박광채 △해남교도소장 김춘오 △대구구치소장 한상호 △충주구치소장 주점숙 △통영구치소장 박민호 △대전교도소 부소장 김재익 △대구교도소 부소장 김태수 △광주교도소 부소장 황인배 △수원구치소 부소장 박태원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장 백홍기 △성동구치소 부소장 임을화 △인천구치소 부소장 민현기 △서울남부구치소 부소장 최찬희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장 류재인

◆여수광양항만공사 ◇부장(2급) △재무회계팀장 박영종 △마케팅팀 임현대 ◇차장(3급) △경영지원팀 조성래 △재무회계팀 고우권 △물류기획실 장방식 △항만운영팀 정하수 △항만건설팀 고영찬 △여수사업소 허정석 ◇과장(4급) △경영지원팀 비서실장 겸임 은용주 △감사팀 손정국 △물류기획실 서영복 △여수사업소 윤승재 ◇대리(5급) △항만운영팀 설경철 조령래 ◇주임(6급) △마케팅팀 이영은 오동훈 △여수사업소 나병제

◆경기도시공사 ◇보임 △부사장 겸 경영기획본부장 김필경 △경제진흥본부장 이부영 △도시재생본부장 최광식

◆덕성여대 △홍보전략실장 김승민 △부속유치원장 신동주

◆LIG투자증권 ◇팀장 △IT운영 한창도 △IT기획 김남수

부음

▲송두호(전 우리은행 부장) 별세, 한을수 남편상, 송영일(한국토지주택공사 수석연구원)·영민(한국산업은행 차장) 부친상 = 30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일, (02)2227-7566

▲이호현(사업)·진희·소희 부친상, 김석진(한국투자증권 상근감사위원 상무) 장인상 = 30일, 인천 적십자병원, 발인 1일, (032)817-1024

▲국순동(완주 용연교회 목사)·순욱(광주대학교 부총장)·순걸(한국전력 과장)·정옥·정례·순기(한국핵연료주식회사 부장) 모친상 = 30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발인 1일, (062)670-0024

▲김지영(서울경제신문 정치부 기자) 조부상 = 29일, 성남중앙병원, 발인 31일, (031)799-5260

▲김재열(하이투자증권 울산본부장)·재천(한국캐릭터협회 자문위원)·재민(디티알양산 개발실장)·도형(신라모터스 대표) 부친상 = 30일, 김해한솔병원, 발인 1일, (055)321-6624

▲서교웅(GS건설 부장)·지인(동성초교사) 모친상, 김정원(부산항만공사 홍보팀장)·안철수(부산 수영구청 세외수입계장)·심기식(부산보훈병원 비뇨기과 과장) 장모상 = 30일, 좋은강안병원, 발인 1일, (051)610-9677

▲김시용(사업)·계용(김계용치과 원장) 모친상, 이재웅(전 코사리베르만 부사장)·오윤경(전 뉴질랜드 대사)·정종환(캐나다 거주) 장모상, 김정훈(영화감독) 조모상, 이지용(원자력병원 연구원)·오승준(SK그룹 부장)·오명준(리젠성형외과 원장)·정유진(제일기획 과장) 외조모상 = 29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일, (02)2258-5940

'축구행정가'로 변신한 박지성

AFC 사회공헌 분과위원 맡아


지난 4월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박지성과 함께하는 디아블로 와인 디너' 행사에 참가한 박지성. 뉴시스

박지성(34)이 축구행정가로의 변신을 시작했다.

대한축구협회는 30일 "아시아축구연맹(AFC)이 4년 임기의 각 분과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정해 통보해왔다"며 "박지성이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박지성이 축구행정기구에 몸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의 사상 첫 4강 신화와 2010년 남아공월드컵 원정 첫 16강 진출을 이끈 박지성은 2011년 1월 태극마크를 반납했고, 2014년 5월 은퇴 후 그라운드를 떠났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홍보대사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올해 4월엔 JS파운데이션 이사장으로 국제청소년축구대회인 수원JS컵을 주최했다.

대한축구협회의 추천을 받아 AFC 분과위원회 위원이 된 박지성은 축구를 통해 아시아 전역의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오상민 기자 golf5@

유럽 각국 프로리그 내달 킥오프

축구팬 다시 '잠못드는 밤'



프랑스·네덜란드 리그·EPL 8일 동시 개막전

손흥민이 뛰는 분데스리가, 15일 대장정 시작

세리에A는 23일, 프리메라리가는 24일 경기

선수 몸값·기업 후원 천문학적 돈잔치 후끈

'핵이빨' 루이스 수아레스(28·바르셀로나)의 감각적인 '칩슛'이 축구팬들을 매료시켰다. 수아레스는 상대 수비수의 실책을 놓치지 않고 골키퍼 키를 살짝 넘기는 절묘한 슈팅으로 첼시의 골네트를 흔들었다.

29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의 페덱스필드에서 열린 기네스 인터내셔널챔피언스컵 FC 바르셀로나와 첼시 FC의 경기 장면이다. 지난 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우승팀 바르셀로나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챔피언 첼시의 경기는 전 세계 축구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빅 매치를 보기 위해 2개월을 기다린 축구팬들은 무더위 속 골 폭풍에 열광했다. 축구 강국 스페인과 축구 종가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팀답게 마지막까지 박진감 넘치는 명승부를 연출했다. 결과는 전후반 2-2 동점. 승부차기까지 가는 전근 끝에 첼시의 승부차기 승리(4-2)로 마무리됐다.

사실 이날 경기의 승패는 중요하지 않았다. 개막 전 전력을 분석하고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것이 더 중요했다. 하지만 축구팬들은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어 눈을 뗄 수 없는 경기였다. 유럽은 이미 축구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유럽 각국의 프로축구 리그 개막을 앞둔 가운데 유럽 전역은 벌서부터 뜨거운 열기에 휩싸였다. 세계 최고를 자부하는 축구 기술, 용광로를 연상케 하는 서포터스의 열광적 응원이 어우러진 각국의 유럽 축구 리그는 천문학적인 머니게임으로 더욱 주목받는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선수들의 몸값과 그를 뒷받침하는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의 후원이 세계 최대 돈 잔치를 입증한다.

가장 먼저 개막 축포를 터트리는 곳은 프랑스 리그앙과 네덜란드 에레디비지에, 그리고 EPL로 8월 8일 개막한다. EPL은 저녁 8시 45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토트넘의 경기를 시작으로 10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20팀이 팀당 38경기를 치르며, 지난 시즌은 첼시가 26승 9무 3패(승점 87)로 맨체스터 시티FC(승점 79·2위)와 아스널FC(승점 75·3위)를 제치고 우승컵을 안았다.

리그앙은 같은 날 새벽 3시 30분 지난 시즌 우승팀 파리 생제르맹(24승 11무 3패·승점 83)과 릴 OSC의 경기를 시작으로 20팀이 팀당 38경기를 치른다. 에레디비지에는 역시 같은 날 새벽 3시 헤렌벤과 데 그라프샤프의 경기를 시작으로 18팀이 팀당 34경기를 치른다. 지난 시즌은 과거 박지성(34·은퇴)이 뛰었던 PSV 아인트호벤(29승 1무 4패·승점 88)이 우승했다.

손흥민(23·레버쿠젠)이 뛰는 분데스리가는 8월 15일 새벽 3시 30분 바이에른 뮌헨과 함부르크의 경기를 시작으로 개막한다. 18팀이 팀당 34경기를 치르며, 지난 시즌은 FC 바이에른 뮌헨(25승 4무 5패·승점 79)이 VfL 볼프스부르크(승점 69)를 승점 10점 차로 따돌리고 우승컵을 들었다.

이탈리아 세리에A는 8월 23일 AC 밀란과 피오렌티나 경기 외 9경기를 시작으로 대장정에 막이 오른다. 지난 시즌은 유벤투스FC가 26승 9무 3패(승점 87)로 AS로마(승점 70·2위)를 제치고 우승했다.

프리메라리가는 8월 24일 새벽 1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라스 팔마스의 경기 외 9경기를 시작으로 개막한다. 지난 시즌은 FC 바르셀로나(30승 4무 4패·승점 94)가 레알 마드리드(승점 92·2위)를 승점 2점 차로 따돌리고 우승 축포를 터트렸다.

오상민 기자 golf5@



지난 시즌 EPL을 정복한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AP뉴시스



메시-호날두… 11월 9일 라이벌전 예고

시즌 첫 '엘 클라시코'…두번째는 내년 4월 4일

최근 5년 전적 바르셀로나가 5승2무3패로 앞서

영원한 라이벌 리오넬 메시(28·FC 바르셀로나)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0·레알 마드리드)의 2015-2016시즌 첫 맞대결은 11월로 정해졌다.

2015-2016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는 8월 24일(이하 한국시간) 성대한 막을 올린다. FC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라이벌전(엘 클라시코)은 11월 9일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처음 열리고, 두 번째 대결은 2016년 4월 4일 캄프 누에서 펼쳐진다.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는 오랜 프리메라리가의 역사만큼 긴 시간 동안 치열하게 맞붙었다. 줄곧 리그 선두권을 다투는 두 팀은 직접적인 맞대결에서 팽팽히 맞섰다. 정규리그와 코파 델 레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등 230경기 동안 마드리드가 92회, 바르셀로나가 90회 승리했고, 48회 무승부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엘 클라시코 전적은 바르셀로나가 5승2무3패로 앞선다. 특히 2013-2014시즌 두 번의 경기에서 모두 승리했다.

지난 시즌 엘 클라시코에서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는 각자 홈에서 나란히 1승을 챙겼다.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첫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3-1, 캄프 누에서 열린 두 번째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2-1로 승리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두 경기 모두 한 골씩 넣었고, 메시는 득점 없이 도움을 기록했다.

이번 엘 클라시코에서 축구팬은 레알 마드리드의 자존심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지난 시즌 리그 우승과 함께 코파 델 레이,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모두 들어올리며 트레블을 달성했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무관에 그쳐 체면을 구겼다. 단, 호날두가 메시를 제치고 득점왕에 오른 것이 작은 위안이었다.

한편, 메시와 호날두는 UEFA 최고 선수상의 유력한 후보다. 10인의 후보에 속한 두 선수는 8월 12일 최종 후보 3인에 뽑힐 가능성이 크다.

정수천 기자 int1000@

강한만큼 더 싸다

EPL 3년 중계권료 9조3000억원 헉!



천문학적 중계권료

유럽리그 최고 중계권료·광고수익
프리메라리가는 구단 별 격차 커
이번 시즌 앞두고 배분구조 개편
분데스리가 7900억원 가장 적어

2015-2016시즌을 앞두고 유럽 각 구단은 막대한 금액을 들여 선수를 영입하며 지난 시즌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이를 받쳐주는 것은 물론 '돈'이다.

첼시는 2014-2015시즌 영국 프리미어리그(EPL) 1위에 올라 9900만 파운드(약 1793억원)를 받았다. 5년 만에 우승을 차지한 첼시는 중계권료와 광고수입 등을 합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기본수당 2196만 파운드(약 398억원) 외에도 시설사용료 1998만 파운드(약 362억원), 성적 수당 2489만 파운드(약 452억원), 해외방송 중계권 수익 2489만 파운드(약 450억원), 중앙 광고 수익 4392만 파운드(약 795억원)를 받았다.

20개 구단 가운데 최하위 성적을 거둬 2015-2016시즌 2부로 내려가는 퀸즈파크레인저스(QPR)는 6490만 파운드(약 1175억원)를 챙겼다. 첼시와 1.5배 차이 나지만, 다른 유럽 리그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이다. 리그 6위에 그친 리버풀은 9280만 파운드(약 1680억원)로 5위 토트넘(8880만 파운드)보다 많은 금액을 가져갔다.

이 같은 현상은 EPL의 수익분배 구조 덕분이다. EPL은 국내 방송 중계권료 수익의 50%를 기본수당으로 20개 구단에 동일하게 지급하고, 25%는 리그 순위에 따라 차등 분배한다. 남은 25%는 경기 중계 횟수에 따라 시설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한다. 또 해외방송 중계권 수익, 중앙 광고 수익 등도 20개 구단에 동일하게 나눠줬다. 각 구단이 지난 시즌 치열한 경기를 펼친 것에 대해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보상받은 것.

EPL구단은 2015-2016시즌에도 막대한 금액을 벌어들일 전망이다. 또 2월 11일 2016-2019시즌 중계권에 대해 스카이스포츠와 BT가 51억3600만 파운드(약 9조3030억원)에 계약해 각 구단의 수입은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독일 분데스리가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균등하게 중계권료 수익을 배분하지만 전체 금액에서 차이가 난다. 분데스리가의 중계권료는 4억3700만 파운드(약 7931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는 부유한 구단과 그렇지 않은 구단의 양극화가 심각하다. 이전까지 프리메라리가 각 구단은 개별적으로 방송국과 중계권 계약을 진행해 팀별로 중계권 수익 격차가 컸다. 총 7억5500만 유로(약 9703억원)에 달하는 중계권료 가운데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가 1억5000만 유로(약 1927억원) 이상을 가져갔다.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해 7억4600만 달러(약 8726억원)의 수익을 내며 구단 가치 32억6000만 달러(약 3조8132억원)로 15일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시장 가치가 높은 스포츠클럽 상위 50개 팀 1위에 올랐다. FC 바르셀로나는 시장 가치 31억6000만 달러(약 3조6962억원)로 뒤를 이었다. 두 팀은 중계권료, 광고 수익 등 막대한 금액을 벌어들였다. 이에 비해 적은 중계권 수입에 그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발렌시아 등은 선수 이적을 통한 수익으로 팀을 꾸려 나갔다.

그러나 이번 시즌을 앞두고 프리메라리가는 중계권 배분 구조를 개편했다. EPL과 마찬가지로 리그 전체가 중계권 계약을 체결해 수익을 배분한다. 중계권 총수입의 50%를 프리메라리가 20개 팀에 균등하게 분배하고, 나머지 50%는 최근 5년간 성적과 인기를 바탕으로 차등 분배한다. 이로써 각 구단의 수익 격차는 줄어들 전망이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여름이적 시장 더 뜨겁게 달군 '홈그로운' 제도

EPL, 선수 자격조건·인원 제한 강화
맨시티 스털링 등 3명 영입 1200억
"기량보다 몸값 비싸다" 지적 잇따라



라힘 스털링. 맨체스터 시티 트위터 캡처

맨체스터 시티는 올해 여름 이적 시장에서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영국 출신 선수 영입에 쏟아부었다.

라힘 스털링(20)은 4900만 파운드(약 890억원)에 맨체스터 시티와 계약하며 역대 영국 선수 가운데 가장 비싼 이적료를 기록했다. 맨체스터 시티는 스털링뿐만 아니라 파비안 델프(25)를 800만 파운드(약 145억원)에, 패트릭 로버츠(18)를 1100만 파운드(약 200억원)에 영입했다. 세 명의 선수를 영입하는 데만 6800만 파운드(약 1236억원)가 투자됐다.

맨체스터 시티가 이처럼 막대한 금액을 영국 선수에게 투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잉글랜드프리미어리그(EPL)는 2016-2017시즌부터 변경된 홈그로운 제도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선수의 국적에 상관없이 21세가 되기 전에 영국, 웨일스의 팀에서 3년 동안 시간을 보내면 홈그로운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변경 후에는 18세가 되기 전 3년간 영국, 웨일스 팀에서 뛰어야 한다. 또 1군 스쿼드에서 홈그로운 이 아닌 선수가 13명(기존 17명) 이하여야 한다. 특히 1군에 속한 12명의 홈그로운 선수 가운데 클럽에서 직접 키워낸 선수가 2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맨체스터 시티는 2015-2016시즌을 앞두고 변경된 제도에 대한 대비를 시작했다.

지난 시즌 맨체스터 시티의 25인 로스터 중 바뀐 홈그로운 제도를 충족시킨 선수는 단 6명이다. 가엘 클리쉬(30)와 데드릭 보야타(25)는 변경된 규정에 의해 홈그로운 자격이 사라졌다. 보야타와 미카 리차즈(27), 스콧 싱클레어(26), 프랭크 램파드(37), 제임스 밀너(29)를 떠나보낸 맨체스터 시티에서 새롭게 영입한 선수를 제외하면 홈그로운 자격을 갖춘 1군급 선수는 조 하트(28)와 리처드 라이트(38) 뿐이다.

결국 발등에 불이 떨어진 맨체스터 시티는 제 값보다 비싼 가격에 영국 선수를 영입했다. 스털링은 맨체스터 시티 유니폼을 입고 2015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 AS로마와의 경기에 처음 출전해 전반 3분만에 골을 터트렸다. 스털링은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이적료 역대 최고액을 기록할 수준은 아니다. 패트릭 로버츠도 아직 검증이 필요하다.

한편, 웨인 루니(30), 필 존스(23) 등 영국 국가대표급 선수를 보유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유망주 육성에 힘을 쏟은 아스널, 리버풀 등 EPL의 전통적인 팀들은 홈그로운 제도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 특히 지난 시즌부터 리키 램버트(33), 아담 랄라나(27) 등 영국 국적 선수를 영입한 리버풀은 이번 여름 이적시장에서 자유롭게 선수를 선택했다.

리버풀은 크리스티안 벤테케(25)를 3250만 파운드(약 590억원), 로베르토 피르미누(24)를 2900만 파운드(약 527억원)에 영입했다. 두 선수는 리버풀 역대 이적료 2위와 3위에 올랐다. 또한 리버풀은 제임스 밀너, 나다니엘 클라인(24), 대니 잉스(23), 조 고메스(18)를 영입해 홈그로운 제도에 완벽 대비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1540억 사나이' 베일… 역대 최대 이적료

호날두 1449억·수아레스 1359억 뒤이어

유럽프로축구 리그 선수들의 몸값은 끝도 없는 머니게임을 상징한다. 매년 리그 시작 전 축구팬들의 촉각을 자극하는 천문학적 이적료 소식은 리그 결과 못지않은 관심사다.

역대 해외축구 최고의 이적료를 기록한 선수는 가레스 베일(26)이다. 2012-2013시즌 44경기에서 26골을 기록한 베일은 2013년 여름 토트넘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면서 무려 8500만 파운드(약 1540억원)를 받았다.

2위는 2013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0)로 8000만 파운드(약 1449억원)의 초대형 계약을 성사시켰다.

3위는 2014 브라질월드컵 '핵이빨' 사건의 주인공 루이스 수아레스(28)로 리버풀에서 바르셀로나로 이적하면서 7500만 파운드(약 1359억원)를 받았다. 바르셀로나는 수아레스를 영입하면서 메시-수아레스-네이마르로 이어지는 MSN라인을 완성,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게 됐다.

4위는 콜롬비아의 훈남 스타 하메스 로드리게스(24)다. 2014 브라질월드컵에서 5경기 6골(2도움)을 기록하며 조국 콜롬비아를 8강까지 끌어올린 그는 지난해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면서 6300만 파운드(약 1141억원)를 기록했다.

네이마르 다 실바(23·바르셀로나)는 6150만 파운드(약 1114억원)로 5위에 올랐고, 앙헬 디마리아(27·맨유)는 5970만 파운드(약 1081억원)로 6위를 차지했다. 이 금액은 현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최고 이적료다.

오상민 기자 golf5@



역대 해외 축구 이적료 순위

순위	선수	소속	이적료(파운드)
1	가레스 베일	레알 마드리드	8500만
2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레알 마드리드	8000만
3	루이스 수아레스	FC 바르셀로나	7500만
4	하메스 로드리게스	레알 마드리드	6300만
5	네이마르 다 실바	FC 바르셀로나	6150만
6	앙헬 디마리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5970만
7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	FC 바르셀로나	5900만
8	히카르도 카카	레알 마드리드	5600만
9	에디슨 카바니	파리 생제르맹	5500만
10	라다멜 팔마오	AS모나코	5100만

www.childfund.or.kr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당신의 하루에는
미래가 보이나요?
누군가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일을 하지만 누군가는 더불어 행복하기 위한 일을 합니다.
우리의 미래, 어린이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일로 당신의 하루하루를 더욱 가치있게 만들어보세요.
어린이를 도울 때, 진짜 어른이 됩니다. 어린이를 돕는 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하세요.
정기후원 1588-1940

레버쿠젠 유니폼에 LG로고 딱!



손흥민

국내기업 유럽축구 마케팅

삼성전자, 첼시 FC 10년동안 후원
유럽매출 2배 쑥… 광고 효과 톡톡
LG는 레버쿠젠·스완지시티와 계약
현대차·한국타이어도 왕성한 후원

국내 기업의 유럽 축구 마케팅이 본격화됐다. 삼성전자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첼시 FC 후원으로 주목받자 LG전자는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엘 04 레버쿠젠을 후원하며 유럽 축구시장을 두들겼다.

지난 2005년부터 2014-2015시즌까지 첼시를 후원한 삼성전자는 2011년까지 유럽 지역 매출이 두 배 이상 늘었다. 첼시 연고지인 영국 내 매출은 후원 전인 2004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첼시는 올해 초 일본의 요코하마 고무와 5년간 후원 계약을 체결하면서 삼성전자와 첼시의 10년 관계는 끝을 맺었다.

삼성전자 못지않게 유럽 축구시장에 역점을 둔 기업은 LG전자다. LG전자는 2013년 8월부터 3년간 손흥민(23)이 소속된 레버쿠젠과 메인 스폰서 계약을 체결, 공격적인 유럽 축구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조건은 연간 500만 유로(약 64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LG전자는 레버쿠젠의 메인 스폰서로서 선수 셔츠에 LG 로고 또는 제품명을 광고하고, 홈구장인 바이아레나 내 LG로고 광고 및 제품 전시 등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레버쿠젠은 300여 팬클럽을 보유한 인기 구단으로 경기당 평균 2만8000명이 경기장을 찾는다. 1980년대에는 차범근(62)이 프로선수로서 마지막으로 활약한 팀이기도 하다.

LG는 또 지난 시즌 기성용(27)의 소속팀 스완지 시티와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다. LG는 스완지 시티의 홈구장인 리버티 스타디움 내에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을 설치해 전략 제품 마케팅 및 LG 브랜드 알리기에 열을 올렸다.

국내 타이어 기업의 유럽 축구 마케팅도 눈길을 끈다. 한국타이어는 유럽프로리그 상위팀 간 축구대회인 UEFA 유로파리그 공식 후원 계약을 3년 연장, 글로벌 브랜드 마케팅 활동을 강화했다. 한국타이어는 2012년, 유럽 최대 규모의 명문 축구 클럽 간 리그인 UEFA 유로파리그 공식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계약을 연장해 2017-2018시즌까지 공식 파트너로 활동하게 됐다. 이로써 한국타이어는 주력 시장인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마켓에서 한국타이어의 프리미엄 브랜드 입지를 다지게 됐다.

한국타이어는 대회 기간 동안 경기장 보드 및 LED광고판, 미디어월 등을 통해 브랜드 노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UEFA 유로파리그 리그 로고, 휘장 등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UEFA 유로파리그는 전 세계 200개 국가에서 평균 6900만명이 시청하는 유럽 축구 클럽 대항전의 양대 산맥 중 하나다.

프로야구 히어로즈의 메인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는 넥센은 지난해부터 유럽에서 스포츠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독일 분데스리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이탈리아 세리에A 등 유럽 프로축구 빅리그 구장에서 광고를 집행하는 한편 분데스리가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체코 아이스하키팀 블라다볼레슬라프에 대한 팀 후원도 진행한다.

현대자동차는 프랑스 올림피크 리옹과 2016년까지 유니폼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차는 프랑스에서 열리는 유로 2016 대회 전까지 리옹의 유니폼 가슴 부위와 선수단 버스에 대형 현대 로고를 삽입할 수 있다. 현대차는 또 리옹의 홈구장인 스타드제를랑에 브랜드 홍보 및 프로모션 행사 개최 권한도 확보했다.

오상민 기자 golf5@



첼시 14-15시즌 홈 유니폼



올림피크 리옹 15-16시즌 홈 유니폼



보르도 08-09시즌 홈 유니폼

바이에른 뮌헨, 코스타·비달 영입 '전력 보강'

분데스리가 '4시즌 연속우승' 노린다

바이에른 뮌헨은 더글라스 코스타(25)와 아르투로 비달(28)을 영입해 독일 분데스리가 4시즌 연속 우승을 노린다.

지난 시즌 뮌헨은 분데스리가 우승컵을 차지했지만 포칼 4강에서 도르트문트에 패하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강에서도 FC 바르셀로나(스페인)에 무릎 꿇으며 트레블 달성 기회를 놓쳐 아쉬움을 더했다. 그러나 리그 3연속 우승을 달성한 뮌헨은 공격력과 조직력을 강화해 이번 시즌에도 여전히 유력한 우승 후보로 올라섰다.

뮌헨은 2015-2016시즌을 앞두고 열린 여름 이적시장에서 바스티안 슈바인슈타이거(31)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떠나보냈다. 이어 샤흐타르 도네츠크에서 코스타를 3000만 유로(약 384억원)에 영입하고, 유벤투스에서 아르투로 비달을 4000만 유로(약 512억원)에 데려와 전력을 보강했다.

코스타는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발렌시아(스페인)와의 평가전에서 인상적인 드리블 돌파를 선보여 존재감을 과시했다. 측면과 중앙을 휘저으며 뮌헨의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재활 중인 아르연 로번(31)과 프랭크 리베리(32)의 빈자리를 완벽히 메웠다. 이로써 뮌헨은 정규 리그에서 로번과 리베리가 빠진 비상 상황에 대처할 옵션이 추가됐다. 펩 과르디올라(44) 감독도 발렌시아전이 끝난 후 만족감을 감추지 않았다.

비달은 독일 분데스리가 경험이 충분한 선수다. 그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바이엘 레버쿠젠에 소속돼 2010~2011 시즌에는 33경기에 출전해 10골 12도움으로 맹활약을 펼쳤다. 비달은 강력한 수비력도 갖췄다. 그는 지난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A에서 28경기 동안 87회의 태클에 성공했다. 사비 알론소(34·60회)와 바스티안 슈바인슈타이거(32회), 필립 람(32·15회)보다 뛰어난 기록이다. 공격적인 성향을 지닌 비달의 합류로 사비 알론소는 자신의 특기인 패스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손흥민 '차붐 전설' 깰까? 한국인 최다골 도전

〈한 시즌 19골〉

류승우와 함께 '코리안 듀오' 활약 기대
'부상 복귀' 기성용 프리시즌 완벽소화
김진수, 친선전 골맛 '주전 굳히기' 나서

유럽 각국의 프로축구 리그 개막이 다가오면서 한국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단연 손흥민(23·레버쿠젠)이다.

독일 분데스리가 6번째 시즌을 맞는 손흥민은 올 시즌 다시 한 번 차범근(62)의 최다골 대기록에 도전한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17골을 몰아넣으며 차범근의 한국인 최다골(19골)에 2골 차로 근접했지만, 아쉽게 실패로 돌아갔다. 손흥민은 앞으로 남은 기간 몸 상태를 끌어올린 뒤 포칼컵 1라운드를 시작으로 새 시즌에 돌입한다.

레버쿠젠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는 류승우(21)의 활약에도 기대감이 크다. 로저 슈미트 감독은 류승우를 측면 자원으로 낙점해 시험 가동하고 있다. 슈미트 감독의 류승우에 대한 기대감은 크다. 아직 1부 리그 풀타임을 뛴 적이 없지만 손흥민의 확실한 대체자로 여기고 있어 코리언 듀오의 활약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기성용

무릎 수술을 성공리에 마친 기성용(27·스완지 시티)의 몸 상태도 관심사다. 기성용은 지난 5월 13일 영국 런던에서 오른쪽 무릎 뼛조각 제거 수술을 받았다. 이후 국내에서 한 달간 휴식과 재활을 병행한 기성용은 지난달 27일 영국으로 출국해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다.

기성용은 지난 시즌 8골(1도움)을 올리며 팀의 한 시즌 최다 승점(승점 56)과 최고 순위(8위)를 이끌었다. 프리시즌을 통해 드러난 기성용의 몸 상태는 긍정적이다. 8월 2일 데포르티보와 마지막 리허설을 마친 뒤 8월 9일 디펜딩 챔피언 첼시와 시즌 개막전을 치를 예정이다.

독일 분데스리가 호펜하임의 주전 자리를 꿰찬 김진수(23)는 빠른 적응력이 돋보인다. 대표팀 일정으로 공백이 많았지만 마르쿠스 기스돌 감독의 신임은 여전하다. 지난달 13일 주젠하우젠(6부 리그)과의 친선전에서는 골을 터트리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시즌 막바지 중앙 미드필더에서 레프트백으로 복귀한 박주호(28·마인츠05)는 수비 안정감을 더하며 마틴 슈미트 감독의 신임을 얻었다. 기초군사훈련도 마친 상태여서 심리적 안정감도 찾았다.

반면 이청용(27·크리스탈 팰리스)과 지동원(24·아우크스부르크)은 무한경쟁에 뛰어들었다. 이청용은 지난 2월 런던 연고 크리스털 팰리스로 이적하며 2년 6개월 만에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했다. 그러나 전 소속팀 볼턴과 같은 확실한 주전은 아니다. 이청용은 최근 오른쪽 날개는 물론 중앙 미드필더로도 뛰고 있다. 주장 마일 예디낙,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적한 요한 카바예 등 수준급 선수들과의 주전 경쟁이 불가피한 상태다.

오상민 기자 golf5@

HYUNDAI DEPARTMENT STORE 압구정본점 · 무역센터점 · 목동점 · 대구점

ANDERSON
ANDREA D'AMICO
BULLETTO
CA4LA
CYPRIS
ESPERANTO
FIVE WOODS

L'DONOVAN
MAISON de HIROAN
MSPC
ORCIANI
OROBIANCO
RIMOWA
STEFANO MANO

ROYAL MILE
그 남자의 시선이 머무는 곳, 로열마일
프리미엄 남성잡화 편집숍

세븐에이트

동성제약

좋은 건...

그냥 좋은 거잖아요?

“전, 오늘 세븐에이트 해요”

세븐에이트 전속모델 | 탤런트 차화연

편하고 부담없이 자연스러운 느낌 – 세븐에이트

새치커버는 물론 스타일리시한 헤어컬러까지~ 최신 트렌드에 맞는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로 아름다움을 찾아드립니다.

● 4호 (자연스런 밤색) ● 5호 (진한밤색) ● 6호 (자연스런 갈색) ● 7호 (자연스런 흑갈색)

스타일에 따라 용도에 맞게 골라 쓰세요

| 세븐에이트 헤어 마스카라 | 세븐에이트 무향료 칼라크림 | 세븐에이트 편한염색
| 세븐에이트 실키 칼라크림 | 세븐에이트 쉬운염색 | 세븐에이트 흑채 커버 스프레이

| 소비자상담실 | 080-547-3571 | 세븐에이트는 가까운 약국, 마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본 브리티시 여자오픈

올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4번째 메이저 대회인 브리티시 여자오픈(총상금 300만 달러, 약 35억원)이 전 세계 골프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30일(이하 한국시간) 스코틀랜드의 트럼프 턴베리 리조트(파72)에서 개막한 이 대회에서 박인비(27·KB금융그룹), 리디아 고(18·뉴질랜드), 스테이시 루이스(30·미국) 등 톱랭커들이 모두 출전, 진정한 '골프 여제'를 가리기 위한 진검승부가 이어지고 있다. 1994년부터 LPGA 투어로 편입된 이 대회는 애니카 소렌스탐(45·스웨덴), 캐리 웹(41·호주), 로레나 오초아(34·멕시코) 등 한때 세계 골프계를 주름잡던 스타들이 우승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 시즌 LPGA 투어의 하이라이트로 손꼽히는 이번 대회 관전 포인트를 숫자로 정리해봤다.

태극낭자 12번째 승전고를 울려라

박인비 '커리어 그랜드슬램' 세계 골프팬 주목… 리디아 고·김효주 등 톱랭커 총출전



왼쪽부터 김세영, 김효주, 박인비, 양희영, 고진영, 이정민

1 우선 박인비의 첫 우승이 기대된다. 박인비는 2008년 US여자오픈을 비롯해 통산 15승 중 6번의 메이저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지만 브리티시 여자오픈 우승컵과는 인연이 없었다. 만약 이 대회 정상에 오른다면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된다.

2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투어에서 뛰고 있는 신지애(27)는 이미 두 차례의 우승 경험이 있다. 2008년 이 대회에서 첫 우승했고, 2012년 두 번째 우승을 차지, 브리티시 여자오픈에 유난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신지애는 2013년부터 LPGA 투어 시드를 반납,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않는다.

3 역대 한국인 우승자는 3명이다. 브리티시 여자오픈이 메이저 대회로 승격됐던 2001년 박세리(38·하나금융그룹)가 첫 우승을 차지했고, 2005년 장정(35·은퇴)이 두 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신지애는 한국인 세 번째이자 네 번째 브리티시 여자오픈 챔피언이다. 우승컵을 가장 많은 가져간 선수는 캐리 웹(41·호주, 1995·1997·2002)과 셰리 스테인하우어(53·미국, 1998·1999·2006)로 각각 세 차례씩 우승했다.

6 가장 많은 우승컵을 가져간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2006년 에밀리 클레인(41)부터 지난해 모 마틴(31)까지 총 6번의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한국이 4회, 호주와 스웨덴은 각각 3회씩 나눠가졌다.

12 한국 선수들은 시즌 12번째 우승을 노린다. 개막전 코츠골프 챔피언십(최나연)부터 마라톤 클래식(최운정)까지 11승을 기록 중인 한국 여자선수들은 2006년과 2009년 각각 11승을 올려 시즌 최다승을 기록했다. 만약 이번 대회 우승을 차지한다면 역대 한 시즌 최다승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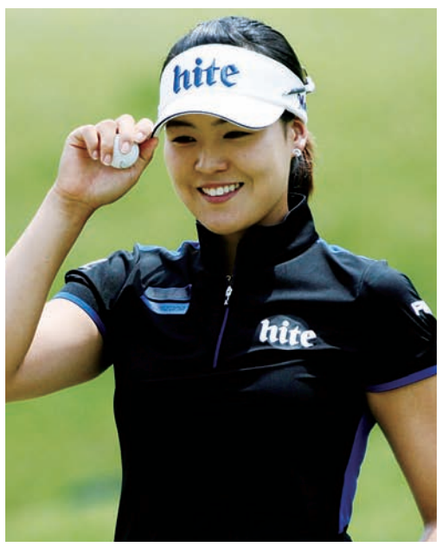
19 최저타 우승 기록은 캐리 웹(1997)과 카렌 스터플스(42·잉글랜드·2004)가 기록한 19언더파다. 신지애는 2008년 18언더파로 우승했고, 장정(2005)과 청야니(2011)는 각각 16언더파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반면 1998년 챔피언 셰리 스테인하우어는 4오버파로 우승해 가장 저조한 스코어로 기록되고 있다. 모 마틴은 지난해 1언더파로 우승을 차지했다.

21 이번 대회 144명의 출전 선수 중 한국 선수는 21명이다. 미국(35명) 다음으로 많은 선수가 참가한다. 올 시즌 우승 경험이 있는 박인비, 김효주(18·롯데), 김세영(22·미래에셋), 양희영(26) 등 LPGA투어 활약 18명이 출전하고 전인지, 고진영(20·넵스), 이정민(23·비씨카드) 등 3명은 국내 투어의 명예를 걸고 출전한다.

오상민 기자 golf5@

"훨훨 나는 전인지, 대견해요"

'꿈나무 육성' 후원했던 석교상사 "프로 데뷔 직접적 인연 멈췄지만… 대선수로 성장하는 모습에 보람"



전인지(21·하이트진로)가 훨훨 날아올랐다. 전인지는 지난 5월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투어 살롱파스컵 우승에 이어 US여자오픈과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을 차례로 우승하며 세계 3대 투어 메이저 대회를 석권했다. 그런 전인지를 누구보다 대견스러운 눈으로 바라본 사람이 있다. 일본 브리지스톤골프 용품을 수입·판매하는 석교상사 이민기 대표다.

이 대표는 전인지가 프로 데뷔 전까지 꿈나무 육성 차원에서 용품 일체를 후원했다. 당시 국가대표였던 전인지는 투어스테이지(현 브리지스톤골프) 용품을 사용하며 아마추어 무대를 호령했다. 그러나 전인지는 프로 데뷔와 함께 핑골프 수입원인 삼양인터내셔날과 계약, 석교상사와의 굵고 짧았던 인연에 마침표를 찍었다.

전인지는 프로 데뷔 첫 해였던 2013년 김효주(20·롯데)에게 신인왕을 내줬지만 대선수로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다. 석교상사는 전인지의 대항마를 물색했다. 주인공은 지난해 KLPGA투어에 뛰어든 고진영(20·넵스)이다. 석교상사의 작전은 주효했다. 고진영은 올 시즌 전인지의 대항마로 성장하며 상반기에만 3승을 올렸다.

그러나 고진영은 전인지를 뛰어넘지 못했다. 두 선수는 올해 초 시즌 첫 우승컵을 놓고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 올해 두 번째 대회 삼천리 투게더 오픈이 그 무대다. 전인지는 첫 날 2언더파를 쳐 고진영에 한 타 앞섰고 둘째 날은 나란히 3언더파를 기록, 1위와 2위로 최종 3라운드를 맞았다. 하지만 악천후로 3라운드가 취소되면서 두 선수의 마지막 승부는 펼쳐지지 않았다. 결국 고진영은 경기를 해보지도 못한 채 전인지에게 우승컵을 내줬다.

석교상사를 떠나 승승장구하는 전인지가 이 대표의 눈에는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 석교상사의 에이스 고진영의 우승 때마다 찬물을 끼얹은 전인지가 얄밉게 보일 법도 하다. 하지만 이 대표의 눈에 비친 전인지는 늘 대견스러운 존재다. 석교상사를 거쳐 대선수로 성장해가는 모습에 잠시나마 후원했던 보람을 느낀다.

오상민 기자 golf5@

100억대 '판 커진 KLPGA' 하반기 부상 주의보

KLPGA투어는 8월 7일부터 하반기 첫 대회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총상금 5억원)를 시작으로 총 12개 대회를 치른다.

약 100억원(외환-하나은행 챔피언십 포함)의 상금이 걸린 하반기 투어는 한화금융 클래식(총상금 12억원)을 비롯해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총상금 8억원) 등 굵직한 대회가 많다. 특히 9월은 4개 대회에서 30억원의 상금이 쏟아질 예정이어서 하반기 투어 판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선수들의 체력 유지와 부상이다. 최근 수년 사이 대회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선수들의 체력관리와 부상이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올 시즌 상위권 대부분의 선수들은 크고 작은 부상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대표적인 선수가 여왕 자리를 놓고 자존심 경쟁을 펼치고 있는 전인지(21·하이트진로)와 고진영(20·넵스)이다.

전인지는 지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메이저 대회 US여자오픈을 비롯해 싱가포르와 일본 등을 오가는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해냈다. 여기에 왼쪽 발목 인대 일부가 파열되는 부상까지 겹쳤다. 문제는 발목 부상으로 인해 허리와 어깨까지 통증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5 KLPGA투어 하반기 일정

기간	대회명	총상금
8월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5억원
	보그너-MBN 여자오픈	5억원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8억원
9월	한화금융 클래식	12억원
	이수그룹 KLPGA 챔피언십	7억원
	KDB 대우증권 클래식	6억원
	YTN-볼빅 여자오픈	5억원
10월	박세리 인비테이셔널	6억원
	KEB-하나은행 챔피언십	200만 달러
	KB금융 스타챔피언십	7억원
	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	5억원
11월	ADT 캡스 챔피언십	5억원
	조선일보-포스코 챔피언십	7억원

초정탄산수 용평리조트 오픈에서 시즌 3승을 달성한 고진영은 양쪽 무릎 부상과 어깨 부상에 시달렸다. 물리치료를 통해 통증이 완화된 상태지만 아직 양 무릎이 자유롭지 못하다.

올 시즌 우승이 없는 허윤경(25·SRI)도 부상과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여자오픈에서는 무릎 통증으로 인해 기권했고,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에서는 고질적인 허리 통증으로 경기를 중도에 포기했다.

오상민 기자 golf5@



요즘 예능·드라마는 Ctrl C + Ctrl V







위쪽부터 '어스타일포유', '슈퍼맨이 돌아왔다', '너를 기억해'. 뉴시스

'레이디 액션' '너를 기억해' '가면' 등 장르 막론하고 표절시비 잇따라
방송사 "순수 창작물" 해명…"기준 불분명하고 제작진 행태도 문제"

최근 들어 방송사 프로그램 베끼기와 표절 논란이 거세다. 드라마와 예능 등 장르를 막론하고 표절 논란이 크게 늘고 있다. 방송가의 표절 논란이 증폭되면서 조대현 KBS 사장이 직접 나서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최근 KBS의 '어스타일포유', '레이디 액션'부터 '마마도', '슈퍼맨이 돌아왔다', '불후의 명곡'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프로그램이 다른 예능 프로그램 베끼기 논란에 휩싸였다. '레이디액션'은 MBC의 '진짜 사나이-여군편', '마마도'는 tvN의 '꽃보다 할배' 그리고 '불후의 명곡'은 MBC '나는 가수다'의 포맷과 구성 방식이 비슷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때마다 KBS는 포맷의 보편성과 프로그램의 특수성을 들어 표절 의혹을 피해 갔지만, 창의성 없는 프로그램 제작이라는 비난은 피하지 못했다.

예능 프로그램의 표절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SBS '스타킹' 제작진이 지난 2009년 출연자에게 일본 TBS방송 프로그램을 따라 하라고 지시한 뒤 이를 방송에 내보내 중징계를 받는 등 오랫동안 방송의 표절과 베끼기 논란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드라마 역시 표절과 베끼기 논란이 크게 늘고 있다. 1999년 MBC 드라마 '청춘'이 일본 드라마 '러브 제너레이션' 표절 판정으로 방송이 중단됐고, 2001년 방송된 '여우와 솜사탕'은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를 표절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했다. 드라마 표절 의혹 제기는 최근 들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요즘 시청자와 만나고 있는 KBS 2TV 드라마 '너를 기억해', SBS 드라마 '가면'이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중국 한류를 재도약시킨 '별에서 온 그대', 젊은층에게 관심을 끈 '킬미 힐미' 등 수많은 드라마가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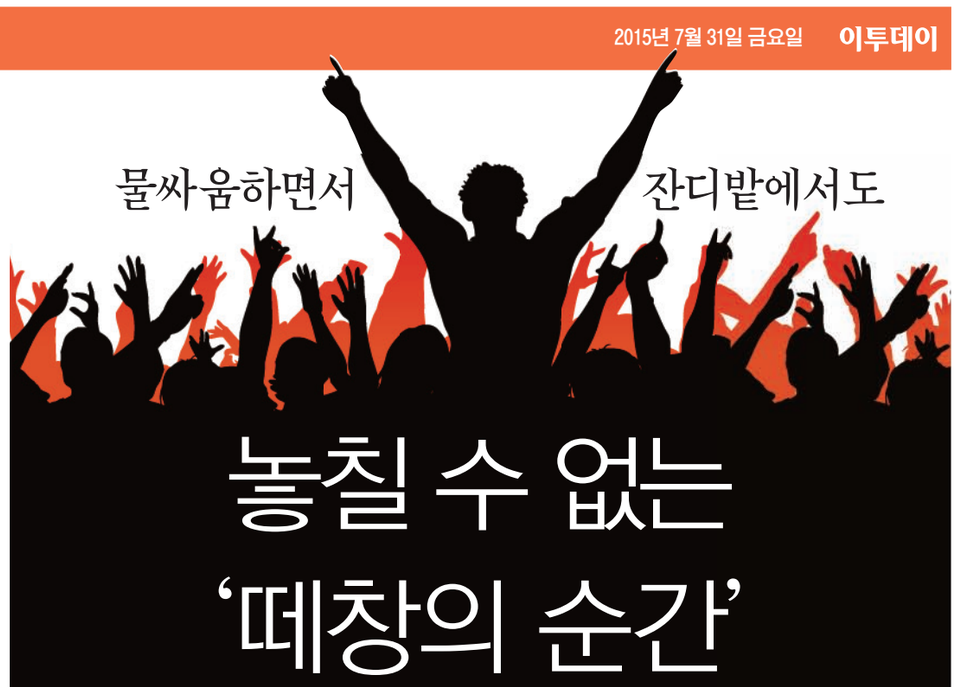
하지만 표절 의혹 제기만 있고 명확한 표절 판정은 나지 않은 상황이다. 표절 주장을 펼치는 측에서는 내러티브와 스토리, 플롯, 캐릭터의 일부 유사성을 들어 표절이라고 주장하고 드라마 제작사와 방송사는 플롯의 전형성이나 드라마의 독창성을 내세워 표절 의혹을 일축한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너를 기억해'의 권기영 작가는 "그 어떠한 소스에 대해 들은 바 없다"며 표절 의혹을 일축했다. 제작사 골든픽쳐스 측 역시 "'가면'은 최호철 작가의 순수 창작물"이라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예능 프로그램과 드라마의 표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표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표절 의혹 제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창의성 부족은 물론, 하늘 아래 새로운 것 없다는 식으로 인기 프로그램을 모방하는 제작진의 안일한 행태도 표절 논란을 증폭시키는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놓칠 수 없는 '떼창의 순간'

하반기 이색 페스티벌 풍성
'펜타포트' 서태지 등 막강 라인업
'워터밤' 빅블라스트 특수효과
'썸데이' 혁오·10cm 인디 총출동
'멜로디 포레스트' 실력파 모여

이색적인 콘셉트를 표방하는 음악 페스티벌이 대중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음악 페스티벌은 7월에 이르면서 정점에 도달했고, 9~10월에 대거 몰려 있는 공연을 앞두고 열기는 고조되고 있다. 만약, 무더위를 피해 휴가를 떠나지 못했다면, 음악이 어우러진 페스티벌에 참가해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 버리는 것은 어떨까.

7월 페스티벌의 백미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안산시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내 페스티벌파크에서 열린 '안산M밸리록페스티벌'이다. 이 공연에는 노엘 갤러거, 푸 파이터스, 갤럭시 익스프레스, 술탄 오브 더 디스코, 이디오테잎, 데드마우스 등 국내외 뮤지션 52개 팀이 참가해 장관을 이뤘다. 3일간 공연에 참여한 관객 수만 8만 5000여 명. 관객들은 좀처럼 만나기 어려웠던 해외 뮤지션을 가까이서 보고, 그들의 음악을 라이브로 들었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공연은 끝났지만 자신의 블로그나 SNS에 공연의 감동을 전하려는 네티즌들도 줄지 않고 있다. '안산M밸리록페스티벌'을 관람하지 못했다고 해도 아쉬워 말라. 또 다른 공연들이 우리를 기다린다.

'안산M밸리록페스티벌'과 라이벌은 단연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다. 올해 10주년을 맞는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오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인천광역시 송도 달빛축제공원(펜타파크)에서 열린다.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공연을 앞두고 스타들의 라인업을 공개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번 공연에는 스콜피온스(SCORPIONS), 더 프로디지(The Prodigy), 더 크립스(The Cribs), 스완키 덩크(Swanky Dank) 등과 함께 서태지, 디아블로, 몽니, 잠비나이, 안녕바다, 메써드, 몽키즈, 연남동덤앤더머, 화난곰, 트래쉬, 래리스피자 등이 참여해 '안산M밸리록페스티벌'의 열기를 잇는다.

이색적인 페스티벌을 찾는다면 '워터밤 2105'가 제격이다. 신개념 페스티벌을 표방한 '워터밤 2015'는 아티스트와 관객이 블루팀과 레드팀으로 나뉘어 물싸움을 하면서 공연도 즐길 수 있는 콘셉트로 오는 8월 1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종합운동장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공연 제작사는 관객들이 워터 캐논, 빅 블라스트 등 특수 효과로 스릴 넘치는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고, 특수 제작한 360° 회전 스테이지를 통해 어디서도 아티스트의 공연을 볼 수 있게 했다. 브라질 출신 디제이 트롭킬라즈(Tropkillaz)를 비롯해 박명수, 구준엽, 프란츠, 인사이드 코어, 킹맥, 맥시마이트, 준코코, 반달락, 데이 워커, 팔로알토, 비프리, 바스코, 천재노창, 오케이션, 레디, 허클베리 피, 락바텀, 지조 등이 참여한다. 페스티벌의 피날레는 스컬&하하와 DJ DOC가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인디 공연에 심취하고 싶다면 '썸데이 페스티벌'을 선택해라. 오는 9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서울 난지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썸데이 페스티벌'에는 혁오, 정엽, 리쌍, 휘성, 에피톤 프로젝트, 10cm, 장기하와 얼굴들, 데이브레이크, 몽니, 이디오테잎, 옥상달빛, 선우정아 등이 참여한다.

자연에서 음악을 만끽하고 싶다면 '멜로디 포레스트 캠프'를 추천한다. '멜로디 포레스트 캠프'는 오는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경기도 가평군 자라섬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는 유희열, 윤종신, 김연우, 아이유, 양희은, 윤하, 조규찬&해이, 미스틱 주니어(박재정, 장재인, 김예림, 퓨어킴, 조형우), 로엔트리 레이블(윤현상, 써니힐) 등 실력 있는 뮤지션들이 대거 참여한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



인터뷰 배우 유아인

'베테랑'서 전형적 악역 내면연기 없어 쉬웠죠



최근 촬영 '사도'랑 표현방식 극과 극
서른살 되니 로맨틱코미디 하고 싶어

배우 유아인이 영화 '베테랑'에서 안하무인 유아독존 재벌 3세로 변신한다. 지난해 드라마 '밀회'를 통해 청춘 스타의 애절함을 연기한 유아인은 '베테랑'에서 세상 무서울 것 없는 비열한 카리스마를 내뿜는다.

이번 연기 변신에 대해 유아인은 "대단한 각오는 아니었다. '이런 얼굴은 새롭죠?'라는 느낌으로 연기했다"며 "전형적 악역 이미지의 캐릭터다. 신선하게 만들어 가면 재밌을 것 같았다. '완득이', '깡철이'에서 보여준 유아인의 선하고 수더분한 이미지에 반해 새로울 수 있겠다는 기대를 했다"고 말했다.

유아인은 20대 청춘을 대표하는 스타로 불렸다. '밀회'에서 '베테랑'으로 넘어오는 동안 그의 나이는 어느덧 서른 살이 되었다. 그는 "'밀회'로 20대의 방점을 찍고 싶었다. '베테랑'을 하면서 '밀회'가 전작으로 있어줘서 마음이 편했다. 남자 배우가 할 수 있는 장르가 의외로 다채롭지 않다. 정형화된 틀 속에서 제 스타일로 연기해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유아인은 올해 '베테랑'에 이어 사극 대작 '사도'로 관객과 소통한다. 조선 영조 때 사도세자의 비극적 사건을 다룬 작품으로 송강호와 호흡을 맞췄다. 유아인은 '베테랑'과 '사도'에 대해 "캐릭터 표현 방식이 극과 극이다. '사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면 연기다. '베테랑'은 어떤 캐릭터도 내면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감정 연기가 더 쉽다"고 말했다.

"앞으로 어떤 장르를 해 보고 싶나?"라는 질문에 유아인은 "이제 와서 로맨틱 코미디를 해 보고 싶다"고 말하며 웃었다. 그는 "'해피 페이스북'이란 작품의 첫 촬영을 시작했다. 최지우, 이솜, 강하늘과 함께 하는 진짜 '로코'다. 철없는 한류스타 역으로 나온다"고 답했다.

한국 범죄오락액션의 베테랑 류승완 감독과 황정민, 유아인, 유해진, 오달수 등 개성과 베테랑 배우들의 결합, 그리고 재벌 3세를 쫓는 베테랑 광역수사대의 다채로운 활약을 담아낸 영화 '베테랑'은 8월 5일 개봉한다.

글/최두선·사진/최유진 기자 sun@

100세 시대 '인생 2막' 책 속에서 길 찾는다



출판계 시니어 시장 주목

"오늘의 노인은 어제의 노인과 다르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 버니스 뉴가튼이 한 말이다. 과거와 달리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면서도 경제력을 갖춘 시니어가 증가하면서 출판가도 '시니어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이투데이가 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상의 독자 도서 구매 비중은 모두 증가했다. 교보문고는 50대 이상의 독자층이 2014년 7월 13.4%에서 2015년 7월 14.2%로 0.8%포인트 증가했고, 예스24도 각각 2014년 상반기와 비교해 2015년 상반기에 0.1%포인트 증가했다. 증가폭은 크지 않지만 교보문고와 예스24 모두 10~20대가 동기간 대비 도서 구매 비중이 모두 감소한 것과 비교했을 때 50세 이상의 독자층이 늘어난 것은 의미가 크다.

'서해문집', '나무생각', '어른의 시간' 등의 출판사는 4월부터 시니어 전문 블로그 '평생현역학교'(blog.naver.com/senioreye)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해당 블로그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기에 접어들면서 인생 2막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하는 시니어층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들과 관련된 신간 도서 소개와 건강, 교육, 취업, 창업, 음식, 여행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나무생각 양미애 편집부장은 "2015년 초에 출간된 '퇴근 후 2시간'을 작업하면서 시니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작업이 출판계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마침 출판사 어른의 시간의 대표인 한기호 소장님의 제안에 나무생각과 서해문집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미 해외의 사례를 통해 시니어 출판 시장을 전망하고 이 길을 주목해 온 출판사들도 존재한다. 출판사 나무생각은 2001년 '불량 노인이 되자'를 시작으로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58', '고령사회 2018,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라', '불량하게 나이 드는 법' 등 시니어를 위한 다수의 책을 꾸준히 발간해 왔다. 양 편집부장은 "그동안 출판 시장에서 거의 소외된 시니어 세대를 위한 책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해 시니어 출판 분야에 토대를 닦은 일본의 사례를 눈여겨봤다"며 "그래서 남들보다는 좀더 일찍 시니어를 위한 책들을 출간해 왔다"고 말했다.

출판사 여행마인드는 20년 가까이 여행 잡지를 발간해 온 대표의 경험을 살려 일찌감치 '자유여행 길라잡이'를 슬로건으로 시니어들의 자유배낭여행 서적들을 출간했다. 최근 시니어층의 해외 자유배낭여행이 활성화하면서 자신의 여행 경험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하려는 시니어 아마추어 여행 작가들이 증가, 여행마인드에도 출간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여행마인드 신수근 대표는 "시니어 여행 작가들은 인생의 경륜이 깊을 뿐만 아니라 경제력 측면도 뒷받침되기 때문에 일 년에 서너 번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이를 책으로 펴내기까지의 여러 어려움을 감당해 낼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시니어 여행작가의 서적들이 꾸준히 출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국내 시니어 출판의 미래에 대해 신 대표는 "시니어층을 주 타깃으로 하는 출판물에 시니어 작가가 적극 참여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볼 때 시니어 출판의 미래는 밝다"며 "그러나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시니어 작가군의 공급이 필요하다. 작가 발굴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정의 교육 과정과 프로그램이 먼저 가동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50대 책 구매 20대보다 많아
시니어 블로그 '평생현역학교'
건강·창업·여행 등 정보 제공
'불량 노인' '배낭여행' 잇따라
시니어 여행작가 서적도 출간



불량하게 나이 드는 법 | 고령화사회 2018 | 나홀로 지구촌 오지여행 | 내 맘대로 자유여행 | 불량노인이 되자 |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58

새로 나온 책



파수꾼
하퍼 리 지음·공진호 옮김 / 열린책들 / 1만2800원

하퍼 리의 소설 '파수꾼'은 '앵무새 죽이기'의 전작이자 후속작이다. 하퍼 리는 '파수꾼'을 집필하다 테이 호호프 편집자의 조언에 따라 어린아이의 일인칭 목소리로 '앵무새 죽이기'를 탄생시켰다. 그는 '앵무새 죽이기'로 1961년 퓰리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14년 11월 하퍼 리가 사망한 이후 집필 55년 만에 발견된 '파수꾼'은 '앵무새 죽이기'의 주인공이 20년이 지나 성장했을 때의 이야기다.



너무 일찍 철들어버린 청춘에게
장석주 지음 / 21세기북스 / 1만4800원

'너무 일찍 철들어버린 청춘에게'는 시인 장석주가 2007년부터 연재해 온 '장석주의 시와 시인을 찾아서'를 엮은 시집이다. 총 90여 편의 연재물 중 사랑과 이별, 청춘을 노래한 시 30편을 묶었다. 신경림의 '가난한 사랑 노래', 기형도의 '빈집', 김용택의 '선운사 동백꽃' 등이 수록돼 있다. 이 책은 또 읽는 이에게 삶에 대한 통찰과 가슴 깊은 위로를 전해준다.

정수천 기자 int1000@

'中서남부 자연·문화 유적답사기' 지은 김종원 작가

와~ 할아버지·할머니 멋쟁이! "손자에게 이 말 들으려 책 내"

아내 파킨슨병 얻고 여행길
"조금이라도 정신 맑을 때
여러나라 보여주고 싶었죠"
사진 직접 찍어… 내용 생생



"또 떠나야지요. 마음 내키는 곳으로요…." '중국 서남부 자연·문화 유적답사기'를 지은 김종원 작가의 말이다.

김종원 작가는 고대 금속유물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공학박사다. 그런데 20여년 전 아내가 파킨슨병 확진을 받자 아내와 함께 첫 여행지인 인도로 배낭여행을 떠났다. 그는 "조금이라도 잘 걷고 정신이 맑을 때, 세계의 여러 나라를 보여줘야겠다"고 결심했다.

중국과 인도, 네팔 등을 비롯해 동남아, 유럽을 여행한 김종원 작가는 글을 남기기 시작했다. 그는 "여행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라며 "연암 박지원 선생 같은 경우 글을 안 남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명해지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제 여행기를 남기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됐지요"라고 말했다. 그는 "손자에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멋쟁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라며 웃었다.

그는 "공학 전공자라 글이 매끄럽진 않아요. 하지만 쓰다 보니 날로 발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라며 겸손해했다. 그러나 그의 책에는 생동감 있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가 사진과 함께 담겨있다. 사진은 대부분 김종원 작가가 직접 찍은 것이다. 그는 "많은 분들이 사진을 잘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하죠"라고 덧붙였다.

책에 담긴 정성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다. 그는 "책을 완성하기 위해 구이저우성(귀주성)을 세 번 갔다왔어요. 중국국가여유국 서울지국의 초청을 받아 여행도 하고, 개인적으로 가기도 했지요. 책에 쓰려고 하니 전에 보이지 않던 것도 보이더라고요"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미처 몰랐던 것도 새롭게 보이죠"라고 말했다.

김종원 작가는 책이 출간된 후 더 바빠졌다. 그는 "집을 짓고 나서도 부족해 보이는 것이 있는 것처럼 책을 완성하고 나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요. 사진 찍고 내용을 보완해서 구성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요"라며 "차마고도 같은 경우도 사진과 내용 등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배낭여행으로 한 번 더 갔어요. 그곳에 계시던 분이 '두 번 오는 사람이 없다'며 놀라기도 했어요"라고 설명했다.

최근 아내를 간호하며 시간을 보내는 김종원 작가는 "젊을 때는 멀리 다녔지만, 이제는 동남아를 못 벗어나겠어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여행을 준비하고 있어요. 마음이 내키는 곳으로 아내와 함께 떠날 생각입니다"라며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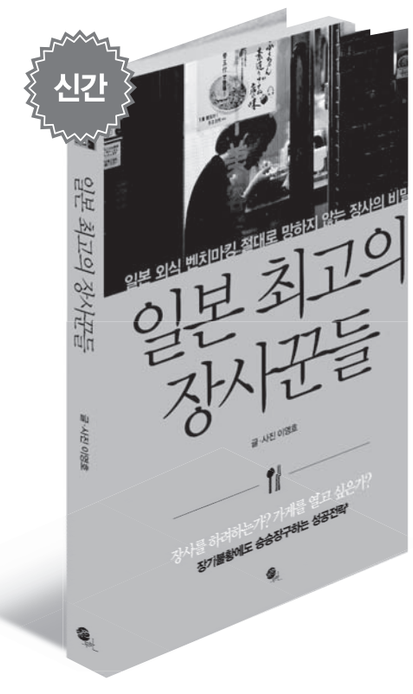
정수천 기자 int1000@



김종원 작가 부부가 작년 11월 중국 평안 장족 제전에서 전통의상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스마트폰에서 〈QR코드리더〉로 확인하세요.

장사를 하려하는가? 가게를 열고 싶은가?
장기불황에도 승승장구하는 성공전략



일본 외식 벤치마킹 절대로 망하지 않는 장사의 비밀
일본 최고의 장사꾼들
글·사진 이영호 | 248p | 15,000원

그들만의 성공전략 엿보기

1. 낮과 밤의 간판을 다르게 만든다
: 시간대에 따라 유동 인구의 나이, 스타일, 선호하는 바가 다르다.

2. 시내가 아닌 고객들이 사는 곳에 가게를 연다
: 월세가 비교적 저렴하고, 개성 있는 가게를 열 수 있다.

3. 추억을 판다
: 경제가 어려울 땐 추억으로 위안을 삼고,
경제가 좋을 땐 추억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며 즐긴다.

4. 물건이 아닌 장소를 판다
: 물건은 넘쳐나고 손님들의 지갑은 얇다. 대신 장소를 제공하라.

5. 사람들은 불편하고 귀찮다고 여기는 곳에 돈을 쓴다
: 햇반, 식혜 음료수, 씻은 쌀, 반쪽 양배추 등을 떠올려보자.

무한

muhanbook7@naver.com / www.muhan-book.co.kr / Tel. 02-322-6144 / Fax. 02-325-6143

주식형 연기금 투자풀 6년 만에 수익률 高高~

상반기 9.44% 시장평균보다 6.07%P 높아
총 수탁고 18조194억원… 작년보다 3조 ↑

상반기 연기금 투자풀의 주식형 투자 수익률이 2009년 이후 6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운용 규모도 지난해 말 대비 3조원가량 늘었다.

31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올해 1~6월까지 연기금 투자풀 주식형 투자 수익률은 9.44%로 시장평균(BM) 3.37%와 비교해 6.07%포인트 높았다.

이는 2009년 주식형 수익률의 BM 초과율이 13.57%포인트를 기록한 이후 6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2012년에는 주식형 수익률이 BM보다 3.10%포인트 낮을 정도로 성과가 부진했으나 2013년과 2014년 각각 2.09%포인트, 3.11%포인트 BM을 상회하며 회복세다.

이번 성과는 2분기의 영향이 컸다. 1분기 주식형 수익률은 6.02%, BM은 5.42%로 상승장에서 동반으로 성과가 개선되며 큰 차이가 없었다. 2분기 들어 증시가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BM이 -1.95%로 떨어진 반면 연기금 주식형 수익률은 3.22%를 기록하며 성과를 지켰다.

같은 기간 채권형 투자 수익률은 3.44%로 BM을 0.26%포인트 초과했다. 혼합형 수익률은 2.24%(초과율 0.69%포인트), MMF 1.89%(+0.04%포인트)로 나타났다. 연초 이후 모든 유형이 벤치마크를 상회하고 있다.

연기금 투자풀은 정부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해 통합 운용하는 제도다. 현재 삼성자산운용과 한국투자신탁운용이 기금을 나눠 관리하고 있다. 이 중 주식형 투자는 삼성자산운용만 실시한다.

1~6월까지 상반기 연기금 투자풀의 총 운용규모(수탁고)는 18조194억원이다. 지난해 말 14조9382억원 대비 3조원가량 증가했다. 운용비중은 채권형이 44.6%로 가장 컸고 혼합형(38.9%), MMF(16.2%), 주식형(0.4%) 순으로 집계됐다.

채권과 혼합형 투자에서는 한국투신운용이 시장 상대수익률 기준으로 삼성운용을 소폭 앞섰다. 연초 이후 한국운용의 채권형 투자 수익률은 3.83%로 BM을 0.36%포인트 초과했고 혼합형에서는 2.31% 수익률로 0.72%포인트 초과율을 보였다. 삼성운용의 경우 채권형 수익률 3.36%(+0.23%포인트), 혼합형 수익률 2.22%(+0.68%포인트)로 나타났다.

6월 말 기준, 올 상반기 삼성운용은 14조8156억원(82%), 한국운용은 3조2039억원(17%)을 운용 중이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001년 도입된 연기금 투자풀은 운영 초기 MMF 비중이 52.1%, 채권형 38.4%, 혼합형 9.5%였지만 최근 저금리로 채권형의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위험자산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라며 "향후에도 혼합형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gamja@



삼성證 신규·휴면고객 모바일 수수료 '공짜'

삼성증권은 올해 말까지 모바일 수수료 면제와 신용 이자율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삼성증권 신규고객과 작년 1월부터 올해 7월 24일까지 온·오프라인 주식 거래가 없었던 휴면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모바일 주식 수수료를 3년간 면제해 주고, 기간에 따라 6.4~8.5%인 신용거래 이자율을 5%로 우대 적용해 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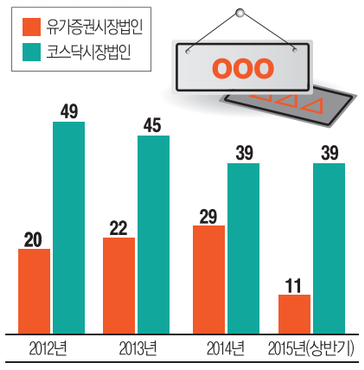
무료 수수료 참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엠팝(mPOP) 및 엠팝 태블릿(mPOP 태블릿)으로 매매할 경우 바로 적용되며, 신용거래는 mPOP 내에서 신청 후 이용이 가능하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온라인 자산관리 선점을 위한 기반 확대 차원에서 파격적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삼성증권 전국 지점과 가까운 우체국 및 은행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황윤주 기자 hyj@

올해 상장사 50곳 '간판' 바꿔 달았다

상장사 상호변경 현황
단위: 사(2015년 6월 30일 기준)



상호 변경 작년보다 16%↑
26개사 "기업이미지 제고"

올해 상반기 증권시장에서 상호를 바꾼 회사가 지난해보다 1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호를 변경한 상장사는 50개사로 작년 같은 기간 43개사보다 16.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증권시장 별로는 유가증권시장 법인이 작년 상반기 16개사에서 11개사로 전년 동기 대비 31.3% 감소한 반면, 코스닥시장 법인은 지난해 상반기 27개사에서 39개사로 전년 동기 대비 44.4% 증가했다.

최근 3년간의 상호 변경은 2012년 69개사에서 2013년 67개사로 2.9% 감소, 2014년도에는 68개사로 1.5% 증가했다.

상호를 변경한 상장사들의 과반수 이상이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기업명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웅진 등 26개사(52%)가 기업 이미지 개선 또는 제고를 위하여 상호를 변경했다.

이어 큐브엔터테인먼트 등 9개사(18%)가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의 합병 등 주요 종속회사 편입에 따라 기업명을 바꿨으며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8개사(16%)가 사업영역 확대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BNK금융지주 등 7개사(14%)가 그룹편입에 따른 CI통합 등으로 상호변경을 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상호 변경은 회사의 실적과 무관하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전략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호만을 보고 기업을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동부증권 '패밀리플러스 이벤트' 테마도서편

MTS990 개설하고 여가 즐겨요

〈스마트폰 주식거래 정액 수수료 상품〉

동부증권은 알에이치코리아와 제휴를 통해 'MTS990' 신규 고객에게 테마별 도서를 제공하는 '패밀리플러스(family+) 이벤트' 테마도서편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행사 참여 방법은 동부증권 홈페이지나 알에이치코리아 홈페이지에서 'family+ 이벤트'를 신청하고 동부증권 전국 영업점이나 새마을금고에서 동부증권 'MTS990' 증권계좌를 신규 개설하면 알에이치코리아에서 제공하는 테마별 도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

'MTS990'은 스마트폰 주식거래가 보편화되면서 거래금액이 큰 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정액제 수수료 상품이다. 스마트폰으로 거래 시 유관기관 제비용을 제외한 월 990원만 내면 거래 금액과 횟수 제한없이 주식거래를 할 수 있다.

첫 순서로 오픈한 'family+ 이벤트'는 수상레저편으로 'MTS990' 계좌 개설 후 30일 이내에 해당 계좌로 100만원 이상 거래하는 고객에게 서울마리나 2인 크루저 요트 체험권을 증정하는 행사로 오는 10월 말까지 진행된다.

두 번째는 실내레저편으로 스크린야구장 업체인 리얼야구존과 제휴를 통해 'MTS990' 계좌 개설 고객에게 3만원 상당의 스크린야구장 체험권을 제공하고 있다.

동부증권 관계자는 "요트, 스크린야구, 테마파크, 영화관에 이어 'family+ 이벤트' 다섯 번째 순서로 알에이치코리아 테마도서편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가족사랑 문화캠페인의 일환으로 여가활용과 문화생활을 위한 다양한 제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日서 배우는 초저금리시대 자산운용법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교육포럼 공개 세미나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교육포럼이 다음달 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에서 '일본의 20년 장기불황 경험에서 배우는 초저금리시대 가계자산운용법'을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

트러스톤연금교육포럼의 첫번째 공개 세미나인 이번 행사에는 일본 FPG투자고문㈜의 시모무라 미츠오 사장이 강연자로 나선다. 시모무라 사장은 20년 장기불황 시절 일본의 가계자산운용 경험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한국이 배워야 할 점을 소개할 예정이다.

일본 독립계 투자자문사인 FPG투자고문의 CIO와 CEO을 거친 시모무라 사장은 일본은 물론 한국 동남아 등 신흥국 사정에도 밝은 투자전문가다.

강창희 트러스톤연금교육포럼 대표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초저금리 등 최근 우리경제 주변 여건이 일본의 장기불황 초입과 매우 비슷한 모습"이라며 "일본의 사례를 통해 국내투자자들도 안정적인 가계자산 운용에 필요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투자금융업계 종사자 및 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 17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참가문의는 이메일(arsong@trustonasset.com)을 통해 가능하다. 김경아 기자 kakim@

10만 재테크 초보가 증명한 주식투자입문 베스트셀러
〈저는 주식투자가 처음인데요〉 완전개정판 전격 출간!





1% 저금리시대,
내 월급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책!

▶주식 파생상품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단계별 서킷브레이크 등 2015년 바뀐 新주식거래제도 반영!
▶주식투자로 시작해 경제공부로 끝나는 알찬 내용!

강병욱 지음 | 값 19,000원

왜 사람들은 지금
"지대넓얕"에 열광하는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온오프라인 전 서점 27주 연속 베스트셀러!



채사장 지음 | 각 권 값 16,000원

- 읽고 나면 똑똑해지는 듯한 이 느낌 _동아일보
- 점잖은 인문서 시장에서는 전례가 없던 파격 _국민일보
- 인문 입문서로 100점 만점에 100점인 책 _상근 님
- 지식과 정보의 홍부 속에 길을 찾아주는 지도 _sulanara 님
- 지식인들의 권위에 도전해보는 지식 대중화 _뿌앙 님
- 똑똑한 척 좀 해볼까 읽었다가 진짜로 똑똑해졌다 _nore000 님
- 인문학 지식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공부 욕구가 샘솟는다 _jlboy 님

한빛비즈 블로그 www.hanbitbiz.com / 페이스북 hanbitbiz.n.book / 트위터 @hanbitbiz / 전화 02-325-5508 / 팩스 02-326-1566

Stock premium
www.etoday.co.kr/stockpremium

"수소수 시장 선점" 솔고바이오 4분기 8억 투자

정수기·이온수·텀블러 타입 등 다양한 형태 신제품 개발
국내시장 초기단계… 헬스케어 관심 커지며 성장 가능성



솔고바이오 주가 추이
단위: 원



솔고바이오가 수소수기 사업 확장에 나선다. 올해 4분기 투자를 진행하고 수소수 시장 선점에 나서 주력 기업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31일 솔고바이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오는 9~12월 중 8억원을 투입해 수소수기 금형 등에 대한 투자를 진행한다. 수소수기 외에 투자가 진행되는 품목은 임플란트 가공용 머시닝센터, 메디칼, 헬스케어, 복합선반 연마기다.

솔고바이오는 수소수기 신제품 개발을 위해 이번 투자를 진행한다. 정수기 타입, 이온수기 타입, 텀블러 타입 등 다양한 형태의 수소수기를 출시해 초기 형성 단계인 수소수 시장을 성공적으로 진입한다는 구상이다.

회사 관계자는 "수소수기에만 얼마를 투자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다양한 신제품 개발을 위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앞서 솔고바이오는 이 달초 스마트 수소수 생성기 '수소샘 디스펜서'을 출시하며 수소수 시장의 외연을 확대했다. 이 제품은 '6중 티타늄백금 전기분해 시스템' 특허 기술력으로 물 속에 없는 수소를 생성시킨다. 특히 공기 중이나 물속에서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지 못하고 확산하는 수소의 특성을 완벽히 제어, 현존 수소수 생성기 중 용존시간이 가장 길다.

제품 출시 당시 김서곤 솔고바이오 회장은 "많은 의학 연구결과에서 인체의 노화와 질병의 원인은 활성산소라고 하는데 현재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활습관과 꾸준한 항산화 섭취가 필요하"며 "수소수는 바로 매일 마시는 물을 수소수로 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부담 없이 음용할 수 있어 항산화 습관을 들이기에 가장 좋은 솔루션"이라면서 수소수 제품 홍보에 적극 나섰다.

이처럼 솔고바이오가 수소수 시장을 신사업으로 공략하고 있는 까닭은 최근 국내 수소수 시장의 개화와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 급증 현상이 맞물리면서 시장의 급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직 우리나라 수소수 시장은 초기 단계로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일본 시장의 경우는 지난 2009년 115억엔(약 1086억원)이었던 수소수 시장 규모가 지난해 200억엔(약 1889억원)을 돌파하며 2배 가까이 성장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물속에 포함된 수소가 인체의 노화와 질병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는 효능이 알려지며 시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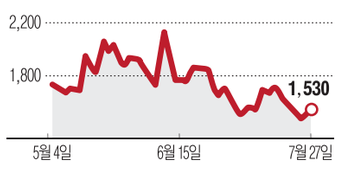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수소수 제조장치는 물론 수소수음료, 수소수 함유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응용 제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한편 솔고바이오는 올 4분기 95억6850만원 규모의 단기차입금을 상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단기차입금의 일부를 상환할 시 재무구조 개선 및 이자비용의 절감을 통한 이익 개선이 기대된다. 김유진 기자 eugene@

쌍방울, 아동복 '리틀탈리' 바이두 통해 中 첫 선

'2015 중국국제아동패션위크' 참가
2자녀 정책에 유아용품 시장 급증
백화점·쇼핑몰에 직영점 개설 나서

쌍방울 주가 추이
단위: 원



쌍방울은 지난 28일 '2015 중국국제아동패션위크(2015 CHINA CHILDREN FASHION WEEK)'에 참여하며 본격적으로 중국현지에 아동복 브랜드 '리틀탈리'를 선보였다고 31일 밝혔다.

베이징시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중국 메이져 아동복 브랜드가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패션쇼다. 중국 인터넷 포털매체인 Baidu(바이두), QQ(큐큐), Weibo(웨이보), SOHU(소후)등 20여개 매체를 통해 중국 전역에 폭발적으로 전파되는 공신력 있는 행사다.

특히 한국 아동복 최초로 쌍방울 '리틀탈리'가 참가해 중국 전역에 전파됐다. 회사 관계자는 "이 행사를 계기로 중국 바이어와의 상담을 통한 아동복 수주가 빠르게 전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쌍방울 양선길 대표는 "현재 중국의 1가구 2자녀 정책이 시행돼 사실상 영유아용품 시장의 발전이 현실화 되고 있다"며 "그 중에 유아동복인 리틀탈리 브랜드를 알리고 상품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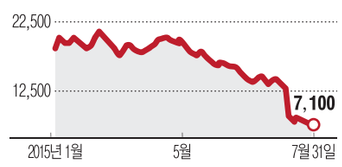
회사 측은 아동복 시장 교두보를 확보한 후 주요 거점 도시의 백화점과 쇼핑몰 위주로 직영점을 개설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통계국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내 유아동복 시장 규모는 24조원을 넘어섰고, 올해는 28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영록 기자 syr@

떨어지는 대우조선해양에 지갑 연 템플턴자산운용

14일부터 주식 사들여
총 957만주…5% 보유
저가 매수기회 활용 분석

대우조선해양 주가 추이
단위: 원



대우조선해양이 2분기 실적 악화로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표 내수주 지분을 사들이기로 유명한 싱가포르계 큰 손이 지분율 확대에 나서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템플턴자산운용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장내 매수해 총 956만9540주(5.0%)를 보유하고 있다. 2005년 보유하던 지분을 일부 처분한 뒤 10년 만에 5% 이상 주주로 올라섰다. 앞서 템플턴은 2004년 대우조선해양 1015만1850주(5.2%)를 매수해 5% 이상 주주로 올라섰지만 일부 지분을 내다팔며 지분율이 축소된 바 있다.

2012년 12월 7일 템플턴자산운용은 주당 2만4857원에 4만3280주를 사들였다. 이후 지난 1월 13일 기존 보유분 5470주를 신규보고한 이후 14일부터 주당 1만7150원에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이후 꾸준히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장바구니에 담아온 템플턴자산운용은 지난달 정성립 사장이 손실을 언급했던 시기에도 지분을 늘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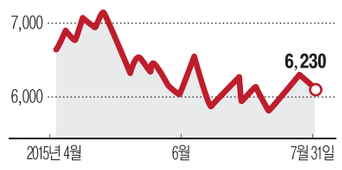
실적 우려에 주가가 우하향 곡선을 그리며 연일 하락하자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27일에는 11만8210주를 주당 7446원에 취득했다.

템플턴은 국내 대표적인 기업들에 대해 급격히 지분을 확대하고 있는 싱가포르계 자산운용사다. 삼성중공업, 현대산업개발, CJ, 강원랜드, 휠라코리아, 스카이라이프 등 국내에서 영향력 있는 내수 업체들의 지분을 보유한 바 있다.

장기적인 기업의 가치에 주목하는 템플턴의 투자성향으로 미루어볼 때 이번 지분 매입도 단기적인 차익실현이 목적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역발상 투자의 귀재'라 불리우는 템플턴 경이 한국시장은 세계에서 투자하기 가장 좋은 6개의 나라 중 하나라고 이야기 한 바 있듯이 저평가된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 목적의 매입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템플턴자산운용측은 "보유목적은 최상의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고, 투자시점에는 일반적으로 경영에 영향을 미칠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향후 투자대상기업이 OECD 및 World Bank의 최선의 기업지배구조원칙이나 국내의 기업지배구조기본원칙 등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수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경영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유현 기자 yhssoo@

세운메디칼 주가 추이
단위: 원



세운메디칼, 순익 100% ↑
2분기 사상 최대매출 달성

세운메디칼이 2015년 2분기에 분기 사상 최대매출액인 140억을 달성했다.

31일 세운메디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140억 매출액은 전년대비 16% 증가했다.

이는 베트남 공장 가동으로 수액세트 등 신제품 매출증가와 본사의 주력제품이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분기 사상최대 매출액 달성은 2년간 베트남 공장 투자에 대한 효과가 2분기에 반영돼 매출이 증가 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매출액 증가 추이로 보면 연간매출은 전년 대비 10%이상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100%이상 증가한 23억으로 일회성 비용 감소와 충당금 미설정으로 대폭 이익이 증가했다.

세운메디칼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신제품 매출증가와 베트남 공장 생산량 증가로 매출액과 이익이 증가할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계 투자 기관인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에서 최근 세운메디칼의 성장성과 우수한 재무구조를 보고 장내에서 주식 매수해 5%이상 지분공시를 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아이센스, 인도·칠레 법인 설립… 영토 확장 나섰다

서남아시아·남미시장까지 공략
혈당측정기 브랜드 파워 강화

글로벌 바이오센서 전문기업 아이센스가 인도 및 칠레에 아이센스 현지 법인을 설립, 본격적인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아이센스는 지난 해 중국법인 설립에 이어 올해에는 신흥시장인 인도와 칠레 법인 설립을 통해 빠른 속도로 해외시장 거점 확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전체 매출의 80% 정도가 수출로 해외 비중이 높은 아이센스는 이번 해외법인 설립을 기점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및 신규 고객사 발굴을 통해 서남아시아 및 중남미 지역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이센스가 선택한 인도는 12억 인구의 방대한 내수시장으로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중산층과 부유층 역시 급속도로 늘고 있어 향후 서남아시아권 거점이 될 수 있는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된다. 이에 아이센스는 철저한 현지화와 현지 상황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 이용자 밀착형 운영 등을 통해 향후 서남아시아권 전반으로 영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아이센스의 남미시장 법인으로 설립되는 칠레지역은 매년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곳으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주요 남미국가를 공략하는 전초 기지의 역할을 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차근식 아이센스 대표는 "인도, 칠레 법인은 아이센스의 대표 제품인 혈당측정기의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고 매출 다변화를 통한 수익성 및 성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탄탄하게 다져진 성장기반을 바탕으로 올해는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를 가시화 하는 데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겠다"고 전했다.

아이센스는 혈당측정기, 혈당측정스트립(검사지), 전해질 분석기 등을 제조하는 2000년 설립된 바이오센서 전문기업이다. 첨단 바이오센서 기술을 바탕으로 채혈량과 측정시간을 줄인 혈당측정기를 개발했으며,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70여 개국 수출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나이벡, '홈브리치용 치아미백제' 국내 판매 돌입

수출용에 이어 품목 허가 받아
그동안 전량 수입… 수익 기대

나이벡이 전문의약품인 수출용 치아미백제에 이어 국내 '홈브리치용 치아미백제' 품목허가를 받고 본격 판매에 돌입했다.

나이벡은 최근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전문가용 홈브리치용 치아미백제에 대한 품목 판매허가를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판매되는 제품명은 '블랑티스 에프 프로겔 15%'이다.

나이벡이 지금까지 받은 치아미백제 판매 허가는 지난 4월, 10% 수출용 미백제를 포함해 모두 6개 품목으로 국내 홈브리치용 치아미백제가 2가지, 수출용이 4가지다.

이에 따라 나이벡은 자사가 독자 개발한 6가지 치아미백제 제품의 라인업을 갖추고 수출용 품목 4가지 중 2가지 제품은 이미 수출을 시작한 상태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홈브리치용 치아미백제는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나이벡이 국내 최초로 선보인 홈브리치 전문가용 치아미백제는 수입대체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홈브리치용 치아미백은 치과병원에서 치아 트레이와 미백제품을 받아 집에서 시행하는 치아미백 방법이다.

나이벡은 지난 2008년 9월 일반용 치아미백제 런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끊임없는 품질 업그레이드를 통해 제품을 공급해 오고 있다. 올 들어 전문의약품 치아미백제까지 제조 및 판매를 하게 돼 치아미백제와 관련해서는 의약품, 의약외품 모든 품목을 제조, 판매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 됐다.

또한 나이벡은 전문의약품 치아미백제가 동시 라인업 되면서 치아미백 전문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치아 미백효과를 제공하게 됐다.

특히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던 홈브치리용 치아미백제 시장에 국내 최초로 론칭하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르는 회사 수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이벡 관계자는 "미국으로의 수출을 계기로 현재 해외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며 국내외 치아미백제의 시장에서 업계 1등이 되기 위해 전사적 총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스맥, 흑자전환… 상반기 영업익 6억

누적 매출액 546억 작년보다 3%↑
기계사업 성장…통신 적자폭 줄여

스맥은 올 상반기 누적 매출액 54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 증가했으며, 영업이익 6억원과 당기순이익 3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고 31일 밝혔다.

흑자전환으로 돌아설 수 있었던 데는 기계사업부의 꾸준한 성장과, 통신사업부의 영업력 강화를 통한 적자폭 감소가 큰 역할을 했다.

기계사업부는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 1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해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했으며,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7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했다. 꾸준히 규모가 확대됨에 따른 원가 효율 증대가 흑자전환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통신사업부는 이번 상반기 영업손실 6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75% 감소했으며 상반기 당기순손실 역시 4억원으로 적자폭이 79% 줄었다. 사업부문 원가절감 활동과 지난해 주춤했던 통신사업자의 장비투자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원종범 대표는 "상반기 실적 개선의 요인인 기계사업부의 지속적인 발전과 통신사업부의 성장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하반기에도 기계사업부 해외 마케팅 강화 및 통신사업부의 흑자전환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히 중점 연구개발 제품인 3D프린트도 7월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시장에 선보이기 위해 충분한 환경테스트 및 성능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영록 기자 syr@

자연과환경, 에코트라움과 동두천 역세권 공동 개발

자연과환경은 에코트라움과 동두천 역인근 약 2만8326㎡(약 8569평)규모의 부지를 공동 개발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발사업은 철강사업부매각 이후 친환경 건설사업부의 첫번째 작품이다.

개발에 나서는 사업부지는 현재 용적율 250%를 적용받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동두천역에서 350m거리의 역세권에 자리잡고 있다. 사업예정지 바로 옆으로 동양대학교 북서울캠퍼스가 내년 신학기부터 개교해 임대수요 및 투자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 사업예정지가 현재 민간야구장으로 이용 중이라 별도의 철거비용이 필요없어 개발여건이 매우 양호하다.

자연과환경 관계자는 "동두천시 소재 개발 업체 에코트라움과 지분투자, 공동시행, 시공참여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조율 중에 있다"며 "향후 회사의 이미지와 실적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4,724km의
이동거리
127번의 집밥
15,474,311번의
좋아요와 댓글
682,433명과의 만남
31일간의 무전여행을 통해
연결에는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기술을 넘어 사람을 연결하는 일
속도를 넘어 진심을 연결하는 일
그렇게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연결의 의미를 끊임없이 알게 해주는 일
SK텔레콤은
그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연결의 무전여행
www.sktconnect.com
#연결의 무전여행
연결의 힘을 믿습니다
SK telecom